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아시아문화학 석사 학위논문

# 제주도와 오키나와 민요 비교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아시아문화협동과정

양 미 립

2018년 2월

# 제주도와 오키나와 민요 비교 연구

이 논문을 아시아문화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전남대학교 대학원  
아시아문화협동과정

양 미 럽

지도교수 표인주

양미럽의 아시아문화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이 용 식 (인)
심사위원	김 용 의 (인)
심사위원	표 인 주 (인)

2018년 2월

# 목차

국문초록.....	2
I 서론.....	3
1. 연구 목적.....	3
2. 선행 연구 검토.....	5
3. 연구 대상 및 범위.....	8
II 제주도과 오키나와 민요의 비교문화적 기반.....	9
1. 제주도과 오키나와 생업방식.....	9
2. 제주도과 오키나와의 민속문화 유사성.....	13
3. 제주도과 오키나와 역사지리적 관계.....	18
III 제주도과 오키나와 민요 비교 분석.....	19
1. 노동요.....	21
2. 경세요.....	40
3. 정요.....	45
IV 제주도과 오키나와 민요의 특징과 의미.....	59
1. 민요의 주제 및 연행의 특징.....	59
2. 전승집단의 삶의 태도와 인식.....	63
V 결론.....	65
참고문헌.....	68
영문초록(abstract).....	70
부록.....	72

# 제주도와 오키나와 민요 비교 연구

## 양 미 립

전남대학교 아시아문화협동과정

(지도교수 : 표인주)

(국문초록)

이 논문은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민요를 노동요와 경세요 정요로 나누어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 노동요는 농업/제분요, 어업요, 관망요로 다시 나뉘어 양자의 비교를 시도한다. 특히 제주도의 농업요는 제분요에 해당하는 맷돌/방아노래와 해녀노래가 지배적이며 노동의 특성상 부요적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노동요 가운데 각각 상이한 장르로 가창될 법한 다양한 생활 감정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점을 특성으로 꼽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세요와 정요의 사설도 모두 노동요 안에서 찾아 비교하였다. 오키나와의 노동요는 향토가와 풍작기원요의 성향이 두드러지며 자신이 속한 마을과 마을 사람들에 대한 예찬이 자주 수반된다. 오키나와의 농업요는 제주도와는 달리 벼농사를 노래한 사설이 다수 보이는 편이다. 오키나와의 어업요와 관망요에서도 이러한 특성은 반복적으로 보이는 한편, 여러 종류의 노동 작업이 한 곡 안에 모두 수록된 독특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기도 하다. 이를 기타 노동요로 분류하였다.

양자의 경세요와 세정요는 “언행을 주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메시지가 발견되지만, 제주도는 “나”를 중심으로 맺는 관계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오키나와는 “우리”를 강조하며 “관계지향형”적인 성향이 드러난다. 정요는 제주도와 오키나와 모두 4가지와 5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살펴보았다. 제주도의 민요는 노동요가 압도적이라면 오키나와의 민요는 연가가 우위를 점하는데 이는 모아소비라는 관행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오키나와 연가가 연애 상대에 대한 노래가 다수를 차지한다면, 제주도 연가는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한 부요의 연속선상에서 봐야할 것이다.

주제어 : 노동요, 정요, 경세요, 향토가, 풍요기원요, 연가

# I 서론

## 1. 연구 목적

### 1) 민요 연구의 필요성

민요 연구의 필요성을 한국과 일본의 민요 연구자들이 세운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찾을 수 있다. 먼저 최철(1986)에 의하면 민요는 작가가 따로 있지 아니며, 창자 역시 특정 전문 직업군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이는 곧 민중이라는 다수의 사람들 가운데 자생적으로 생겨났음을 의미하는 만큼 보통 사람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감정들이 녹아 들어있는 노래이기도 하다. 노래가 생겨나고 향유되며 후대로 전승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자유롭게 개작되는 특징을 지니며, 그 가운데 공간적으로는 한 고장의 향토성과 시간적으로는 시대정신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노래가 민요라고 하였다.<sup>1)</sup>

한편, 일본 음악평론가이자 민요연구가인 마치다 가쇼(町田嘉章) 또한 이와 동일선상에서 일본 민요를 바라보았는데, “본래 향토 민중 집단 사이에 자연스럽게 발생하여, 전승되어 가는 중에 그 생활 감정을 소박하게 반영한 가요”라는 견해를 내세운 바 있다.

나아가 그는 민요의 의미를 다음 5가지로—(1) 국문학적 해석 (2) 음악학적 해석 (3) 시학적 해석 (4) 민속학적 해석 (5) 철학적 해석—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중에서도 민요의 본질을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 철학적 해석 단계에 있다고 보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야스나가 도시노부(安永寿延)의 해석<sup>2)</sup>을 들었다.

야스나가의 관점에 의하면, 민요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요의 주체는 결국 피지배층인 민중이다. 피라미드의 최상단에 근접한 이들이 아닌, 바로 그 아래에 속하는 민중

1) 최철, 『한국민요론』, (집문당, 1986), 14쪽.

2) 민요를 예술가곡과 창가, 유행가, 그 밖의 여타 가요와 구별하는 본질적인 표식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집단성”에 있다. ……지금까지 일본민속학이 종종 지적한 바와 같이, 그리고 사실 그대로이나 일본 민요의 대부분은 노동요이다. 가성(歌聲)을 향수하는 사람들은 그 보편성을 다시금 각자의 특수한, 구체적인 생활체험에 의해 주체적으로 보충해가며 받아들인다. 그러한 창조와 향수의 관계 속에서, 가성은 보편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을 통일시켜 나가며 나선상(螺旋狀)의 전진을 지속해온 것이다.

이 주체가 되므로, 민요가 “집단성”을 가질 수 있다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표식의 증명이자 발로가 되는 것이 민요 중에서도 바로 노동요이다. 일본 민요뿐만 아니라 한국민요 또한 노동요(근로가)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집단성을 이룩하는 과정은 곧 인간의 감정이라는 보편적인 것과, 보편적 감정을 느끼게 하는 개개인의 생활체험이라는 개별적인 것을 통합시켜 나가며 지속해 온 것을 말한다. 그 결과물이 우리가 현재까지 접해왔고 또 다시 다루게 될 민요이다.

최철이 주장한 향토성과 시대정신, 그리고 야스나가가 주장한 집단성에 근거한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감정과 생활 체험이라는 개념 안에서 필자가 다시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성격, 즉 “민요의 사회성”이다. 야스나가가 언급한 문학적 해석, 음악적 해석, 시학적 해석을 민요의 “예술성”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민요가 가지는 장르의 성격 중 바로 이 예술성보다는 민속학적/철학적 해석을 아우르는 것 이상의 “사회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공통된 틀로 수렴하고자 하는 통합의 조류 가운데 상호 연계를 전제로 한 “융합”을 하나의 과제이자 비전처럼 주장하는 오늘날, 각 나라와 민족이 가지는 독창성을 지키고 그로부터 기인된 다양성을 넓혀가는 일이 동시에 중해졌다. 다소 거창한 화두이나 이를 가능하게끔 하는 여러 수많은 문화 요소 가운데에 바로 이 민요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비교 연구 필요성

본고에서는 여러 지방의 민요 가운데 제주도 민요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또한 제주도 민요의 특성을 확장된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오키나와 민요를 비교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제주도와 오키나와는 양자 모두 섬 지방으로 본국·본토에서 분리되었다가, 후대에 이르러 각각 한국과 일본이라는 하나의 국가 안에 복속되는 공통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제주도는 본래 독립국이었는데 백제 멸망과 더불어 신라에 병합되었고 고려조 이후에는 원나라에 의한 점령과 왜구의 거듭되는 침입을 겪었다.<sup>3)</sup>

일본의 최남단에 위치한 오키나와는 여러 섬이 모여 한 나라를 이루었던 옛

3) 이즈미 세이치, 『제주도』, (여름언덕, 2014), 5쪽.

류큐왕국[琉球王國]이었다. 본토의 메이지정부에 의해 1879년 나라를 빼앗기고 오키나와현(縣)이 되었는가 하면, 1945년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하며 미국의 통치시대를 겪었다 1972년에야 다시 오키나와현으로 복귀하였다.<sup>4)</sup>

내재적 아픔과 저항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제주도와 오키나와는 모두 양국의 최남단에 위치해 연중 온난한 기후를 보이는 한편 항상 태풍의 길목에 서있다. 두 지역의 교집합의 범위가 넓은 만큼, 이후 연구사에서 보게 될 바와 같이 이를 토대로 설화, 무속, 토속신앙을 비롯한 다양한 범위의 민속 문화 비교 연구를 축적해왔다.

한편, 전술한 민요의 개념과 특성—향토성과 시대정신, 집단성, 사회성—에 초점을 맞춰 양 지역을 들여다보면, 제주도인과 오키나와인이 지니는 각각의 ‘보편성’과 ‘개별체험’, 나아가 양자의 유사성 및 독자성의 발견에 이를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섬 밖의 본토에 속한 사람들과 그들이 속한 거대한 권역을 “중심부”로 묶는다면, 그 권역 밖에 존재하는 나머지 지역 사람들은 “주변부”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후자에 속하는 제주도와 오키나와는 독특한 기후환경과 그에 맞는 생활양식에서 비롯된 특질이 존재함과 동시에, 상당기간 주변부의 위치에 있음으로 인해 제도권과 각종 질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인류 문화의 원형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원형이 곧 본질을 의미하는 바는 아니나, 원형가운데서 본질을 찾을 수 있음은 분명하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민요를 비교하고 민요 속에 나타난 양자의 처세관을 알아보려고 한다.

## 2. 선행 연구 검토

제주도와 오키나와 비교 연구에 앞서 먼저 한·일 민요 비교 연구는 1986년 유재일<sup>5)</sup>에 의해 이뤄졌다. 대상 지역은 특정 섬이나 지방에 치우치지 않고, 홋카이

4) 호카마 슈젠 저, 심우성 역 『오키나와의 역사와 문화』, (동문선, 2008), 5쪽.

5) 유재일, 「한·일 민요의 비교 서설—노동요를 중심으로—」, 『한국민요론』, (집문당, 1986), 262-263쪽.



도, 규슈, 류큐쿠, 긴키 지방 등을 포함한 일본 본토와, 전북, 경남, 경북, 제주도 등 한반도에 산재한 노동요를 중심으로 베틀노래, 해녀노래, 모심기 노래, 풀베기 노래, 어부 노래를 비교하였다.

해당 논문에서 유재일은 우리나라의 노동요는 일에 대한 의욕과 풍요로운 수확의 꿈이 노래에 담겨 있다는 점에서는 일본의 노동요와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민요에는 노동의 현실 공간과 현실의 세계가 이상공간과 이데아의 세계와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진데 이는 노동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창자의 의지와 함께 우리 민족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보았다. 이에 비하여 일본의 노동요에서는 일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개별적 자아를 인식하는 모습이 강조되는, 사실주의적인 세계관이 담겨져 있다고 결론지었다.

지춘상에 의한 한국과 오키나와의 민속 비교 연구는 1975년부터 이뤄졌다. 양자를 다룬 첫 논문인 <한국과 오키나와의 민속><sup>6)</sup>에서 가족제도와 문중제도, 복장제, 풍수설, 줄다리기의 유사성 등에 대해 논하였으며, 이후 일본 민속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비교 연구를 심화시켜, 1999년에는 <한국과 오키나와 줄다리기의 성희성><sup>7)</sup>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비교민속학적 연구 모델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받는다.<sup>8)</sup> 표인주는 2001년 <오키나와 우타키와 한국 남도지역 촌락공동체 신앙 비교 고찰><sup>9)</sup>을 통해 양국의 제의와 사제자 및 제의참가자에 대해 비교 연구하였다.

2010년에는 김용의가 오키나와 민족설화집인 《유로설전》<sup>10)</sup>을 번역한데 이어, 2015년에는 사키마 고에이가 직접 채록한 100편의 오키나와 민간 설화인 《오키나와 구전설화》<sup>11)</sup>를 국내에 소개하였다. 특히 후자의 일부 설화는 우리나라 구전설화와 유사성이 많아 한국과 오키나와 설화를 비교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받는다.

2011년에는 윤수미가 <오키나와와 제주도 무무(巫舞) 비교 연구><sup>12)</sup>를 통해

6) 지춘상, 「한국과 오키나와의 민속」, 『전남대학보』, (전남대학교, 1975).

7) 지춘상, 「한국과 오키나와 줄다리기의 성희성」, 『韓國と沖繩の社会と文化』, (第一書房, 1999).

8) 지춘상, 『동아시아 민속학』 (민속원, 2010), 5쪽.

9) 표인주, 「오키나와 우타키와 한국 남도지역 촌락공동체 신앙 비교 고찰」, 『韓國と沖繩の社会と文化』, (第一書房, 2001).

10) 사키마 고에이 저, 김용의 역, 『유로설전』, (전남대학교출판부, 2010).

11) 사키마 고에이 저, 김용의 역, 『오키나와 구전설화』, (전남대학교출판부, 2015).

12) 윤수미, 「오키나와와 제주도 무무 비교 연구」, 『한국무용연구』, (한국무용연구학회, 2011),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무무와 음악적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한-일간의 무속 춤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예안은 2013년 <도서에서 본 뱀 설화 비교고찰-오키나와와 제주의 뱀 설화를 중심으로-><sup>13)</sup>라는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오키나와와 제주도의 뱀 설화 유형 분류 및 분석으로 두 지역의 뱀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식변화를 고찰하였다.

민요 연구사적인 측면에서는, 1958년 김영삼의 제주민요집<sup>14)</sup>을 시작으로 1960년대에 김영돈, 김영순, 진성기 등이 이어서 제주 민요를 갈래별로 정리하였다. 1984년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한국의 민속음악 : 제주도 민요편》<sup>15)</sup>을 출간하였고, 1991년에는 MBC 문화방송 라디오국에서 해설집과 함께 녹음자료를 발행하였다. 1994년에는 주로 1920-30년대 제주도에 불린 제주 민요를 노래별로 분류 고찰한 좌혜경의 《제주섬의 노래》<sup>16)</sup>를 통해 해당 시기에 유행한 노래들을 다루었다.

2005년에는 조규익<sup>17)</sup>에 의해 제주도 해녀 노 짓는 소리의 음악적 분석 및 사설의 변이양상과 전승양상을 다루었다. 2007년도에는 탐라문화연구소의 《탐라문화학술총서》 6집에서 변성구는 《제주민요의 현장론적 연구》<sup>18)</sup>를 양영자는 《제주민요의 배경론적 연구》<sup>19)</sup>를 내놓았다.

변성구는 제주민요 사설의 성격과 구성양상 및 연행과 사설 양상을 다루었으며, 양영자는 배경론적 관점에서 제주민요에 나타난 생활양식과 제주민요의 정서에 대해 정리하였다. 2012년에는 좌혜경<sup>20)</sup>이 명창들을 통해 제주도 민요를 노동요, 의식요, 창민요, 동요 등으로 나누었으며, 가창자의 학습과 전수 등을 함께 다루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제주도 민요는 유형별로 분류되고 엮어졌으며, 사설 중심

51-79쪽.

13) 이예안, 「도서에서 본 뱀 설화 비교고찰-오키나와와 제주의 뱀 설화를 중심으로-」, 『일본 근대학연구』, (한국일본근대학회, 2015), 139-160쪽.

12) 김영삼, 『제주민요집』, (서울:중앙문화사, 1958).

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집부, 『한국의 민속음악 : 제주도 민요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16) 좌혜경, 『제주섬의 노래』, (국학자료원, 1995).

17) 조규익, 이성훈, 강명혜 『해녀 노 짓는 소리의 본토전승양상에 관한 조사 연구』, (민속원, 2005).

18) 변성구, 『제주민요의 현장론적 연구』, (민속원, 2007).

19) 양영자, 『제주민요의 배경론적 연구』, (민속원, 2007).

20) 좌혜경, 『제주민요를 지킨 명창들』, (민속원, 2012).

으로 이루어진 연구 성과로 정리된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 민요의 두드러진 특색이라 할 수 있는 부요적 성격이 강한 점, 특히 여성이 중심이 되는 맏돌/방아노래와 해녀노래에 대한 분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나아가 자장가나 육친가에 드러난 “할망”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연구에까지 미치고 있다. 한편 사설 분석과 그 바탕에 치우쳐진 경향이 있어, 음악학적 해석은 다소 빈약하다는 점이 약점이라 할 수 있겠다.

앞서 언급한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공통적인 특질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민요를 비교한 사례는 좌혜경(2000)의 《한국·제주·오키나와 민요와 민속론》<sup>21)</sup>이 거의 유일하다. 좌혜경은 강강술래와 아마미 지방의 八月踊(하치가츠오도리)<sup>22)</sup>비교와 오키나와의 해신제와 제주도의 영등굿을 통한 굿의례를 비교한데 더불어, 제주도 민요의 경우는 해녀노래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오키나와 민요는 부시(節)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 3. 연구 대상 및 범위

제주도 민요는 김영돈의 《제주도 민요 연구(상권/하권)》의 사설을 주요 텍스트로 삼아 그 안에서 비교 대상들을 선정하였다. 본고 내의 모든 제주도 민요는 해당 텍스트에서 발췌하였으므로 각 노래마다 별도로 각주처리는 하지 않도록 한다. 해당 문헌은 제주도 고유의 고전민요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을 모은 것으로 1965년에 초판을 낸 이후, 2001년에 개정판과 이론편인 하권이 함께 출간되었다.

제주도 민요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노동요를 노동의 종류별로 나눠 상세히 수록하고 있으며 그 외, 타령류와 동요편으로 나누어 각 갈래별로 정리함으로써 다수의 곡을 담아내고 있다. 저자는 제주도의 동서남북의 균형을 고려한 가운데, 훌륭한 가창자가 있는 마을에 치중하였으며, 같은 채집 지점이라도 필요에 따라 재답사 및 채집을 거쳤다.

21) 좌혜경, 『한국 제주 오키나와 민요와 민속론』, (푸른사상, 2000).

22) 八月踊(하치가츠오도리) : 동근 달이 뜨면 광장에서 남녀가 원을 만들어 노래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추는 춤으로 단순한 북 리듬에 맞추어 자신들의 민요를 부르며 미묘하게 변화하는 동작의 춤을 일컫는다. (위의 책).

해당과정을 거쳐 얻은 3천여 편 가운데서 제주도 고유의 것이며 대역할 수 있는 민요만을 엄선하였다. 따라서 본토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 표준어화한 것, 너무나 유행가요적인 것, 한문구가 많은 것 등은 제주도민요로서의 순수성을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대폭 제외시키고 제주도 민요의 중심인 노동요를 중점적으로 수록하고 있다.<sup>23)</sup>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해당 저서가 제주도의 민요를 드러다 보기에 가장 적합한, 대표성 있는 자료로 여겨지므로 이를 비교 대상을 추려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오키나와 민요는 《沖繩のうた—沖繩民謡総集編—(이후 오키나와의 노래)》<sup>24)</sup>를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제주도 민요와 마찬가지로 본고 내의 모든 오키나와 민요는 해당 텍스트에서 발췌하였다. 이 가사집은 2013년에 초판이 나온데 이어 바로 이듬해인 2014년에 개정판을 내며, 전체 479곡을 일본어 50음도 순으로 수록하고 있다.

오키나와 민요를 집대성한 가사집의 결정판으로, 지역민의 요청이 많았던 곡을 개정판에 추가하였으며, 널리 불리는 대표성 있는 민요를 엄선하여 수록하고 있다. 또한 부르기 용이하도록 후리가나가 달려있으며, 해당 곡이 불리기 시작한 지역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여타 가사집들이 중복되는 곡들이 많고, 대체로 팝음악에 가까운 신민요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는데 반해, 《오키나와의 노래》는 제주도 민요 텍스트와 비교 층위가 맞는 곡을 위주로 제시하고 있다. 본래는 오키나와 지방의 민요를 가리키는 시마우타(島唄) 가사집이라 하더라도, 막상 수록된 노래를 보면 규슈 지방의 민요가 뒤섞여 있는 가사집도 적지 않다. 《오키나와의 노래》는 제목 그대로 오키나와 민요만을 실었다.

단, 이번 논문에서는 저자가 따로 있지 않은 곡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오키나와 민요 중 작사/작곡가명이 명시된 노래는 제외하였다. 이에, 총 55곡을 선정하여 필자가 번역한 후 그 가운데서 비교 대상을 삼도록 하였다. 번역 원문은 부록에 담도록 한다.

23) 김영돈, 『제주도 민요 연구 上』, (민속원 2001), 7-10쪽.

24) 備瀬善勝·松田一利, 『沖繩のうた』, (キャンパス 2014).

## II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비교문화적 기반

### 1. 제주도와 오키나와 생업방식

제주도의 생업은 크게 밭농사를 위주로 한 농업과 어업으로 나뉜다. 제주도는 탐라시대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화전 또는 밭농사로 생계를 꾸려갔다. 현용준은 제주도 식생활이 지극히 소박한 것이라고 회상한다. 그는 제주도는 논밭이 안 되는 곳이어서 잡곡으로 밥을 하거나, 범벅을 하거나, 죽을 쑤거나 하여 주식으로 하고, 밥에는 반드시 국을 곁들여서 먹었던 어린 시절을 이야기 한 바 있다.<sup>25)</sup>

주로 보리밥과 조밥을 주식으로 하고, 배추, 무, 콩잎 등을 부식으로 삼았다. 생멸치나 자리돔과 같은 생선은 젓을 담아 조금씩 찌어 먹고, 제사 등 큰일 때에 쓰기 위해 옥돔을 보리와 바꾸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갈치나 고등어도 겨우 이따금씩 먹을 수 있었던 생선이었다.

쇠고기는 몇 년에 한 번 접하던 음식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는 제사나 명절 때에 맛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돼지고기의 경우는 ‘추렴한다’고 해서 이웃끼리 돈을 모아 돼지를 잡아 한 뼈씩 나누어 먹었다고 하는데, 이를 ‘뚝추렴’이라고 한다. 현용준은 제주도 백성들의 식생활은 밭농사에 기초한 완전 채식에 가까웠다고 말해도 무방하다고 하였다.<sup>26)</sup>

어업은 총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석원어로법이 그 첫 번째로 바닷가에 돌담을 둘러쌓아 밀물 때 고기가 들어오고 썰물 때 바닷물이 빠져나가 고기만 남게 하는 방법으로, 조수의 간만을 이용한 어로법이다. 이 석원어로법의 분포는 오키나와, 대만, 동남아시아 일대에도 미치고 있다고 한다.

두 번째는 뗏목의 제주 말인 ‘터우’를 이용하여 어부를 바다 멀리 태워 나가 갈치나 고등어를 낚는 어로작업을 하고, 멸치가 들어올 때는 그물을 치는 역할도 하였다. 세 번째로는 해녀들의 작업으로 바다 속에 들어가서 해삼, 전복, 미역 등

25) 현용준, 『제주도 사람들의 삶』, (민속원, 2009), 92쪽.

26) 현용준, 『제주도 사람들의 삶』, (민속원, 2009), 94-95쪽.

의 해산물을 캐내는 일을 말한다. 어민들이 이용한 터우로 갈치, 고등어, 옥돔 등의 바닷고기를 잡으며 근해어업을 하는 한편, 해녀들은 이 터우를 이용하여 먼 곳까지 나가 조업을 하곤 했었다.<sup>27)</sup>

더불어 제주도 생업에서 결코 빠트릴 수 없는 것은 목장이다.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지형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데다, 식물이 풍부하게 자생하고 있어서 목축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제주목장은 고려 충렬왕 때 원나라에 의해 설치되어 주로 원에 공납하기 위해 사육되었다.

조선 초기에 이르러서도 목마는 국용에 조달하거나, 명과의 외교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매개체의 하나로 기능하였다. 조선전기 이래로 제주목장은 우리나라 목장 가운데 으뜸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목장을 신설하거나 혹은 목장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제주사례에 의거하여 해결하였다.

15세기 제주목마의 규모는 전국 목마의 40%이상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사설 목장이 국영목장을 능가할 만큼 활발히 운영되었다. 17세기에는 약 60%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다. 19세기 중앙정부는 제주마를 보존하기 위해 종마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목장 운영에 필요한 섬 주민들이 유리되지 않도록 구휼하고 통제하는데 적극적이었다.

한편 제주도의 공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물종은 진상마로, 그 종류만 10종류에 달하며, 그 규모는 매년 500~600필 정도였다. 여기에 제주용 흑우가 20~40수 추가되었다. 조선시대 전 기간 동안 중앙정부는 제주목장에서 공납하는 제주마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28)</sup>

오키나와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작물은 사탕수수이다. 사탕수수 수확은 설 무렵에 이뤄지는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모두 동원되어 사탕수수밭에서 작업을 하게 된다. 그 흔적이 ‘이마루’(結い回る·돌며 묶기)와 ‘히치바루’(一日中畑仕事·온종일 밭일하기)라는 용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오키나와 농가의 주된 현금수입원이었던 사탕수수는 제당공장에 팔아 흑설탕으로 가공된다. 한 가정에서 ‘히치바루’를 2, 3일 하면 트럭 한 대 분량인 약 20톤의 사탕수수를 수확할 수 있는데, 이

27) 현용준, 『제주도 사람들의 삶』, (민속원, 2009), 122-130쪽.

28) 김경옥, 「제주목장의 설치와 운영-탐라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 4권』, (역사문화학회, 2001), 77-78쪽.

는 1960-70년대 초까지 10달러에 팔 수 있는 분량이었다.<sup>29)</sup>

그러나 이는 1960년대 이후의 상황이며, 그 이전까지는 벼농사가 왕성하게 이루어졌었다. 메이지시기(1868~1912)부터 쇼와(1926~1989) 초기까지 5,000~8,000ha의 작부면적이 있었으며 전후인 1955년까지는 12,532ha나 생산되었었다.

오키나와의 도작은 오래 전부터 보리류, 콩류, 수수, 좁쌀 등과 함께 주요 식량으로써 재배되어 왔는데, 다만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전해져 왔는지는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다. 태풍으로 인한 영향을 피하고, 최대한 많은 수확을 이루기 위해 오키나와의 벼농사는 이모작 형태로 이뤄졌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값싸게 들어오는 외국 쌀의 수입으로 벼농사 생산량은 절정기의 10분의 1 이하로 급감하였으며, 사탕수수 값은 크게 오르며 농업 생산 환경이 반전된 것이다. 현재는 오키나와 내 쌀의 생산지가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그 중 전체 5할 가까이 차지하는 곳이 이시가키시(石垣市)이며, 이어서 이헤야손(伊平屋村), 이제나손(伊是名村), 요나구니쵸(与那国町)등에서 생산되고 있다.

오키나와 본도 북부에서도 적은 생산량이나마 벼농사가 이뤄지고 있다.<sup>30)</sup> 이후 오키나와의 농업요를 살펴볼 때 벼농사의 언급이 잦은 이유는 이러한 생업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키나와 토지의 가장 많은 부분을 점하고 있는 또 하나의 식물은 고구마, 토란과 같은 뿌리채소이다. 재배법이 간단하며 번식력이 강하고 풍해에도 잘 견디는 이런 고구마류의 작물을 이식한 덕분에 기근에서 해방되고 출산율도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sup>31)</sup>

한편 제주도의 농업 부분에서 언급한 식문화 중 하나인 돛추럼과 같이 오키나와에서도 친척 혹은 이웃끼리 돈을 각출하여 공동으로 돼지를 잡아서 설날용을 비롯한 반년분의 돼지고기를 서로 나누어 가졌다. 오키나와의 시인 다카라벤은 30일과 설달그믐에는 마을 곳곳에서 돼지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회상하였는데 역새로 지붕을 인 집에 살며 평균적으로 모두 가난했던 마을에서는 이렇게 ‘설날

29) 다카라 벤 저, 김용의·김희영 역, 『오키나와 사람들의 한해살이』, (민속원, 2005), 55-56쪽.

30) 滝沢宏美, 『現代沖縄の米農家事情』, 2007.

31) 伊波普猷, 「南島の稲作行事について」, 『沖縄文化論叢2』, (平凡社, 1971), 168-169쪽.

용 돼지도살'을 함께 행했다고 한다. 도살, 털 제거, 해체 및 창자를 씻는 작업을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함께 공동으로 분담하였는데, 초등학교 3,4학년생이 되어서도 창자손질 작업을 못하면 어엿한 한 사람으로 대접 받지 못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정리하자면, 제주도와 오키나와는 모두 농업을 생업 중 가장 근간으로 삼는 공통점을 지닌 가운데 제주도는 조, 보리, 콩, 메밀 등의 밭농사 위주로, 오키나와는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다 사탕수수와 고구마작물 등으로 비중을 늘려갔다. 제주도는 해녀를 필두로 한 어업과 초장이 발달하여 목장 운영도 생업의 큰 축을 이뤘으나, 오키나와는 바다에 둘러싸인 같은 섬임에도 불구하고 어획에 관해서 특기할만한 사항은 거의 없었다. 한편 양자의 식문화 가운데 돼지고기를 설과 같은 명절 때에 한정적으로 공동체에서 함께 소비하고 나누는 문화를 공통으로 지니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 2.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민속문화 유사성

### 1) 놀이문화 : 가원(歌垣)과 모아소비(毛遊び)

젊은 남녀가 서로 연가(戀歌)를 부르며 자기의 연인을 찾는 것을 가원(歌垣)이라 한다. 이런 자유연애 풍속은 오키나와와 제주도 모두 공통으로 갖고 있다.<sup>32)</sup> 제주도의 경우 그 사례가 면밀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현용준이 본인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그의 저서인 <제주도 사람의 삶>에서 다룬바 있다. 1930년경 17세에서 20세 정도의 남녀가 30명 정도 집 마당에 둥그렇게 모여 앉아 '허벅'장단을 맞추며 한 사람씩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노래는 대개 '창부타령', '청춘가', '양산도'와 같은 경기민요들로 한 구절씩 한 구절씩 남녀 교대로 서로 주고받았다고 한다. 노래를 부르고자 하는 자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서서 "에-"하고 소리를 내어 본인이 부를 것을 알리고 곡이 끊길 즈음 곡명을 바꿀 것을 요구하며 다음 노래로 넘어갔다고 한다. 모든 노래는 제

32) 현용준, 『제주도 사람들의 삶』, (민속원, 2009), 243쪽.



대로 된 가사로 시작하다가, 끝부분에서는 ‘짚신을 신고서는 시집을 못 간다’는 제주도 특유의 가사로 넘어가고 마지막에는 삼십분 연애만 하여 달라는 가사로 끝을 맺었다고 한다.<sup>33)</sup>

오키나와의 가원문화는 모아소비(毛遊び)라는 이름으로 향해졌다. 이는 16~18세의 젊은 남녀들이 야외에서 산신(三線)이라는 오키나와 전통 현악기에 맞추어 노래하고 춤을 추는 관행을 말하는데 전전과 전후 일정 시기까지 오키나와 각지에서 성행하였다.

만약 16세보다 어린 남녀가 참여하면 조숙하다 놀림을 받았고, 20세가 넘어서 참가한 이는 늙은이라 또한 놀렸다고 한다. 모아소비의 장에서는 단순히 노래하고 춤을 추는 무도회의 장으로만 기능하지 않고, 청년들이 힘을 겨룬 격투기와 우타가케(歌がけ)라고 하는 노래대항도 있었다.

오키나와 촌락 내 상류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청년들은 모아소비의 장에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까지 이어졌다고 한다.<sup>34)</sup> 이후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민요 분석에서 다룰 정요 부분에서 오키나와 연가가 유독 많은 이유는 이러한 풍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2) 무속 : 삼승할망과 노로(ノ口)와 유타 (ユタ)

풍부한 무속적 전통을 바탕으로 둔 제주도와 오키나와 양 지역에서 영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영적조언자 또는 영적지도자를 담당한 이들은 여성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는 제주도에서는 ‘할망’으로 구현되고, 오키나와에서는 노로와 유타로 대변된다.

### (1) 삼승할망

제주도의 할망 가운데서도 특히 삼승할망은<sup>35)</sup> 제주도 사람들의 중요한 정신기

33) 현용준, 『제주도 사람들의 삶』, (민속원, 2009), 240-243쪽.

34) 이나후쿠 미키코, 「오키나와 민속사회의 혼인의 특질과 변화」, 『호남문화연구 50』, 48-49쪽.

35) 삼승할망은 무속의례에 등장하는 여신으로 아기를 잉태시켜줄 뿐 아니라, 아이가 15세가 될 때까지 돌보아주고 성장시켜 주는 산육신이다. 본풀이에서 삼승할망은 ‘앉아서 천 리를 보고,

제로 작용하면서 그들이 믿고 의지한 존재였다. 삼승할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주인의 삶 가운데 깊숙이 영향을 미쳤다. 첫 번째로는 상상의 존재로서 그들이 절대적으로 믿는 생명신의 역할을 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신앙을 바탕으로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 존재한 구체적인 실존으로서의 ‘인간 삼승할망’이다.

이와 같은 신념은 <애기구덕흥구는소리>와 의식요 가운데서 드러나는데, 전자의 경우 아기를 점지해주고 키워주는 할마님(여신)을 불러 의지하고자 하는 탁선적 성격이 강한 노래로, 액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 아이가 편안하고 무탈하기를 바라는 인식체계가 담겨 있다. 또한 크게 놀랐을 때= (‘넉났다[넉이 나갔다])’ 넉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넉들임’ 의례를 할 때 비는 대상이기도 하였다.

후자는 실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로 동네마다 두어 다양한 기능을 하였다. 아이가 태어날 때는 산과역을 해주기도 하고, 아픈 아이가 있는 집에 가서 비념을 해주고 침을 놓아 주기도 했다. 자식이 없거나 아이를 잃는 등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동네의 삼승할망을 빌어다 입담을 하여 비는 일이 제주 사회의 관행적인 풍습이 되었다. 전문적인 의례를 행한 경험도 없고 의료기술에 접해보지 않았지만 삼승할망이 입담하거나 어루만져주고 나면 이상하리만치 호전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두고 ‘할망 태웠다’고 하였다.

인간 삼승할망은 생명 유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필요와 요구에 응하여 탄생했던 대상이었으므로 마을마다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였고, 대중적지지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간 삼승할망이 신분이 낮은 사람은 아니었다. 대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삼승할망을 하다가 당대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고, 몸이 까닭 없이 아프게 되어 어쩔 수없이 눈치를 보아 가며 삼승할망 노릇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삼승할망을 하는 동안은 병치레가 잠잠해졌다가 할망노릇을 그만두면 다시 아파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sup>36)</sup>

다시 말하자면, 삼승할망은 제주도 사람들에게 상상과 현실 속에서 정신적으로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친 영적조력자라고 할 수 있겠다.

---

서서 만 리를 보는’여신이다. 한쪽 손에는 생명꽃을 쥐고 다른 한쪽 손에는 빈성꽃을 쥐어, 앉아 천 리를 보고 서서 만리를 보며 하루 만 명씩 잉태를 주고 해산시킨다. (양영자, 「제주민요에 형상화된 삼승할망」, 『한국민요학 36』, 2012).

36) 양영자, 「제주민요에 형상화된 삼승할망」, 『한국민요학 36』, 2012, 1-16쪽.

## (2) 노로(ノロ)와 유타 (ユタ)

노로(ノロ)는 오키나와의 신녀로, 정통사제자이며 세습으로 사제직을 이어간다. 노로라는 말에는 “신탁을 하는” 또는 “기도하는 사람”의 뜻이 있다고 한다. 노로는 신을 제사하는 신녀이며, 신녀의 미칭으로 사용되었다.

노로가 무병 현상 없이 부계로 이어오는 가계의 세습에 의해 공적인 영역에서 사제자로서 주류의 입장에 있다면, 유타는 샤면으로 사적인 영역에서 강신무로 부차적으로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당골은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지만 공연예술 활동 등 문화사의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노로의 지위는 높으며 그 역할 또한 종교적·정치적인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노로의 계승 방법은 마을의 관행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노로 문중의 여성이 맡는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한다. 노로는 원칙적으로 종신직이며, 전임자가 사망하면 특정의 구가(旧家)를 종가로 하는 부계친족집단인 ‘문중’의 여자를 선출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아마미제도에서는 히키(일족)로 계승된다. 히키란 부계적인 형태로 이어지는 일족이다. 사제는 딸이 아니라 며느리로 이어진다. 즉 여성을 기준으로 보면, 혼인에 의해 시택의 히키에 소속되며 그곳에서 대대로 계승된 사제 자리를 물려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로는 원칙적으로 독신이며 결혼한 경우라도 남편이 의례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야노로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만의 신녀 조직이 의례를 담당했다. 노로는 평균 2개 마을 이상을 담당했고 촌락제사를 주관한다. 오키나와에서 마을 공동의 의례는 노로만이 주관할 수 있었다.

지금은 유타가 촌락제사에 관여하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노로가 그 역할을 담당했다. 노로는 농어업의 생산에 관한 기원을 중심으로 연간 수많은 제사를 집행한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많을 경우 연간 30회가 넘는 촌락제사를 수행하기도 한다.

유타는 무병을 앓은 후 유품을 찾고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된다. 유타는 집안에 가미다나(神壇)을 만들어 모시고 주로 점을 친다. 강신할 때는 몸을 가볍게

떨고, 하품을 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등의 현상과 함께 신이 몸에 실린다. 그리고 축원을 하고 신탁을 내린다.<sup>37)</sup>

유타는 다음 6가지의 성무 과정을 거친다. 』①신병→②본다테(신내림을 받는 간략하고 단조로운 의례를 말한다. 신을 모시는 길로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는 준비 단계)→③신의 말(신의 계시와 신의 말에 의해 인간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일종의 말문열리는 것과 대응한다)→④일곱 고개 넘기(신의 지시에 의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과정이다. 대체로 일곱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신성현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인데 이체험 속에서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⑤빙의상태의 신화 말하기(곧 신화가 되고 본풀이가 되는 깊은 체험과정을 말하는 것이다)→⑥칠년제(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자신의 몸속에 자리잡은 신의 정체를 알게 되어 본격적인 굿을 하게 되는데, 이 굿은 곧 내림굿으로 칠년제다.)

유타의 성무의례 중심에는 <오모이마즈카네(사송금)>이 존재한다. 사송금은 매일 아침에 하는 굿, 매달 16일에 하는 굿, 3개월에 한 번 계유일(癸酉日)에 하는 굿, 신내림을 하는점복, 성무의례에서 부르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유타의 기원과 내력을 말해주는 본풀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이야기는 신화적인 내용인데 흔히 이를 가미가타리(神語り)라고 하지만 이는 일종의 본풀이이다.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부르던 본풀이가 점차로 의식적인 본풀이로 구성된다.<sup>38)</sup>

### 3) 설화 :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뱀 설화

제주도와 오키나와는 뱀 신앙에서도 유사점을 갖는데 이는 양 지역의 설화를 통해 드러난다. 두 지역 모두 뱀신은 인간에게 경외와 숭배의 대상이 되고 인간에게 복을 주는 주체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타나는 뱀신은 인간에게 부귀와 안녕을 보장해주는 존재로서 인간보다 우위에 있었다. 하지만 우월적 위치에 있던 뱀신의 모습은 점차 인간에게 퇴치당하는 존재로 변모하게 된다. 두 지역의 뱀신 설화의 윤곽은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안은 이러한 클 틀 가운데 오

37) 이경엽, 「당골과 노로-세습 사제의 위상 차이와 전승맥락」, 『비교민속학52』, (비교민속학회, 2013), 1-12쪽

38) 김현선, 「제주도 심방의 신굿과 아마미오오지마 유타 성무의례의 비교 연구」, 『실천민속학 26』, (실천민속학회, 2015), 13쪽-17쪽.

키나와와 제주도의 뱀 설화 유형을 각각 4가지로 다시 세분화하였다.

먼저 제주도는 <뱀과 집안(뱀을 집안의 신으로 모시는 이야기)>, <뱀과 당(뱀을 당신으로 모시는 이야기)>, <뱀과 인간의 대결>, <인간이 뱀으로 환생>하는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에 대응하여 오키나와는 <뱀과 마쓰리(뱀과 관련된 축제나 해변놀이의 유래와 관련된 이야기)>, <뱀과 우타키(뱀과 관련된 우타키의 유래)>, <뱀과 인간의 혼인>, <뱀과 인간의 대결>로 구분하였다.

두 지역 모두 뱀신의 신앙형태나 출현과정이 일정치 못하나, 뱀신을 인격화하여 조상신으로 관념하는 근원은 조상숭배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두 지역의 뱀신과 관련된 설화에서는 수신, 조상신, 마을의 수호신의 이미지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였다.

반면, 뱀에 관한 양 지역의 관념의 차이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오키나와에서는 뱀과의 혼인을 신성한 것 또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관념이 나타나 있는 반면, 제주에서는 뱀과 인간의 혼인에 대한 관념이 없다. 둘째, 오키나와에서는 뱀이 인간으로 변신한 경우는 인간과의 혼인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인 반면, 제주 뱀 설화에서는 인간의 욕심이나 죄 등과 관련하여 인간이 뱀으로 환생하고 있다.

셋째, 오키나와 뱀 설화에서는 뱀이 인간으로의 변신은 일시적인 것인 반면, 제주의 뱀 설화에서는 인간이 죽음을 매개로 해서 다시 뱀으로 환생한다는 관념이다. 넷째, 오키나와에서는 뱀신에 대한 의례가 퇴색하여 하나의 마쓰리(축제/놀이)로 변용된 형태인데 반해, 제주 일부지역에서는 뱀신에 대한 의례로써 굿이 행해지고 있다.

### 3. 제주도과 오키나와 역사지리적 관계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역사 지리적 관계는 표해의 역사가 반증해준다. 조선시대 조선과 류큐 간의 상호 교류인 송환은 북경을 통하여 우회하는 방법에 의해 이뤄졌는데 그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최초의 기록은 1497년 10월 제주에 포착한 류큐인 10인을 성절사 편에 송환시키자는 논의부터였다.<sup>39)</sup> 반대로 제주도민이

류큐에 표류되었다 송환된 때는 좀 더 앞선 시기로, 1456년에 양성 일행, 1462년에는 조득성 일행이 제주를 출발하여 류큐에 도착하였다.

1479년에는 김비의라는 제주사람이 조선정부의 지원을 받아 귀향을 하였다. 그의 류큐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현재 오키나와현의 고등학교 역사교재에도 상세히 수록하고 있을 만큼 당시의 류큐를 파악하는데 가장 구체적인 사료로 평가 이용되고 있다.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한 대가인지 조선 정부는 김비의 일행에게 2년간의 역사(役事) 면제와 반년치의 녹과(祿科) 및 제주도로 귀향하는 비용으로 과해량(過海糧)을 지급하였다.<sup>40)</sup>

17세기 초반에는 인조 정권에 의해 왜곡된 기록인 “류큐왕자살해설”이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에게 정착해 간데다 나아가 조선후기 사대부층에게도 상식으로 광범위하게 정착된 하나의 전설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선 인조 때 류큐가 일본의 침략을 받아 그 왕이 일본으로 잡혀갔다. 그러자 왕자는 왕을 구하려고 보물을 배에 가득 싣고 일본으로 향하다가 제주도에 표착했다. 제주목사 이기빈이 필담으로 유구왕자임을 파악하고 후대하였다. (중략) 목사가 이후 보물을 탐내어 달라고 졸랐으나 거절당하자 강압적으로 이를 빼앗으려 했고, 이에 왕자는 그 두 신기한 보물을 바다에 던져버렸다. 화가 난 목사가 다른 물건들을 강탈하고 배에 탄 유구 사람들을 모두 살해하기에 이르자, 왕자는 종이와 붓을 달라하여 자신의 사연을 글로 기록하고 조용히 죽음을 맞았다. 그 후 목사는 조정에 보고하여 유구 왕자가 노략질을 해 와서 죽었다고 했으나 결국 사실이 탄로나 중죄를 받게 되었다.<sup>41)</sup>

이러한 잘못 정착된 전설은 이후의 표류민들에게 영향을 끼쳐 1741년 류큐에 표착했다 송환된 제주도민 김철중 일행은 제주도민임을 알 수 있는 표식과 문서를 모두 바다에 던져 버리고, 류큐 관리의 심문에도 출신 지역을 전라도 영암군이라 사칭하였으며, 1770년 제주도민인 장한철과 그 일행도 류큐에 포착할 것을 미리 알고 호패를 모두 바다에 버렸다고 한다.

39) 손승철, 「조선전기 피로·표류민송환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조선시대 한일 표류민 연구』, (국학자료원, 2000), 23쪽.

40) 민덕기, 「표류민을 통한 정보의 교류」, 『조선시대 한일 표류민 연구』, (국학자료원, 2000), 91쪽.

41) 민덕기, 「표류민을 통한 정보의 교류」, 『조선시대 한일 표류민 연구』, (국학자료원, 2000), 99쪽.

한편, 19세기 홍어장수 문순득의 표류 여정의 출발지는 비록 대흑산도였지만 중간에 제주도를 거쳐 류큐에 표착하였다. 제주 서쪽에서 류큐 지역까지 4일 만에 도착하였는데 이는 아무리 표류 노정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빠른 표류 속도였다고 한다. 정상적으로 항해 하는 범선의 평균 속도에 해당할 정도로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선 속도로 류큐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sup>42)</sup>

상기 내용 외에도 15세기 중엽부터 19세기까지 국내 조선인 표류기록의 약 35%를 차지하는 7건은 모두 출발지를 제주도로 하여 표착지를 류큐로 하고 있다.<sup>43)</sup> 이와 같은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제주도와 오키나와는 표류로 인한 최소 400년 이상의 교류사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제주도와 오키나와 민요 비교 분석

김영돈은 제주도 민요를 기능요와 비기능요로 분류하였다. 기능요는 다시 노동요와 의식요, 그리고 무용·유희요로 나누고,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요를 다시 노동의 종류에 따라 6가지—농업요(農業謠), 제분요(製粉謠), 어업요(漁業謠), 채벌요(採伐謠), 관망요(冠網謠), 잡역요(雜役謠)—로 크게 나누었다.

농사를 치르는 동안에 이뤄지는 일련의 작업들, 즉 밭을 갈아서 씨 뿌리고 김 매기하고 곡식을 가꾸고 거둬들여 장만하는 데 수반되는 민요를 농업요로 묶었다. 곡식을 갈거나 쪼거나 빵거나 삶으면서 부르는 민요는 제분요로, 고기잡이나 해녀의 물질을 치르면서 부르는 민요를 어업요로 정리했다. 채벌요는 나무나 풀 따위를 베고 쪼고 쪼개고, 벤 나무를 마을로 끌어내리면서 부르는 민요들이며, 갯양태·갯모자·탕건·망건 등을 걸으면서 부르는 민요는 관망요로 묶었다. 그 밖의 잡일에 따른 민요는 잡역요로 처리하였다.<sup>44)</sup>

제주도 노동요 가운데 제분요에 해당하는 멧돌노래와 방아노래가 절대 다수를 이룬다. 가락은 제각기 한 가지씩이지만 이에 딸린 사설은 무려 수천 편에 이르는 데, <멧돌노래>의 사설이 거의 <방아노래>에서도 불리므로 사설로 보아서는

42) 최성환, 『문순득 표류 연구』, (민속원, 2012), 125-126쪽.

43) 최성환, 『문순득 표류 연구』, (민속원, 2012), 26-27쪽.

44) 김영돈, 『제주도 민요 연구 下』, (민속원 2001), 72쪽.

하나로 묶어서 <멧돌·방아노래>로 처리해도 무방하다.

<멧돌·방아노래>는 작업양이 많고 과정이 길기에 장시간에 걸쳐 이뤄지고 곡류를 주로 손질하는 일인 만큼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에 따른 민요의 구연기회도 충분했을 뿐더러, 일의 진행이나 노동 자체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이 노래하고자 하는 사실을 침착하게 골라 부르는 마음의 여유를 지닐 수 있었다. 45)

제주도 민요는 노동요가 위주이나 오키나와의 경우는 정요에 해당하는 연가가 가장 많고 그 뒤를 노동요가 따른다. 필자가 번역을 완료한 55곡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1> 오키나와 민요 분류

정요	23곡
노동요	16곡
유희요	5곡
의식요	4곡
경세요	4곡
합계 : 52곡	

김영돈의 민요 분류법을 기본 토대로 참고로 하되, 상기 내용에 따라 양 지역의 민요 분류를 ①노동요(농업/제분요, 관망요, 어업요, 기타 노동요), ②경세/세정요 ③정요(연가)로 나누어 비교하고자 한다.

## 1. 노동요

제주도 민요의 주종을 이루는 <멧돌·방아노래>사설의 제재는 ①작업 실태만을 노래하는 사설과 ②작업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서민 생활 전반에 걸친 가창자들의 감정이나 의식을 노래하는 사설로 이루어진다. 제주도 노동요 사설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멧돌·방아노래>는 거의가 농어민의 삶 전반에 걸친 일상 감정-생활고, 근면, 시집살이, 꿈/소망, 신앙/풍토 등-을 노래한다.46)

각각 상이한 장르로 가창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감정이 멧돌·방아노래, 나아가 노동요라는 단일한 군에서 그 제재로 발견된다는 점이 제주도 노동요의 특징

45) 김영돈, 『제주도 민요 연구 下』, (민속원 2001), 74쪽.

46) 김영돈, 『제주도 민요 연구 下』, (민속원 2001), 132쪽.



이자 흥미로운 점으로 특기할 수 있다.

한편 오키나와 노동요의 경우, 향토가<sup>47)</sup>와 풍작기원요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본인이 속한 섬 마을, 지역을 예찬하는 노래 사설의 중간 혹은 말미에는 풍작을 축하하거나 풍요를 기원하는 내용이 매우 빈번하게 수반된다. 곡에 따라 향토가적 성격을 보이는 노동요, 풍작(기원)요의 성격을 보이는 노동요, 혹은 두 가지를 모두 교집합으로 갖는 노래가 발견된다. 양자의 특성을 각각의 노동의 종류에 따라, 농업요, 관망요, 어업요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농업요/제분요

#### ㉠ <밭 밟는 노래><sup>48)</sup>

산천초목 싹 트는구나  
풍년이세 풍년이세  
곡식 나거든 수긋수긋  
흥 없이 밟아주자  
줄길랑 구릿대

신주님이여 잘 되게 하오  
올해는 풍년이로구나  
기음일랑 갖지 말게  
지신님이 처분하여

#### ㉡ <타작노래>

한 섬 두 섬 고방<sup>49)</sup>에다  
동지 선달 긴긴 밤에  
이 쪽으로 넘어간다  
이 곡식은  
씨를 뿌려 커 나가면  
빨리 커 등에 지어  
우리 귀한 곡식이네  
보리 밥을 밥이라 먹어  
칠성님께 빌어두어  
임과 함께 두드리다 보니

차곡차곡 두었다가  
배 두드리며 먹어 보자  
이쪽으로 두드리자  
어떤 곡식인고  
기음 매어 거름 주면  
거뒀 오면 우리 밥 되는  
제주 산은 악산이네  
제주 난 일이 원통하다  
하여 놓은 요 곡식 보오  
금처럼 은처럼 떨어지는구나

#### ㉢ <김매는 노래 1>

요 기음과 날 아니 낳은들  
요 발머틸랑 매어서는  
저 발머틸랑 매어서는

호적래에 뿔려 가라  
우리 임금 바쳐가며  
우리 낭군 먹여보자

47) 본고에서는 자신의 고향에 대해 기술한 곡이나, 고향에서 보이는 자연의 수려함 또는 마을 사람들의 용모, 성품, 기질 등을 칭찬하는 곡을 향토가로 지칭하도록 한다.

48) 사설정리의 음보표기는 원전에 충실하여 옮겨 적도록 하였다.

49) '광(세간이나 그 밖의 여러 가지 물건을 넣어 두는 곳)'의 원말

기름 매면 풍년이오  
너른 목엔 차근차근  
모여 들며 소리하여  
미운 놈일랑 떡 하나 더 쥐라  
정칠월이 한더위더라  
이리이리 모여 오오  
너희 패는 누린 패네  
사디 불러 기름 매라

기름 많으면 흉년이세  
좁은 목엔 서둘러 가며  
우는 놈일랑 한 번 더 때리고  
유월 더위 더위라 말라  
저리 가는 저 사람들  
우리 패는 건장 패네  
얼사얼사 다 매어 가네

㉞ <김매는 노래 2>

두 풀 매고 돌아보니  
세 풀 매고 돌아보니  
요내 점심 안나오네  
얇은 산에 재 날리듯  
대천바다 물결 놀 듯  
기름 갖고 넓은 밭에

담배 썸지가 다 비었구나  
다른 점심 다 나와도  
높은 산에 눈 날리듯  
약수장마 비바람 치듯  
어서어서 매어 가자

㉟ <이니시리부시> (부록 [9])

올해 농작은 저렇게도 훌륭하게 열매 맺어  
츄리유리유리 츄리유리유리  
은 절구에 황금 축을 세워서  
힘내서 비빔시다 아가씨들

벼 시리시리 쌀 시리시리  
창고에 쌓고도 남아 벗가리 합시다  
시험삼아 비벼 늘려 갑시다 눈과 같은 쌀  
이제 막 거둔 쌀을 주자

㊱ <하토마부시> (부록 [38])

하토마섬의 나카오카에 달려 올라가  
아름다워라 솟아있는 동산의 빈랑나무  
앞 바다를 내다보면  
벼는 쌓아 올리고 재밌어라

빈랑나무 아래에서 달려 올라가  
아름다워라 줄지어 있는 정상의 빈랑나무  
가는 배 오는 배 재밌어라  
밤은 쌓아 올려 훌륭하구나

㊲ <한쵸부시> (부록 [43])

참으로 유명한 사키다 섬은  
경작하여 결실 맺은 벼를 베는 사람은  
사키다의 처자들은 물 때문인가  
얼마나 성숙하고 아름다운가

황금언덕을 뒤에 두고 밭은 앞에 두었네  
젊은이가 뒤섞여 길한 일이로다  
요염과 품위를 겸비해서

㊳ <멘타부시> (부록 [50])

올해 앞 밭의 벼를 봐 주세요  
올 농작은 저처럼 아름답네

올 해 마시지 않은 술은 이제 언제 마실건가  
벼는 나무끼고 논둑은 베개로 할 정도로 풍성히 열렸다

훌륭하게 잘 거둔 농작물은

곳간에 쌓아 놓고 축하하자

㉔ <구모부시> (부록 [16])

구모우마라는 섬(마을)은  
백사장은 앞에 있네  
벼와 밤이 익어서 풍년이네  
알이 예쁜 것만 골라 첫 상납으로

행운의 섬이라서 크고 높은 산은 뒤에 있고  
높은 산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면  
벼와 밤의 색은 스무살 계집에

㉕ <하리미즈누 쿠이차-> (부록 [42])

오키나와에서 돌아오면  
섬의 모든 삼십여 마을의 형님들은  
농사를 잘하지  
밤이 되고 쌀이 되어 올라오네  
실이 되고 실패가 되어 올라오네  
모시풀을 만들지 않고도

미야코 모든 삼십여 마을의 남자들은  
뼈인두를 쥐지 않고, 팽이를 잡지 않고도  
하루미즈의 선착장의 모래들은  
오카미섬의 뒤편 야비시에 몰려드는 파도가  
섬의 모든 삼십여 마을의 언니들은  
실패를 걸지 않고도 잘 짓지

제주도 농업요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대목은 오키나와 민요만큼 빈번하지는 않지만, 일부 민요에서 드러난다. <밭 밟는 노래>의 “풍년이세 풍년이세 올해는 풍년이로구나”라는 대목은 신주님께 잘 되길 비는 가사 이후에 나오고, “곡식 나거든 수긏수긏 ~ 밟아주자”라는 내용의 앞단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거둔 풍작에 대한 즐거움보다는, 올해의 농사가 풍년이길 기원하는 내용으로 읽혀진다. <김매는 노래>에서는 중반에 “기름 매면 풍년이고 기름 많으면 흉년이세”라는 내용으로 김매는 행위를 통해 풍년을 거둘 수 있음을 강조하며 작업을 착실히 수행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위 내용을 통해 감정과 의식의 가사가 지배적인 제분요를 제외하면, 제주도의 농업요는 노동의 종류는 다를지라도 작업의 실태에 대해 노래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밭 밟는 노래>에서는 “흉 없이 밟아주자”, <타작 노래>에서는 “이 농곡을 두드리어”, “이 쪽으로 두드리자”, 김매는 노래는 “어서어서 매어가자”, “사디 불러 기름 매라”, “기름 매어 살아 보자”, “저 해 지기 전에 재계 뜯자” 등 바지런히 작업을 이행해가도록 격려하고 작업을 함께 해 나가길 권유하고 있다.

오키나와 민요에서 작업의 고단함을 토로하고, 그러한 고생을 감수해야 하는

본인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은 직접적으로 거의 드러나지 않으나, 제주도 민요에서는 불만과 원망이 가사 속에 그대로 표출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

오키나와가 지세의 뛰어난과 자신이 속한 지역의 빼어남을 자부하는데 반해, ㉞ <타작노래>에서는 “제주산은 악산이네, 보리밥을 밥이라 먹어 제주 난 일이 원통하다”라는 내용과 같이 보리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제주의 자연을 탓을 하며 제주에서 태어난 일을 비관하고 있다.

㉟<김매는 노래2>에서는 “두 꼴 메고 돌아보니 담배쌈지가 다 비었구나 세 꼴 메고 돌아보니 다른 점심 다 나와도 요내 점심 안나오네”라며 작업을 만족스러운 조건에서 수월하게 수행하지 못함을 토로한다.

제분요로 추정되는 ㉠<이니시리부시>부터 ㉡<구모부시>까지 모두 풍년을 기뻐하고 축하하거나, 풍작을 기원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작물을 대표하여 땅에서 나는 “벼”와 나무에서 얻는 “밤”으로 노래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하토마부시>의 말미에서 “벼는 쌓아 올리고 재밋어라, 밤은 쌓아 올려 훌렁 하구나”라는 대목과 <구모부시>에서 “벼와 밤이 익어서 풍년이네”, “벼와 밤의 색은 스무살 계집애, 알이 예쁜 것만 골라 첫 상납으로”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풍년을 벼와 밤의 숙성을 통해 이야기 한다. <하리미즈누 쿠이차->에서도 동일하게, 선착장의 모래들이 “밤”이 되고 “쌀”이 되어 올라온다는 가사로 미루어 보아, 이미 이른 풍작을 자축하거나, 혹은 앞으로 이를 농작이 노래하는 바와 같이 무수한 모래알이 “밤”이 되고 “쌀”이 되길 기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제주도는 예로부터 논농사에 적합한 지역이 아니었다. 제주도의 지표는 투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상류 하천이 드물고 눈이 별로 없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밭이 압도적으로 많아 예로부터 조·보리와 잡곡이 주곡이었다. 이를 쪼고 뺏고 쏘고 하는 일이 밭일과 더불어 주요한 일거리였으므로 <밭 가는 노래>·<밭 밟는 노래>·<밭매는 노래>등의 농업요와 더불어 <멧돌·방아 노래>등 제분요의 비중이 큰 것이다.<sup>50)</sup>

오키나와도 경작 조건은 마찬가지로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벼

50) 김영돈, 『제주도 민요 연구 下』 (민속원 2001), 95쪽.

농사는 비교적 활발히 행해지는 편이었으나, 쌀은 피지배층이 경작하여 지배층에게 상납하는 곡류였으며, 서민들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주곡은 아니었을 것이다. <구모부시>에서 ‘알이 예쁜 것만 골라 첫 상납으로’라는 가사가 그 증거가 된다.

비슷한 경작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농업/제분요에서는 찾기 어려운 “쌀과 밤”에 대한 노래가 오키나와 민요에서는 다수 보인다. 일견, 단순히 긍정적이고 밝은 목소리로 풍작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제한된 조건 하에서 상납을 위한 할당량을 충족하기 위한 성공적인 농작을 바라는 간절함이 녹아들어있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눈과 같이 하얗고 귀한 쌀을 “벧가리 합시다 은 절구에 황금 축을 세워서 시험 삼아 비벼 늘려 갑시다 힘내서 비빔시다”라고 부르는 <이니시리부시>를 제외하면, 어느 농업/제분요에서도 작업의 구체적인 행위를 독려하거나 지시하는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다. 김영돈이 지적한 바와 같이 노동요가 작업의 실태만을 노래한 곡과 작업과는 무관한 생활 전반에 걸친 감정과 의식을 노래한 내용으로 나누어진다는 점에서 상기 오키나와 농업요들을 본다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점은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다.

한편, 풍작(기원)요는 본인이 속한 마을 또는 지역의 지리적 우수함이나 사람들의 뛰어난을 노래하는 향토가적 성격을 지님을 확인할 수 있다. <구모부시>에서 “구모우마라는 섬은 행운의 섬이라서…”로 시작하며 그곳이 길한 땅이며 배산임수의 천혜를 누리는 축복받은 땅임을 예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조부시>에서도 세평이 좋은 사키다섬에 대해 거론하며 ‘황금(과도 같이 소중한) 언덕을 뒤에 (두고) 받은 앞에 두어’ 타고난 지리적 조건이 뛰어나며, 농작업을 하는 일꾼들 가운데는 장년층과 노년층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함께 하여 좋은 일이며, 마지막 단에는 마을의 젊은 여성들도 외양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며, 자신이 속한 마을을 예찬하고 있다.

<하리미즈누 쿠이차->에서는 미야코 지방의 젊은 남녀들이 각각의 노동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지 않고도, 훌륭하게 각각의 역할을 바지런히 수행하는 우수함을 노래함으로 미야코섬을 예찬하고 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후에 다룰 정요와 경세요의 사설로 쓰이는 제분요를 제외한 제주도의 농업요는 작업의 실태에 대해 노래하며 근면을 권하는 내용이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작업의 수고로움을 토로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어조가 지배적이며 제주태생을 원망하는 구절도 발견할 수 있었다. 오키나와의 농업요는 다가올 풍년을 기원하며 예측하거나, 이미 거둔 풍작을 자축하는 내용이 큰 공통의 맥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예찬을 수반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하는 근거와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 상기 제주 농업요의 가사를 보면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른 노래들로 추정된다. 작업 중에 흥을 돋우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불렀을 노래로 여겨지는데, 가사의 흐름이 선창과 후창의 교차로 주고받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밭 밟는 노래>, <타작노래>, <김매는 노래> 모두 최소 2인 이상 혹은 수명으로 이루어진 작업 그룹이 불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선창자 혹은 선창대가 ㉠의 첫 대목을 부르면 후창자 또는 후창대는 다음 소절을 부르면서 밟는 동작에 리듬을 맞췄으리라 생각해볼 수 있다. ㉡의 경우는 1소절부터 3소절까지 모두 규칙적으로 4·4조로 구성되어 있다. 선창하는 사람들이 “한섬두섬”하고 부르면 후창자들이 “고방에다”으로 화답하는 식으로 이어간다면 비교적 빠른 호흡으로 불려지고, 그에 따라 작업 템포 또한 빠른 것이었으리라 추정된다.

㉢은 첫머리와 중간에 두 소절을 제외하면 4·4, 4·5, 5·4조가 반복된다. 4·5, 5·4조로 변주를 이루는 가운데서도 규칙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4·4조로 한 구절을 이루는 2마디를 선후창으로 나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한 구절을 하나의 세트인 “먹이고 받는 식”으로 불렀을 수도 있다.

그에 반해 오키나와 농업요는 실제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른 노래들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농번기 전에 함께 농사를 지을 공동체가 모여 단합을 도모하는 자리나 축제의 장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 불렀거나, 작업을 하러 이동하는 길 위, 또는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위에서 불렀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자신의 마을과 마을사람들을 예찬하는 내용과 풍년을 예측 및 자축한다는 점에서 공동체 간의 결속을 목적으로 하는 마쓰리나 연회의 장에서 나누었을 메들리 중 한 부분으로 불리는 경우를 예상해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위 노래들을 사설의 내용에 따라 노동요로 분류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의식요 또는 유희요로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후자라면 일을 하러 출발하는 길에 목적의식을 고취시키고 작업 의욕을 충만하게 하도록 하였거나, 작업을 모두 마치고 귀가하는 길 위에서 서로를 독려하고 위로하는 뜻에서 부른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다. 특정 작업 내용을 지시하거나, 작업 태도에 대해 말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작업의 실태를 노래한 노동요는 아니지만, 그러한 목적성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상황에 따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면 양 지역의 노래가 목표하는 방향은 결국 같은 것이나, 그 방법이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차이가 드러나는 배경은 제주도와 오키나와가 처한 생업 환경의 차보다는 자신이 처한 갈등을 처리하는 태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 여성은 육지여성 그리고 오키나와의 여성보다 노동의 강도와 삶에서 차지하는 노동의 비중의 면에서 받는 압박감이 컸다. 이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방법으로 노동요를 부르는 가운데 토로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 제주도 여성, 나아가 제주사람의 성정이라 여겨진다.

오키나와는 제주도만큼 여성에 편중된 노동 부담과 같이 특기할 사항은 없으나, 태풍이나 수해를 비롯한 자연적 조건을 항상 극복해야 하는 가운데 놓여있었다. 따라서 개인의 삶에서 오는 애환과 피로감을 차치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고 우선순위를 두면서 간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 2) 관망요

조선조부터 1950년대까지 지금의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서는 갓일(갓모자·갓양태·탕건·망건 작업)이 부녀자들 사이에 성행했었다. 북제주군 조천읍에서 제주시를 거쳐 애월읍 동부까지 그 일대에 뻗친 이 관망 수공예는 제주 여인들의 주요 부업으로서 재산을 이르고 생계를 잇는 데 크게 이바지했었다. 갓양태·탕건·망건·갓모자를 걸으면서 각각 <양태노래>·<탕건노래>·<망건노래>·<모자노래>를 불렀었는데 이들을 묶어서 관망요라 통칭한다.<sup>51)</sup>

오키나와도 또한 모자를 만드는 노래와 더불어 목화솜을 뽑거나 직조를 하는 노래가 발견된다. 베틀노래 등도 따로 나누지 않고 포괄적으로 모두 관망요 안에

51) 김영돈, 『제주도 민요 연구 下』, (민속원 2001), 104쪽.

포함시키고자 한다. 두 나라의 관망요는 어떤 양상을 띠는지 먼저 제주도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 <망건노래>

갈매길랑 물 먹어 가듯  
미역일랑 잎 넓어 가듯  
한 달 육 장<sup>52)</sup> 때 정한 망건  
어느 굵이 내 아니 울리  
젊은 부모 명 짧은 몸에  
요 망건아 내 망건아  
한 간에는 집 믿은 망건  
함덕 짚신 내 믿은 망건  
요 망건아 걸어나 저라  
장 또 장에 때 정한 망건  
더욱 높은 당산메더라

갈매갈매 걸러나 저라  
미적미적 잎 넓어 가듯  
모래 장에 장 보러 가자  
어느 마디 내 아니 울리  
내야 아니 낳았더면 할걸  
한 간에는 옷 믿은 망건  
정의 좁쌀 내 믿은 망건  
일천 시름 내 믿은 망건  
한 달 육 장 때 정한 망건  
이 메 높아 저 메로 가니

㉡ <양태노래>

각단 밭에 불 붙어 가듯  
걸러져라 걸러져라  
요놈의 양태 걸러 저라  
내일 모래 장날이네  
한 코네 두 코네  
내 동침아 돌아가라  
어서 재계 돌아가라  
늙은 부모 공양하고  
일가 친척 고적하고  
요 양태야 돌아나 가라  
어서어서 돌아나 가라  
쌀도 나고 밥도 날걸  
사정 없는 요 양태야  
돌아가라 돌아나 가라  
요 양털 하여야  
고기도 사다가 반찬도 하고  
요 양태야 돌아나 가라  
이 코 저 코 하나 둘

요 양태야 걸어나저라  
한 코 두 코 신랑 코네  
한 코 두코 그물 코네  
쉬지 말아 어서 하라  
한 코네 두 코네  
서울 사람 술잔 돌 듯  
이 양태로 큰 집 사고  
어린 동생 부양하고  
이웃 사촌 부조하고  
한 달 육 장 때 정한 양태  
요 양태를 어서 해야  
인정 없는 요 양태야  
외로 팽팡 바로 팽팡  
요 양태야 걸어나 저라  
쌀도 받아 밥하여먹고  
팽팡팽팡 돌아나 가라  
하나 둘 하나 둘  
동침 찢러 하나 둘

㉢ <베틀노래>

월궁에 놀던 선녀  
옥난간에 베틀 걸어

세상에 내려 와서  
구름 잡아 잉아 걸고

52) 한 달에 여섯 번을 서는 장



북이 나드는 양은  
수만 군사 베는 듯  
천지가 진동하고  
왈각달각 소리로다  
구시월 단풍에

억만 군사 베어두고  
도투마리<sup>53)</sup> 떨어지는 소리  
좁은 목에 벼락치듯  
뱀뎡이<sup>54)</sup> 떨어지는 양은  
나무 이파리 떨어지는 모양이라

㉞ <탕건 노래>

한 코 두 코 걸리고 있더니  
장을 보게 되었구나

삼백 예순 코를 마치니

완성물의 종류는 각기 다를지라도 상기 4곡의 민요는 모두 “육 장”이라는 장에서 때를 맞춰 팔기 위해 기한을 의식하며 노래한다는 공통점을 띤다. “갈매길랑 물 먹어 가듯”, “미역일랑 잎 넓어 가듯”, “미적미적 잎 넓어 가듯”, “외로 팽팡 바로 팽팡”이라 노래한 바와 같이 망건도, 양태도 수월하게 걸어지고 돌아가야 하는 대상으로 창자와 창자 가족의 생계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부업이다.

그러므로 해당 작업을 결코 가벼운 마음만으로 신명나게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원통함과 생활고에 대한 한탄이 수반되기도 한다. ㉟<망건 노래>의 초입에는 망건을 걸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젊은 부모 명 짧은 몸 에 내야 아니 낳았더면 할걸”라며 토로하고 있다. 또한 말미에서는 “이 메 높아 저 메로 가니 더욱 높은 당산메더라”라는 대목에서 노역을 단계별로 끝내도 더 만만치 않은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㊱<양태노래>에서는 양태를 떠서 “큰 집 사고, 늙은 부모 공양하고, 어린 동생 부양하고, 일가친척 고적하고, 이웃사촌 부조”까지 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또한 “양태를 어서 해야 쌀도 나고 밥도 날걸”, “요 양탤 하여야 쌀도 받아 밥하여 먹고 고기도 사다가 반찬도 하고”라는 대목에서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한 유일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여유롭지 못하고, 절실하게 일을 완수를 해야 하므로 “인정 없는 요 양

53) 베를 짜기 위해 날실을 감아 놓은 틀

54) 베틀로 베를 짤 때 쓰는 연장의 하나 나뭇가지로 만들며 도투마리에 날실을 감을 때 날실끼리 엉기는 것을 막기 위해 날실 사이사이에 끼운다.

태야, 사정없는 요 양태야”라고 원망스러운 마음 또한 표출하고 있다. ㉞<탕건 노래도> 아주 짧은 길이의 가사지만 한 코, 두 코 걸기 시작하여 삼백 예순 코를 떼서 마쳐야 비로소 장을 보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고생하여 어렵게 감당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㉟<베틀노래>에서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노역을 해서 생활을 하는 고난과 버거움을 전면에 드러내지 않고 시종일관 힘차고 생동감 있게 소화하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보인다. “복이 나드는 양은 억만 군사 베어두고 수만 군사 베는 듯”, “도투마리 떨어지는 소리 천지가 진동하고 좁은 목에 벼락 치듯 활각 달각 소리로다”, “뱀뎡이 떨어지는 양은 구시월 단풍에 나무 이파리 떨어지는 모양이라”라는 대목에서 노동에서 오는 피로감이나 완성을 기한 내에 완성해야 하는 압박감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여러 비유로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오키나와의 관망요는 어떠한 색채를 지녔을까.

㉠ <하리미주누 쿠이차> (부록 [42])

(전략)

오카미섬의 뒤편 야비시에 몰려드는 파도가 마음의 삼십여 마을의 언니들은	실이 되고 실패가 되어 올라오네 모시풀을 만들지 않고도 실패를 걸지 않고도 잘 짓지
--	---

㉡ <보시쿠마- > (부록 [44])

(남) 첫 번째 잎을 누르고

언제 다 짜서 모자의 모서리까지 만들까  
모자 모서리를 짜보자  
만들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네  
자- 밤을 새서

두 번째 잎으로 위를 이으면

자, 모자머리 모자높이에 모자챙, 가장자리를 잡고  
(남녀) 모자를 만드는 사람은 불쌍해라  
납기일 전에는 밤을 새서

㉢ <미무라 오도리> (부록 [45])

우루쿠 도미구시쿠 가치누바나 세 마을  
포를 짜는 이야기  
본진을 못 뵈고 손해를 보니까

세 마을의 아가씨들이 모여서  
모양을 틀리지마

오키나와의 관망요는 제주도의 그것만큼 뚜렷하게 일관된 특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농업요에서도 다룬 ㉠<하리미주누 쿠이차->의 뒷부분에서는 베틀짜기라는

노동 자체를 노래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을과 마을 사람들의 우수함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히려 베틀작업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해진 기한에 대한 초조한 마음과 관망 관련 노동을 하는 본인들에 대한 자조적인 목소리는 일부 곡에 한하나 발견된다.

⑥<보시쿠마->라는 노래는 모자의 각 부분이 섬세하게 언급된다. 그 가운데 하나하나씩 작업을 해서 언제 모자 머리부터 챙의 모서리까지 다 만들 것인지 남은 노동량에 대해 피곤함을 드러낸다. 급기야 “모자를 만드는 사람은 불쌍해라, 만들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네.”라며 가창자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이들에게 끌어들여 총체적으로 연민조로 노래한다.

하지만 그대로 부정적인 태도에 빠지지 않고, 납기일 전에 철야를 해서라도 완수하자고 독려하며 노래를 마친다. 결국에는 장터에 나가 팔기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기한을 의식하며 근면을 권장하는 대목이 나오는 것이다. 또한 ③<미무라오도리>에서는 “모양을 틀리지만, 본전을 못 뽑고 손해를 보니까”라고 노래하며, 제값을 받고 팔기 위해 실수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시하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다.

제주도의 관망요도 앞에서 살펴본 제분요/농업요 비교에서 드러난 양상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농업요에서 나왔던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고 작업 상황에서 비롯된 불만을 표하는 부분은 관망요에서는 더욱 세세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오키나와의 관망요 중 ①곡을 제외하면 ②와 ③에서는 기한을 의식하고 장터에서 판매할 일을 염두에 두고 근면을 권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농업요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이런 공통점이 보이는 이유는 관망과 관련된 모든 작업이 닫힌 공간에서 제한된 수의 인원으로 행해졌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사실 내용으로 보아 여성 홀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을 유추해볼 수 있다. 공동 작업이 아니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공간에서 내면의 소리를 독창으로 유감없이 드러내 보인다면, 오키나와는 ②에서는 남/녀 두 사람의 교창으로, ③에서는 세 마을의 세 처녀들이 모여 작업을 하는 상황이다.

농업/제분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관망요는 실제 작업을 행하면서 부른 노래들로 보인다. 노동 현장과 유리되지 않고 더욱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작업을 위한 도구를 신체의 가장 가까이에 쥔 채 망건을 걸고, 양태를 돌리고 베틀

을 거는 등의 작업의 템포에 맞춰 부르는 호흡이 사설을 따라 흐른다. 노동의 종류가 달라져도 여전히 노동을 하고 있는 “나”와 “나 자신의 삶”에서 비롯된 감정 등을 노래하는 등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다.

오키나와의 경우도 관망요가 가지는 노동의 현장성이 농업/제분요처럼 마을을 노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고 실제 작업이 수행되는 장면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그러나 제주도와 같이 노동주체가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노동을 하는 이유, 노동의 결과로 얻을 소산, 작업을 수행하는 이의 심정과 삶 등)는 주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작업을 하는 사람도 가창중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광경을 지켜보고 그려 내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목격하는 대상이 마을 내 소그룹, 단수 또는 복수의 마을의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시야 안에서 관망요도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어업요

제주도는 멧돌·방아노래 다음으로 요수가 가장 많은 노동요가 해녀노래이다. 제주도의 어업요는 곧 해녀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제주도에 많은 마을이 바닷가를 뱅 둘러가며 웅기종기 들어서 있고, 이 해안마을에는 많은 적든 사시사철 물질하는 해녀들이 산다.

해녀들이 작업하러 바다로 나갈 때에는 그 연해의 지형에 따라 헤엄쳐 나가거나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기도 하는데, 헤엄쳐 나가 작업하는 경우를 ‘굿물질’이라 하며, 배를 타고 나가는 경우를 ‘뱃물질’이라 한다. 해녀노래는 굿물질하러 헤엄쳐 나가면서도 이따금 부르지마는 주로 ‘뱃물질’할 때 노를 저으면서 노 젓는 동작에 맞춰 구연한다.<sup>55)</sup>

김영돈은 해녀노래를 다시 ① 해녀 작업 출발의 노래 ② 해녀 작업의 노래 ③ 해녀 출가길의 뱃노래 ④ 해녀 출가생활의 노래로 나누고 있다.<sup>56)</sup> 오키나와 어업요에 이 분류법을 적용하되, “해녀”를 “어부”로 수정하여, <어부 출가길의 뱃

55) 김영돈, 『제주도 민요 연구 下』, (민속원 2001), 159-160쪽.

56) 김영돈, 『제주도 민요 연구 下』, (민속원 2001), 186쪽.

노래>, <어부 작업 출발의 노래>, <어부 작업의 노래>에 상응하는 노래를 뽑아 살펴보고자 한다.

㉠ <해녀 작업 출발의 노래>

요 노 저어 어서 가자  
남의 배는 뜨기도 하다  
우리 배야 어서 가자  
우리 배는 잘도 간다  
솔솔 잘도 간다  
선등으로 가 볼까나

우리 배는 재기도 하고  
수덕 좋고 재수 좋은  
명주바다 실바람 불어라  
우리 배는 소나무 배라  
어서어서 저어서는  
이 배 미치고 저 배도 미쳐

㉡ <해녀 작업의 노래>

산 뛰는 건 웅마로다  
요 바다에 은과 금이  
높은 나무에 열매로다  
빛이 난들 이슬이 개라  
요내 마음 풀릴 날 있으랴  
이내 몸을 실어 놓고  
저 바다를 한길 삼고  
한 길 드 길 깊은 물 속  
우뭇가사리 도박 남을 준들  
요만 일이야 부칠 만인가

여 뛰는 건 배로구나  
번질번질 깔렸어도  
저 바다에 흑산호에  
소원된 달밤 맑은 날 있으며  
배야 배야 이내 배야  
어디로나 간단 말인고  
저 물결 고개 문지방 삼아  
생복 고동 찾으려고  
고동 생복 남을 주랴  
한강 바다 노를 저어

이 섬엘 가면 전복이 있을까  
풍덩 빠져 들어가 보니  
벗을 삼아 놀려 하더라  
소리로나 권력이다  
밑엿 사람 보기 좋게  
문에 들면 숨비질 소리  
동네에 들면 학새 소리

저 섬엘 가면 진주가 있을까  
고기들은 모여나 들어  
일손으로 못할망정  
먼 댕 사람 듣기 좋게  
내가 못할 일이 있으랴  
산에 가면 우김새 소리

㉢ <해녀 출가길의 뱃노래>

성산 일출 버려두고  
완도 지방 넘어가서  
금당아로 넘어가서  
지누리대섬 넘어가서  
나라도를 넘어가고

소안도로 가는구나  
신기 도영 넘어가고  
저 큰 바다 다 지나고  
나라도로 다다른다  
뽕돌바당 지나본다

돌산을 넘어가서  
솔치바당 건너가면  
사랑도바당 넘어간다  
지체장심포 넘어가고  
등바당을 넘어간다  
부산 영도이로구나

솔치바당 건너간다  
남해로다 노랑목  
물과랑것도 지나가서  
가닥동꿏 지나가면  
다대꿏을 넘어가면

㉠ <아키노오도리> (부록 [3])

해녀의 옷가지는 장대의 물방울에  
먼바다에 저어 나가 달은 동쪽의

소매를 젖어가며 뱃길은 아득히  
산의 나무 사이로 지금 살그머니 보이네

㉡ <단쥬카리유시> (부록 [25])

매우 길한 날을 택해 출항을 하네  
길한 배에 길한 것을 태워서  
꽃을 피워 함께 신의 영력을 부르자

배의 그물을 잡으면 바람은 순풍  
여정의 귀로는 비단길 위를  
길한 배의 나아감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 <단차떼> (부록 [26])

단차 앞 바다에  
셋줄멸치가 모여 있다네 헤이  
디안구와 소이소이  
셋줄멸치가 아니야  
야마토 미즌이야 양틴도헤이  
처녀들은 머리에 이고 팔기 위해 헤이  
팔고 돌아온 처녀들의  
향기는 사랑스럽다네 헤이

셋줄멸치가 모여 있다네 헤이  
단차 마시마시  
디안구와 소이소이  
야마토 미즌이야 양틴도헤이  
총각들은 청어를 잡기 위해  
처녀들은 머리에 이고 팔기 위해 헤이  
향기는 사랑스럽다네 헤이

제주도 어업요 세 곡 모두 배 위에서 노를 저어가며 부르는 노래이다. “길한 날”을 택해 “길한 배”에 “길한 것”을 싣고 순풍을 타며 비단길 위를 가듯이 가 길 노래한 오키나와의 <단쥬카리유시>처럼 ㉠<해녀 작업 출발의 노래>에서도 “수덕 좋고 재수 좋은 우리 배야”라고 노래하며 “명주바다 실바람”을 타고 “술 술 잘도 간다”며 순항의 기원을 노래하고 있다.

㉢에서는 “저 바다를 한길 삼고 저 물결 고개 문지방 삼아”라고 부르듯 일상 생활의 연장선인 바다지만, “요 바다에 은과 금이 번질번질 깔렸어도 높은 나무에 열매로다”, “한 길 드 길 깊은 물 속 생복 고동 찾으려고 이 바다를 시달리네”라고 노래하듯 너울거리는 파도와 깊은 물속에서 목숨을 걸고 어렵게 소산을 취해야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귀한 전복과 진주를 찾아 물속을 빠져도 애꿎은

고기들만 모여들어 벗 삼아 놀러하는 대목에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대하는 만큼 수월하게 일할 수 없는 해녀 일을 엿볼 수 있다.

나아가 제주 해녀들은 제주도 연안에서만 작업했던 것이 아니라, 본토와 외국으로도 활발히 바깥물질을 나갔었다. 그들은 19세기말 갑오경장을 전후하여 부산·동래·울산 등 경상남도 지방으로 나가기 비롯했으니, 그곳에는 풍성한 해산물을 캐 해녀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주 해녀들은 한반도 각 연안, 주로 동해안을 누비며 북상하여 광복이 되면서 경상북도 구룡포·감포·양포 등지로 몰려갔다. 더구나 일본의 쓰시마, 시즈오카, 고치, 나가사키, 미에, 도쿄, 에히메, 도쿠시마, 가나가와, 가고시마, 시마네, 치바 등지에도 이르렀는가 하면, 중국 산둥성의 칭다오와 요동반도의 다롄, 심지어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까지 진출했었다.<sup>57)</sup>

㉔민요도 제주도를 등을 뒤로 하고 출가하는 배위에서 부르는 여러 노래 중 하나이다. 위 노래에서는 제주도에 점점 멀어지면서 지나치는 지명들을 하나하나 읊고 있다. 정다운 성산 일출을 버려두고 하염없이 “~를 넘어가고”, “~를 건너가고”, “~를 지나가서 라는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목적지인 부산 영도까지 신체적으로도 또한 심리적으로도 힘들게 다다랐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오키나와의 어업요는 노동요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와 같이 출항하는 노래 2곡과 어획 및 상업으로 이어지는 노래 1곡을 찾아볼 수 있다. 3곡 모두 비교적 명량한 어조를 띄고 있다. 먼저 ㉕<아키노오도리>에서는 해녀 또는 어부의 옷가지가 배 위에서 저어나가며 젖어가는 가운데 순탄하게 먼 바다로 나아가고 있음을 눈에 보이는 전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㉖<단쥬카리유시>는 어선의 안전한 출항을 축원하는 내용의 곡으로 무사 귀환을 위해 “매우 길한 날”을 택하고 “길한 배”에 “길한 것”을 태웠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결과로 “바람은 순풍”이 불고 “여정의 귀로는 비단길 위를” 달리듯 무난하길 바라는 마음을 노래한다. 또한 인간의 노력에만 의지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꽃을 띄워서 신의 영력을 부름”으로써 안전한 순항을 위해 신에게 의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㉗<단차메>는 어업에 관한 남녀의 역할 구분을 엿볼 수 있다. 단차 앞 바다에

57) 김영돈, 『제주도 민요 연구 上』, (민속원 2001), 196쪽.

물려든 청어과의 바닷물고기인 ‘야마토 미즌’을 총각들은 잡고, 잡아온 ‘야마토 미즌’을 처녀들은 머리에 이고 나가 팔아야 하는 단차메 마을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해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해녀노래가 곧 어업요인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일반적인 어업요를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두 지역의 어업요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면 풍경화를 그려내듯 바다위에서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과 안전을 향한 향해를 기원한다는 점에 있다. 한편, 오키나와 농업요와 관망요에서 보였던 자신의 마을사람을 예찬하는 면모는 <단차메>에서 마을의 총각과 처녀들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다시 발견된다.

제주도와 오키나와 어업요 모두 주로 배 위에서 바다로 나아갈 때 부르는 노래가 우위를 점한다. 두 지역의 어업요는 독창으로 불리는 노래로 보기는 어렵다. 배의 좌현과 우현에 나눠 노잡이 역할을 했을 해녀(또는 어부) 최소 2인 이상이 짝을 이뤄 소리를 메기고 받아 불렀을 터이다.<sup>58)</sup>

일단, 어획을 거둘 지점에 당도하는 것이 급선무였을 것이므로 리드미컬하면서도 속도감을 내어 노를 저어 나아가기 위해 사설의 구성이 복잡하거나 한정 없이 길어지지 않는다. 제주도의 경우는 각곡마다 마디마디 대구를 이루고 오키나와의 경우는 추임새에 해당하는 어구의 반복 및 동어반복이 보이는 점에서 그렇다. 내용상으로는 배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력을 잃지 않도록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또한 양쪽 모두 해녀(어부) 작업의 노래를 1곡씩 포함하고 있는데 가사 상으로 보았을 때 제주도의 작업 노래는 이미 물질을 한 차례 정도 끝낸 이후에 다시 배위에 올라와서 수확한 해산물을 정리하면서 부른 노래이거나 물질을 모두 끝내고 돌아가는 배위에서 부른 노래로 여겨진다. 물질로 소산을 얻기까지의 과정과 결과 모두를 담아내고 있다. 그에 반해 오키나와의 작업 노래는 어획지에 다다라 그물을 내리기 전/후의 노래로 읽혀진다.

한편, 제주도 어업요가 갖는 독특한 점은 모두 결국 “해녀”로 귀결된다. 오키나와의 작업요가 남녀 역할의 분담이 이뤄져 특정성별에 편중되어 있지 않으며 어획과 판매라는 행위에까지 이른다는 특징을 갖는다면, 제주도는 키잡이 또는

58)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 해녀노것는소리



노를 짓는 이들 중에 남성이 함께 있을지라도 노래 상에서 노출되는 노동자는 해녀들뿐이다. 무엇보다 해녀에게 부과된 어업이라는 점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사례가 원정을 떠나는 ‘해녀 출가길의 뱃노래’라고 볼 수 있겠다.

#### 4) 기타 노동요

제주도의 노동요는 김영돈이 분류를 하였듯이, 한 가지 노동에 대해서만 노래 하거나, 한 종류의 노동을 하면서 노동과는 상관없는 감정이나 의식 등을 노래 속에 녹여내곤 하였다. 그러나 오키나와 노동요가 제주도의 노동요와 구분되는 점은 여러 종류의 노동이 한 곡 안에 수록된 노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노동 행위가 같은 곡 내에 거론되는 것을 말하는데, 첫 번째 유형은 어업+상행위, 두 번째로는 농업요+베틀노래, 마지막으로는 직조+음식+유흥+어업+양조 총 5종류가 되는 일들을 순차적으로 노래한다. 오키나와 노동요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이런 곡들을 기타 노동요로 분류하였다.

##### ① 어업+상행위

###### ◎ <단차메> (부록 [26])

단차 앞 바다에	셋줄멸치가 모여 있다네 헤이
셋줄멸치가 모여 있다네 헤이	난차 마시마시
디안구와 소이소이	디안구와 소이소이
셋줄멸치가 아니야	야마토 미즌이야 양틴도헤이
야마토 미즌이야 양틴도헤이	총각들은 청어를 잡기 위해
처녀들은 머리에 이고 팔기 위해 헤이	처녀들은 머리에 이고 팔기 위해 헤이
팔고 돌아온 처녀들의	향기는 사랑스럽다네 헤이
향기는 사랑스럽다네 헤이	

어업요에서 다룬 <단차메>는 청어를 잡는 어업과, 머리에 이고 나가 파는 상거래가 나란히 드러나 있다. 양국의 관망요는 옷, 모자 등을 완성한 이후에 장에 내다 팔기 위해 기한을 염두에 두고 노래를 부르지만, 실제로 장에 들고 나가는 실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 이는 제주도 어업요의 절대적 주를 이루는 해녀노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앞서 어업요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오키나와는

어업과 상행위라는 남녀 분업으로 노동부담을 나누고 있다.

## ② 농업+ 베틀

<하리미즈누 쿠이차-> (부록 [42])

오키나와에서 돌아오면  
섬의 모든 삼십여 마을의 형님들은  
하루미즈의 선착장의 모래들은  
오카미섬의 뒤편 야비시에 몰려드는  
마음의 삼십여 마을의 언니들은

미야코 모든 삼십여 마을의 남자들은  
뺨인두를 쥐지 않고 팽이를 잡지 않고도 농사를 잘하지  
밤이 되고 쌀이 되어 올라오네  
파도가 실이 되고 실패가 되어 올라오네  
모시풀을 만들지 않고도 실패를 걸지 않고도 잘 짓지

이 곡의 전반부에서는 “밤”과 “쌀”로 대표되는 농사가 먼저 언급된다. 해당 일은 남성이 주로 맡고 있는데, 후반부에 등장하는 “실”과 “실패”로 대변되는 직조 일은 여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2종류의 노동이 나란히 열거될 때 남녀의 역할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 ③ 직조+ 음식+ 유흥+ 어업+ 양조

<미무라부시> (부록 [45])

우루쿠 도미구시쿠 가치누바나 세 마을  
포를 짜는 이야기 모양을 틀리지마  
우이도마이 도마이 무토누도마이 라는 세 마을  
비를 맞게 하지마  
치지 나카시마 와탄지라는 세 마을  
잘생긴 청년을 어서 만나고 싶어라  
세 마을의 아가씨들이 모여 생선 파는 이야기  
본전을 못 뽑고 손해를 보니까  
세 마을의 청년들이 모여서 술 빛는 이야기  
본전을 못 뽑고 손해를 보니까

세 마을의 아가씨들이 모여서  
본전을 못 뽑고 손해를 보니까  
세 마을의 청년들이 모여서 소금 만드는 이야기  
본전을 못 뽑고 손해를 보니까  
세 마을의 아가씨들이 모여 손님 기다리는 이야기  
순자 가나쿠시쿠 이치만이라는 세 마을  
싸게 팔지 마  
아카타 돈쥬무이 사치야마라는 세 마을  
누룩을 맛있게 발효시켜

무려 5가지의 일들이 차례차례 각 연마다 등장하는 곡이다. 각 노동의 형태로 묶이는 세 마을을 각 연별로 노래하고 있다. 이 노래에서 전하고자 하는 바는 각 마을과 해당 마을의 특산물을 소개하는 일이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전무한 이러한 유형의 노동요들의 존재는 오키나와 노동요가 갖는 향토가로서의 면모를 가

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다.

## 2. 경세요

### 1) 경세/세정 노래

제주도 맺돌·방아노래 중 경세를 사실로 하는 곡들을 김영돈은 ①경세의 노래, ②세정노래, ③말쌍노래로 다시 분류한다. 첫 번째 곡인 <경세의 노래>에서는 생계를 꾸려 나가는데 필요한 일들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밭, 논, 집을 사는 경우로 대표하여 일러두면서도, 의와 식에 해당되는 것들은 결국은 부수적이며, 본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뿐이라며 노래하고 있다.

또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모함하는 죄로, 남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을 경계하고 물이 귀한 제주도에서 “물이 고픈 이”에게 물을 주고 해갈을 위해 오이를 놓는 등 덕 있게 살아야 함을 강조하며 마치고 있다.

#### ㉠ 경세의 노래

물 없거든 산지물 먹고  
나 없이 지내어 보라  
물일랑 지려거든 산지물 저라  
밭일랑 사려거든 구석을 보라  
집일랑 사려거든 울안을 보라  
밥과 옷은 오락가락  
우리 인생뿐이구나  
모함 죄가 깊은 죄네  
없어 놓으니 난 그리더라  
물 머끓은 이 물을 주어  
길가 밭에 오이를 놓아

나무 없거든 동백나무 지고  
남의 아긴 한 빛이네  
나물랑 지려거든 동백나무 저라  
논일랑 사려거든 두둑을 보고  
만물 중생 가운데  
귀하고 중한 것은  
세상 죄는 무슨 죄인고  
있어 놓으니 신 담배더라  
한길 가에 집을 지어  
급수 공덕 하였느냐  
해갈 공덕 하였느냐

#### ㉡ 세정 노래 i

얼굴 곱다고 지니지 말라  
소리 좋다고 지니지 말라

남의 간장 썩이려는 얼굴이네  
제 간장을 썩이려는 소리네

#### ㉢ 세정 노래 ii

이내 눈이 저울이더라

저울 없어서 댁에 가니  
세 동서가 한 집에 사니  
유월 유두 윤삭이 드니

산 소 다리 끊더라 한다  
아기들이 살오르더라

㉠세정 노래 i 은 “고운 얼굴”과 “좋은 소리”를 가진 젊은 여성을 지칭하고 있는 듯하다. 단순히 기성세대가 용모가 출중하고 소리가 좋더라도 남을 상하게 하고, 또한 본인에게 해가 될 수 있으니 뽐내지 말라고 충고하는 내용으로 읽힐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축첩을 하는 남편을 둔 부인의 입장에서 본인보다 젊고 아름다운 첩에게 이르는 내용으로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후자의 측면에서 보면 세정 노래이면서 부요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노래로 파악된다. 그러나 전자의 의미라면,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이 덧없음을 노래하는 한탄가로도 읽혀진다.

㉡세정노래 ii 도 저울이 없지만 집안일 또는 노동 작업이 이미 익숙하여 눈대중으로도 양을 맞출 수 있을 만큼 일에 이골이 난 점을 들며 노래를 시작한다. 그리고 “세 동서가 한 집에 사니 산 소 다리 끊더라 한다”며 시댁식구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 나가며, “유월 유두”라는 특정 세시에 “아기들이 살 오르더라”라며 노래를 마치는 점으로 보아 부요적 성격을 갖는 세정노래로 볼 수 있겠다.

㉢ 말썽 노래 i

동산 밭에 입 좋은 새는  
비올 날에 비 아니 옴은  
바닷 물결은 갯 물결을 울리고  
살을 살림도 못 살게 함은  
세무 명에 세바늘 달라  
내 말 야슬야슬 이르는 자녀  
친척으로 내 살을 것이면  
내 말 야슬야슬 야슬대는 사람  
벗이라 거든 믿지만 말라  
물 흐르듯 허주내더라

말이 좋아 자녀 말이네  
몽게구름도 탓이라 한다  
내 친척이 날 울리더라  
친척 자녀 암상이더라  
일똥당침 누비질이네  
입에 삼나무 그루그루 나라  
나도 친척 삼 서 듯 많다  
입에 삼나무 뿌리나 나라  
물러서 보니 벗의 말은

㉣ 말썽노래 ii

내 말 야슬야슬 이르는 년들  
내 오라범 수목수니  
내 말 야슬야슬 이르는 자녀  
나무에 다쳐 바쉬나 저라

입엘랑은 산나무나 나라  
옷가지로 가지 쳐 주마  
선데 서선 바쉬나 저라  
돌에 다쳐 바쉬나 저라

㊤ 말썰노래iii

사랑하거든 벗이나 말라  
시편 친척 사귀지 말라  
돌아서면 잡을 말 한다  
물배암이 솟음이더라

벗의 말은 물외 먹 듯이네  
앞에선 좋은 말 하다  
묵은 각단 새 각단 새로

㊦ 말썰노래iv

아들 낳고 딸 낳은 어머니  
집을 지어 울 둘러 놓아  
아들 낳고 딸 낳은 어머니  
살고 있으면 되돌아온다  
간 데마다 만나져서  
자식이나 없으면 한다  
집 있노라 집 자랑 말라  
아들 낳고 딸 낳은 어머니

말하기 좋다고 미는 말 말라  
살림 못 살 여편네가 있으라  
돌아서면 막말을 말라  
원수님은 외나무다리  
말아서 가는 자손의 관계에  
발 있노라 발 자랑 말라  
아기 있노라 아기 자랑 말라  
남의 말을 가리어 하라

4곡의 말썰 노래에서는 친척과 벗처럼 가까운 사람들을 경계해야하는 대상으로 노래하고 있다. 특히 ㊤말썰노래 i 에서 친척은 화자를 울리는 존재이며, “살을 살림도 못 살게 하는” 고달픈 존재로 불리지고 있다. 또한 곡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허주<sup>59)</sup>를 내는 벗 또한 믿을 수 없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벗의 말을 신뢰할 수 없음은 말썰노래iii에서도 동일하게 불리어 지는데, 역시 벗뿐만 아니라 친척도 “앞에선 좋은 말 하다 돌아서면 잡을 말” 하므로 “사귀지 말라”라고 한다.

말썰노래 i ~iii은 단순히 경계의 내용에서 그치지 않고 저주의 내용까지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화자의 말을 옮기는 사람은 “입에 삼나무 그루그루 나라”, “입에 삼나무 뿌리나 나라”, “입엘랑은 산나무나 나라”, “선데 서선 바쉬나 저라 나무에 다쳐 바쉬나 저라, 돌에 다쳐 바쉬나 저라” 라며 저주를 하고, 돌아서면 잡을 말 하는 시편 친척에는 “묵은 각단 새 각단 새로 물배암이 솟음이더라”라고 노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말썰노래iv에서는 부녀자들에게 역시 말을 조심히 가리어 할 것을 권하고, 살림살이를 자랑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그렇다면 오키나와의 경세/세정요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 제주도가 친

59) 나쁜 소문의 제주도 방언

척을 경계하며 약간의 거리를 둘 것을 노래한다면, 오키나와 경세요의 ①번곡인 <신미야코부시>에서는 사람들이 “친척에는 등을 돌리고 모르는 사람과는 사이 좋게 지내는” 세태를 비판하며 “빈곤해도 친척은 버리는 게 아니야”라고 노래한다.

그러나 역시 신미야코부시에서도 ‘사람들의 말’을 조심해야 함을 경계하는데, 친척이나 벗으로 그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처음엔 좋은 소리, 나중에는 싫은 소리를 하는” 보통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속내를 알 수 없는 이들에게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쉬이 속내를 보이지 말라고 권하고 있다.

나아가 이 곡에서는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나 형제와도, 맺어지지 않은 친구라도 사이를 멀게 하는 것이 바로 “금전”이므로 본인의 상황과 상관없이 “금전을 분간”하는 일을 제일로 삼고 있다.

㉠ <신미야코부시> (부록 [21])

요즘 세상은 큰일이야  
모르는 사람과는 사이 좋게 지내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빈곤해도  
말은 타 봐야 알 수 있듯이  
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들어도 속내를 보이지 마  
나중에는 싫은 소리를 하지  
부모와도 형제와도 친구와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난해도

친척에는 등을 돌리고  
이들이 있다는 거다.  
친척은 버리는 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은 사겨 봐야 알 수가 있다  
이러쿵저러쿵 입에 발린 소리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엔 좋은 소리,  
금전 때문이야말로  
사이가 안 좋아지지  
금전의 분간이 첫 번째라

㉠번 <신미야코부시>가 제주도의 경세의 노래와 세정노래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다음의 ㉡<하나구루마>는 다소 독특한 경우로 보인다. 이 곡은 궁극적으로 “인정”을 중요시 하는 노래인데, 사람의 정을 싣고 태워 마음을 이어 인심을 알도록 해주는 매개체인 화려한 수레=하나구루마를 등장시킨다. 비유적 대상을 전면에 내세워, 보다 부드럽고도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노래이다.

㉡ <하나구루마> (부록 [40])

사람의 정을 싣고 돌아라 화려한 수레야  
화려한 수레에 실어 마음을  
작은 언덕길이어도 해매는 길이어도  
젊음은 큰 길로 사람의 정을 태워서

진심을 이어주는 친밀한 연  
쉬이, 쉬이 가는 곳에는 화려한 도시가  
인정이 있으면 꿈결같은 큰 길이지  
화려한 수레를 달리게 하여

한편, ㉔번 노래 <텐사부시>는 명확하게 교훈가임을 시종일관 확인할 수 있다. 첫머리에서부터 이곡은 교훈가로 예로부터 귀중히 전해온 여러 훈계거리를 전해 두고자 하는 바람과 목적을 담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혼인을 할 때는 경제적 여건보다 상대방의 내면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점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연이어 노래한다.

㉔ <텐사부시> (부록 [28])

교훈가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읽혀	이것을 전해두겠습니다
부자라서 시집을 간 것이 아니야	가난해서 시집을 간 것이 아니야
당신의 마음씨가 고운 것을 보고	나는 시집을 간 것이야
이일을 전해두겠습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의 좋고 나쁨은 아이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형제 관계의 사이가 좋고 나쁨은
아우가 얼마만큼 형을 존경하느냐로 알 수 있지	가정의 사이가 두터움은
며느리가 키우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이일을 전해두겠습니다
남자는 한 집을 받치는 귀한 대들보지	여자는 가정 안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지	홀륭한 김정나무 기둥과 잘 닦인 거울은
좋은 가정에는 항상 서로 구비되어 있는 것이지	이일을 전해두겠습니다

제주도의 세정노래들 가운데 예로 든 노래들이 부요적 성격을 띤 세정노래였다면, 다음의 ㉕번 <나리아마아야구>는 부요이나, 경세와 세정의 의미를 내포한 곡으로 볼 수 있다. 일을 위해 마음을 떠나 멀리 나가는 남편에게 타지에 익숙해 지고 물들어 버리는 것을 경계하면서, 다른 여성의 집 또는 유곽에 가더라도 마음은 허락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염려와 당부를 하면서도 남편이 돌아올 때 “웃으면서 맞이하는 것”은 아내로서의 도리임을 나타낸다.

㉕ <나리아마 아야구> (부록 [34])

나레산은 익숙한 산	시메산은 물들은 산
익숙한 산에 가시어	너무 익숙해지지 않도록 당신
물든 산에 가시어 너무 물들지 않도록 당신	말을 타신다면 그물을 놓지마세요 당신
여자의 집에 가도 마음은 주지마세요 당신	말이 아름다운 건 하에서 아름답고

여자가 아름다운 건 교태가 있어서 아름답네      부딪혀 거듭 다가오는 파도는  
 웃으며 다가오네                                      나는 아내로서 웃으며 맞이하리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경세/세정요 모두 “말”을 조심해야함을 강조하는 면에서 공통점을 갖으나, 전하는 맥락은 달랐다. 특히 제주도 말썰노래에서는 자신을 둘러싼 혈족, 친구 관계에 대해 언급할 때 철저히 방어적이다. 여러 관계에서 이미 경험한 실망이나 배신감을 토대로 꾸념 또는 원망의 목소리를 담아내기도 하거니와, 저주와 함께 인과응보의 메시지를 보내며 경계한다.

경세의 노래는 공동체적 차원에서 “나”가 중심이 아닌 “우리”를 중심으로 삶의 지혜와 미덕에 대해 노래한다면, 말썰노래는 지극히 개인적 차원에서 “나”를 중심으로 부르므로 교훈적 의미를 담은 한편 감정해소의 역할이 크다. 또한 이 해소의 과정에서 부요적 성격을 드러냈다.

한편 오키나와는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관계지향형” 기조가 전반적인 세정요를 관통하고 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인정, 친척과의 관계, 말조심, 금전의 분간을 강조한 것이 아닌, “세상”으로 노래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인간관계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덕목들에 대해 노래한다.

그리고 노래의 성격이 교훈가이며, 널리 전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임을 초입부터 드러냄으로써 그러한 의지를 전면에 내세우기도 하였다. 제주도의 말썰노래 같은 노래는 오키나와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없었으나, 부요적 색채가 강한 제주도의 말썰노래였와는 반대로 경세적 성격을 갖는 오키나와의 부요를 살펴볼 순 있었다.

### 3. 정요

제주도의 경우는 멧돌·방아노래, 해녀노래, 옛타령의 사설 내용 중 남녀의 사랑을 노래한 곡들을 비교대상으로 지정하였다. 다만 오키나와 연가에서 드러나는 창자의 성비는 남성에 치우쳐져 있는데 반해<sup>60)</sup>, 제주도는 사설을 기준으로 연가를 선

60) <표4> 오키나와 연가 창자의 성별



별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작업 주체가 되는 노동요가 대상인 관계로 창자가 거의 모두 여성이라는 차이점을 갖는다. 제주도 연가 사설 내용에 따라 유형은 다음 4가지로 나뉜다.

<표3> 제주도 연가 유형

	유형
1	멀리 있는 입을 그리워함
2	입에 대한 애정
3	이별
4	애증

특히 맷돌·방아노래에서 사랑을 노래한 사설은 대부분 ①번 유형에 해당한다.

(1) 멀리 있는 입을 그리워함

제주도 여성들은 생업을 위해 섬을 떠난 입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맷돌·방아노래를 부르며 여과 없이 드러냈다. 오키나와와 비교했을 때 주체의 성별의 차이, 나라 간 감정 표현의 차이를 고려해야겠지만, 제주도 맷돌·방아 노래에서 표현된 떠난 입에 대한 그리움은 훨씬 더 깊은 상사로 읽힌다. 아래 노래들은 노래제목이 따로 없기 때문에 편의상 <상사노래>로 칭하도록 한다.

① 상사노래 i

가는 입을 오시라 하며	오는 입을 가시라 하라
입이 왔는가 내달아 보니	입은 정말 아니나 오고
촛불 한 쌍 흔드는구나	임으로 하여 나온 병은
약방 약도 효력 없고	정든 입만 약이로구나
중국 가도 삼 년에 온다	서양 가도 삼 년에 온다
팔 년 풍진 가신입은	언제면 돌아나 오리

①노래는 오매불망 기다리는 입이지만 돌아올 줄 모르는 상대를 홀로 기다리는

창자 성별	남	여	남/녀 교창	불분명
곡수	6곡	2곡	3곡	5곡

화자의 처지와 한 쌍으로 켜진 촛불은 대비된다. 본인의 애타는 마음을 직접적으로 ‘약방 약도 효력 없는’ 상사병으로 토로하고 있다. 중국에 가도, 서양에 가도 3년이면 오는데, ‘나’를 떠나간 임은 그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며 돌아올 줄 모르니 아득하기만 한 심정을 노래한다.

㉞ 상사노래 ii

저리 가는 기러기야  
 네 갈 곳은 그만두고  
 소식이나 전하여 달라  
 나의 소식 전하여 달라  
 안개가 끼어 있네  
 어서 봄철 돌아나 오라  
 어느 날은 가이나 나리  
 임 상사에 못 일어나리  
 정든 임이 몇 날에 오리  
 누구 괴려 분성적하리  
 갈데없어 앓더라 한다  
 배도 열어 먹어나 본다  
 임은 어디 간 곳이 없어  
 앓았으면 임이 올까  
 임도 잠도 아니 온다

네 가는 곳 어디더냐  
 내 임 간 곳 네 알겠거든  
 소상강에 뜬 기러기  
 높은 산에 아침 안개  
 봄철 나면 괴던 임 온다  
 영천바다 가 없는 내몸  
 새벽 닭은 꼬고오 운들  
 유월 유두 동북풍 부니  
 임 갈 적에 흠어진 머리  
 세상사람 날 본 말 말라  
 임도 갈 제 심은 배나무  
 배도 열어 먹어나 봤는데  
 동지 선달 긴긴 밤에  
 누웠으면 잠이 올까

<하나가사부시>의 초봄을 기다리던 피꼬리와 같이 ㉞노래에서도 임이 봄철이 되면 돌아오리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은 밤새 그리워 괴롭기에 아침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에도 못 일어나고, 애초에 밤이 긴 동지선달에도 임을 기다리느라 잘 수가 없는 날임을 노래한다.

㉟ 상사노래 iii

임이러라 동엿 임 걸어  
 저 산천이야 변하건마는  
 천년만년 변하라  
 첩 사랑은 일 년 사랑  
 죽어 이별은 나라의 대동이고  
 저 바다에 저소리 난들  
 청미래덩굴 잎에 초적이나 붙어

동창 맑은 달에나 오라  
 요내 마음 임 믿은 마음이야  
 조강지처 천 년 사랑  
 남의 계집 번개 사랑  
 살아 이별은 생초목에 붙이네  
 어느 고을 누군 줄 알리  
 임이 온 줄 알거나 하오

㉔노래의 화자는 결혼한 여성으로 떠난 남편을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확정된 마음을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연과 비교하며 자부하고 있다. 또한 첩이나 다른 여성과의 사랑은 오래 못가지만 조강지처야말로 진정한 사랑임을 강조를 하면서도 남편을 기다리는 일이 ‘생초목에 불이 붙은 듯’ 괴롭고 힘든 일임을 호소한다.

제주도 연가의 유형1(멀리 있는 임을 그리워함)은 오키나와 연가의 4번(부재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양자 모두 깊은 절망감과 한탄으로 점철을 하였으나, 끝내 재회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못한 모습을 보인다. 목전에 둔 사물과 자연 현상은 때에 맞춰 마땅히 찾을 본연의 모습을 갖추는 대상이므로 ‘임과의 재회’라는 자신의 소망의 간절함을 증폭시키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상황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병치되므로, 자신의 임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나타내는 장치로 작용하기도 한다.

## (2) 임에 대한 애정

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해녀노래인 ㉕애정노래도 오키나와의 노동요나 축가에 사용된 “금”과 “은”에 빗댄 비유가 등장한다. 숨을 참고 들어가, 숨고 험한 바다 가운데서 겨우겨우 따내는 귀한 ‘금조개’와 ‘은전복’을 임을 위해 드리자고 노래한다. ㉖노래는 죽어서도 나비와 꽃으로 함께 한 꿀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그리고 있다.

### ㉕ 애정노래 i

풍당풍당 물질하세  
이 섬에도 금조개요  
금조개 은전복 다 따다 놓고

풍당풍당 물질하세  
저 섬에도 은전복이라  
임 오신 데 드리놓자

### ㉖ 애정노래 ii

간다 하면 아주 가며  
너는 죽어 나비 되고  
꽃과 나빈 한 꿀에 간다

아주 간들 널 잊히랴  
나는 죽어 꽃이 되면

오키나와 연가의 세 번째 유형(서로 애정을 주고받음)은 교창형태로 남녀가 한 쪽 목소리에 치우치지 않고 노래로 서로 마음을 확인한다. 제주도의 애정노래는 여성의 목소리로 일관하며 남성에 대한 헌신적인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일견 보았을 때 구조상으로는 양자의 애정노래가 상이하나, 서로의 관계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편은 여성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오키나와의 ㉔노래도 남성에게 자신에 대한 마음을 더 큰 사랑으로 확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노래의 중심에 있으며, ㉕노래는 물질하여 얻은 것을 남에게 드리고자 하는 ㉖애정노래와 같이 복숭아를 팔아 산 소중한 배를 가지고 남성에게 옷을 해 입히겠다고 한다. 양자의 애정노래 모두 남성을 향한 여성의 애정이 주가 되어 불려지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겠다.

### (3) 이별노래

일제강점기에 제주를 떠나 일본으로 가는 배 ‘기미가요마루(君代丸)’를 한자 그대로 음독하여 ‘군대환’이라고 불렀다. 해방 전 이 군대환을 타고 고향인 제주도를 떠나 오사카나 도쿄 등으로 간 세대가 재일교포 1세대가 되었다. ㉗노래는 군대환에는 입을 태우고 연락선에는 친구를 태워 떠나보내는 슬픔과 후에 남겨질 공허함을 노래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군대환 보다는 작은 배를 띄워 나가는 경우가 더 많았다. ㉘노래도 ‘뒷강에 뜬 배는 낚시질 배’고 ‘앞강에 뜬 배는 임 실으러 오는 배’라고 노래하는 걸로 보아, 후자의 경우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㉙은 앞의 노래들과는 달리 사별이 주제이다. ‘공동묘지 가신임은 제사 때나 돌아온다’를 반복하며 두 번 다시 입을 만날 수 없는 마음을 노래한다.

#### ㉗ 이별노래 i

군대환은 가려고  
정든 임 손목 잡아  
군대환 떠나면

고동이 울리는데  
낙루만 하는구나

임 떠난 방안엔  
연락선 친구도  
오후 두 시 되면은  
이별이 되는구나

연기만 남지만  
사진만 남는다  
벗 못할 친구네  
고동소리 나면은

㉠ 이별노래 ii  
뒷강에 뜬 배는  
앞강에 뜬 배는  
갈 적에는 가노란 입아  
가는 오는 입이나 들어라

남시질 배로구나  
임 실으러 오는 배네  
올 적에는 오노란 입아

㉡ 이별노래 iii  
부령 청진 가신임은  
공동묘지 가신임은  
대천바다 놀소리는  
공동묘지 가신 부모 말 소린  
일본 동경 가신임은  
공동묘지 가신임은

돈이나 벌면 오건마는  
제사 때나 돌아오네  
산지향만 울리는데  
산에 산천만 울리는구나  
돈만 벌러 갔건만은  
제사 때만 돌아온다

제주도와 오키나와는 지리적 조건이 비슷하나, 이처럼 ‘섬과 바다’라는 지리적 환경에 수반되는 “이별”을 노래한 연가는 제주도에서만 보인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제주에서 벗어나는 일이 필연에 가까웠음을 위 노래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생계를 위해 남편을 일본으로 보내고 홀로 남겨져있는 부인의 입장에서 부른 노래가 주목된다.

#### (4) 애증

해녀노래 가운데 남편 또는 연인에 대한 애증의 마음을 드러낸 노래가 더러 있다. ㉠, ㉡, ㉢ 노래는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에 대한 투정을 하고 있다. ㉠노래는 음식은 짐승에게 줘버릴 수 있고, 입지 않은 옷은 그대로 두면 그만이지만, 어찌해볼 수가 없는 가장은 그저 원수일 뿐이라고 푸념한다. ㉡노래는 물질을 하면서 물속을 꿰고 있어도 함께 사는 남편 마음속은 가늠하지 못해 애가 타는 답

답한 심정을 노래한다. ㉔노래는 다른 집 남편과 비교하면서 무능력한 남편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한다.

㉓노래는 미혼 여성인지 기혼 여성인지 불확실하나, 일부종사를 못하고 해양 영업을 하도록 내 놓은 상대를 원망을 한다. ‘일부종사를 못하고’라는 구절에서 노래 속 여성을 미혼으로 볼 수도 있으나, 원망을 하는 상대에게 재가를 간 경우로 볼 수도 있겠다.

㉑ 애증노래 i

밥을 먹다 남은 것은  
옷을 입다 남은 것은  
본 가장 싫은 것은

개 돼지 쥐 버리고  
내버려 두건마는  
백년이 원수로구나

㉒ 애증노래 ii

보리떡 같은 년은  
공산 명월 나 같은 년은  
해양 영업이 웬 일이고  
천년만년 원수네

일부 종사를 하는데  
일부 종사도 못하고  
해양 영업 내놓은 놈아

㉓ 애증노래 iii

요 바다의 요 물 속은  
한 집 살아 임의 속 몰라

깊고 얕음 다 알건만  
간장 타는 내로구나

㉔ 애증노래 iv

남의 집 낭군은  
우리 집 낭군은

순사 칼을 차는데  
푸성귀 칼도 못 찬다

남편을 “백년이 원수”로 또는 “천년만년 원수”로 부르며 애증을 노래한 제주도 여성의 공통된 정서가 형성되어있다. 물질을 하러 바닷가로 나가는 해녀들이 함께 작업을 하는 여성들 간의 공유할 수 있는 해학적이고도 가벼운 노래를 부르며 유대를 이루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제주도 민요의 태반을 차지하는 것이 노동요/근로가라면, 오키나와 민요는 정요가 그러하다. 그 중에서도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는 연가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근거는 II장의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비교문화적 기반에서 다룬 모아소비(毛遊ビ)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모아소비를 통해 젊은 남녀들이 만남의 장을 보장받는 배경 속에서 다양한 연가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오키나와의 연가는 총 5가지의 유형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표2> 오키나와 연가 유형

	유형
1	상대와의 재회를 기다림(남녀 거리 비교적 가까움)
2	구애
3	서로 애정을 주고받음(남녀 교창)
4	부재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남녀 거리 멀리 떨어졌거나, 생사 알기 어려움)
5	배신

먼저 1번(상대와의 재회를 기다림) 유형에 속하는 연가를 보고자 한다.

㉠ <구메아카부시> (부록 [15])

아카의 폭포 물은  
가마도의 마음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적은 술이라도  
유이사- 유이  
유이사- 유이

위로 내뿜지 유이사-유이  
흔들린다네  
가까이 모여 함께 마시는 풍습이 있어서  
내일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생각하니까

㉡ <가나요 아마카와> (부록 [13])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니  
자, 데려가줘요 사랑하는 사람이여  
손수건을 짜서  
주고 싶소  
손수건을 주면 어떨지요  
연인이여 놀아도 잊지 마오  
그 사람의 증표

집에 있을 수 없네  
놓고 잊어버립시다  
내가 생각하는 당신에게 사랑의 증표를  
연인이여 증표를 줄 뿐이에요  
허리를 강하게 매는 띠를 주고 싶어요  
마음이 커져만 가요

㉢ <아야구> (부록 [6])

길이 아름다운건 가이야의 앞  
이-라요 마-누요 미야코의 노래 엔야라 스리  
마당에 심어진 가지마루 나무의  
이-라요 마-누요 아랫잎의 길이 엔야라 스리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볼텐데

노래가 아름다운건 미야코의 노래  
손수건의 길이는 기다림의 길이와 같은 것  
아랫잎의 길이와 같지  
당신의 집과 내 집이 나란히 있다면  
사랑스러운 사람이여  
미야코에서 배를 띄워

엔야라 스리

와탄지 앞 바다에 바로 거기에 있으면 하네 이-라요 마-누요 바로 거기에 있으면 하네

엔야라 스리

㉔ <유타카라부시> (부록 [52])

한 밤중에야말로 꿈에서 깨어  
홀로 팔베개로 지새는 밤의 괴로움  
그녀의 침실에 대화를 피우게 하고  
새조차 날아갈 수 없는 섬 구하며

눈 뜨고 그리운 것은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팔베개로 밤을 지새우고 싶다  
피꼬리가 되어 몰래 들어가고 싶다  
그녀와 둘이서 돈독하게 지내고 싶네

㉑부터 ㉔까지의 노래는 당장에 노래 속 상대와 함께하지는 못해도, 갈 수 없다는 절망감보다는 어서 다시 그 모습을 보길 희망하는 마음을 비교적 명랑하게 부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는 어렵지 않게 재회할 수 있으리란 기대를 내포하기 때문인데, ㉑<구메아카부시>에서 “내일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생각하니까”라는 구절에서 엿볼 수 있다.

<구메아카부시>에서의 “적은 술이라도 가까이 모여 함께 마시는 풍습이 있어서”라는 대목과 ㉒ <가나요 아마카와>에서 “놀고 잊어버립시다”, “놀아도 잊지 마오”라는 구절에서는 이들이 모아소비에서 만난 남녀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자유로운 교제를 허용한 관행 속에서도 본인이 속한 촌락 내에서의 배우자 선택이라는 촌락내혼이라는 규제도 있었다. 촌락의 청년조직 책임자는 때때로 심야에 처녀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혹시 다른 촌락의 모아소비에 마을처녀들이 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통제했다.<sup>61)</sup> 이처럼 자유연애도 어디까지나 같은 마을 내에서 권장하는 분위기였던 점을 염두에 두면 ㉓<아야구>와 ㉔<유타카라부시>는 각각 다른 촌락의 남녀가 만났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규제와 물리적 거리로 인해 기다렸다 만나야 하는 아쉬움과 애뜻함을 <아야구>의 “당신의 집과 내 집이 나란히 있다면”, “바로 거기에 있으면 하네”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타카라부시>에서는 이런 제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인 <피꼬리>로 분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고 싶은 마음을 노래하고

61) 이나후쿠 미키코, 「오키나와 민속사회의 혼인의 특질과 변화」, 『호남문화연구 50』,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2011), 49쪽.



있다.

## (2) 구애

구애의 성격을 띠는 아래의 노래들은 대상이 모두 여성으로 그려져 있다. 패턴 1과 같이 구애의 노래들도 모두 상대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나, 제한된 자유 속에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췌비구와>는 상대에게 가는 길의 경로를 읊으며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매일 밤’에 간다. 이동의 불편함이나 거리의 제약은 토로하지 않지만, 남들의 시선에서만큼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어 한편으로 망설이는 마음도 ‘...돌아갈까나’라는 구절에서 보인다.

㉡<난요하마치도리>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여행지에서 바다를 끼고 구애하는 대상과 떨어져 있다. 하지만 역시 이런 거리적 제약을 극복하더라도, 이전 노래와 같이 타인을 의식하는 점을, 상대와 자신을 가릴 수 있는 ‘뺨나무’와 ‘참죽’을 심어둔 터이니 와달라는 면에서 드러난다.

위의 2곡이 화자의 마음을 노래의 대상이 되는 여성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가능성을 담고는 있다면, ㉢<도바라-마>의 경우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두 사람간의 거리보다도 노래의 대상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점에 매여 있다. 그렇기에 더욱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 하고 가는 마음에는 ‘천리도 일리’이지만,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은 ‘일리도 천리’라고 토로하고 있다.

### ㉠<이췌비구와> (부록 [8])

이치고양에게 반해서 자치미 마을을 지나,  
사-그리는 사람이 왔다 사랑하는 이가 왔다  
마음이 생기고 나서는 매일 밤 다니지  
눈썹에 반하고 치아에 반했네  
사-색이 고와 몰래 왔다네  
자유롭지 못하다면  
사-그리는 사람이 왔다 사랑하는 이가 왔다

지나서, 지나고과 치나의 관서에  
딸기 따기는 변명이지 사랑하는 이의 마을에  
사-몰래하지 않아요 돌아갈까나  
허리에 반했네 딱 세 번 반했네  
다닐 수 있는 만큼 다니고  
신, 불도 의지할 것 못되지

### ㉢ <도바라-마> (부록 [29])

나카도미치를 몇 번이고 지나도  
당신이 진심이라면  
생각하고 가면 천리도 일리

오키스지의 그녀와 사랑 이야기를 나눌 수 없네  
노래를 들으러 달려와 주오  
다시 돌아간다면 도로 천리

곤색 염색은 쪽으로 들이지  
물들여 물들인다면 꽃으로 곤색 물 들이지  
강물은 바다에 쌓이네  
달과 태양과는 같은 길을 가네

당신과 나는 마음으로 서로 물들이지  
아사지 염색은 허용해주세요  
내 마음은 당신에게야말로 물드네  
당신의 마음도 나도 같은 길이도록 해주세요

㉔ <난요하마치도리> (부록 [35])

여행은 바다에 숙박을 두고  
새들은 바다에서 쉼이쉼이  
옛일을 생각하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어도  
그 사람도 바라보고 있겠지 지금 이 하늘을  
참죽을 심어두니 오셔서 우리 만남시다

풀잎 베개 잠들 수 없는 내 부모님 곁  
여행길 숙소에서 눈이 뜨여 베개를 비스듬히 하고  
이러한 밤중은 얼마나 괴롭던가  
비추는 달은 하나  
땀나무를 심어 두니 종종 와주세요

(3) 서로 애정을 주고받는 노래

㉕<나사케노우타>는 서로 마음을 나눈 남녀가 교창 형태로 노래한다. 다른 유형의 노래들보다 여성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두드러지는 편인데, 남성의 갈등하는 모습도 인상적이다. 남성의 ‘그것도 버릴 수 없고 이것도 내팽길 수 없네’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듯하다.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마을에 속하는 이유로 만나서는 안 되는 규율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연인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남성이 처첩을 두었다면, 함께 노래하는 여성이 첩인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노래에서도 자유롭지 못함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있다. ‘새벽을 알리는 닭을 원망한다’는 점에서 <나사케노우타>의 남녀도 어두운 시각에 몰래 만났거나, 밤에 있는 모아소비 자리에서만 만날 수 있는 상대일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㉖<무무우이양구와>도 여성이 의사표현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자신의 생업일 수 있는 복숭아를 팔아서 남성을 위해 옷감을 구해 상대에게 옷을 해 입히고, 남는 면으로 본인의 소매에도 덧대어 같은 옷감을 연인과 공유하고자 한다. 남성은 이전에 다른 마을의 사람과 모아소비를 한 바가 있는데, 여성이 지어주는 옷을

‘사랑의 증표’로 받아들이고 함께 미래를 약속하며 맺는 노래이다.

㉠ <나사케노우타> (부록 [32])

(여) 마음이 있는 사이야말로 떨어질 수 없네 내 마음도 헛수고로 그치게 하나요 하지만 의리로 맺어진 당신과 나는 (여) 예전에 바보의 말은 지키고 마음을 쏟아주세요 (남) 그것도 버릴 수 없어 마음을 쏟아보고 싶네 생각대로 자유로워질 수 없네 나는 새벽을 알리는 닭이야말로 원망하네	어제서 당신은 얼굴색이 변해서 (남) 마음을 헛수고로 돌아가게 하지 않아 생각대로 자유로울 수 없네 의리라는것은 무엇인가요 제 마음도 헛수고로 그치게 할 건가요? 이것도 내팽길 수 없어 어떻게든 되라 두 사람 (여) 썰물 때 있는 새는 밀물을 원망하듯 생각대로 자유로워질 수 없네
---	---

㉡ <무무우이양구와> (부록 [48])

(여) 복숭아를 팔아서 나는 사유 베를 샀으니 이걸로 옷을 지어 자른 면이 남으니 나는 입을거야 이 자른 면을 그 물은 내가 풀게 (여) 이걸로 옷을 지어 오라버니에게 입히니까 (남) 진실한 마음의 증표인데 밤놀이를 할 리가 있나! (남) 변하지 말자 서로 우리 두 사람	이걸로 옷을 짜서 사랑스러운 오라버니에게 내 기모노 소매에 덧대서 (남) 옷을 빨게 천을 표백할게 피곤하지는 않니? 앞으로 다른 곳의 사람과 밤놀이하지 말아줘 앞으로 다른 곳의 사람과 (여) 약속한거야 오라버니 (남녀) 부모님께 말씀드려 부부가 되자
---	--

(4) 부재하는 입에 대한 그리움

㉠<구니노하나>는 전쟁터에 연인을 보낸 여성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군인인 연인은 부모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나, 그 뜻에 반하여 맹세를 했으나 소식조차 알 수 없는 비통함이 느껴지는 노래다. 또한 떨어져 있는 연인과 닿을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당신은 흰 구름일까’라는 부분에서 엿볼 수 있으며 ‘바람이 부는 대로’ 자유롭게 흘러가 닿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혹은 전장에 나간 연인이 ‘나라의 꽃이므로 울지 않는다’라고 한 점에서는 전쟁을 준비하는 국가 정책의 기초를 의식한 것으로 비춰진다.

㉡<하나가사부시>는 앞선 노래에 비해 일상적이고 보통의 상황에서 불린 노래

로 보인다. 노래 속 화자는 자신의 주변에 보이는 여러 자연 현상과 본인의 상황을 대비시키거나 또는 동일시하면서 연인을 만나지 못하는 마음을 노래한다. 꽃 샷갓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도 매실의 향기는 맡을 수 있는데 반해, 사랑하는 사람을 몰래도 만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대비시키고, 젊은이도 늙은이도 들판에 나가서 노는 모습이 부럽게 보일만큼 연인과 함께 밖에서 놀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대비시키며 불만의 뜻을 내비친다.

㉠ <구니노하나> (부록 [14])

부모가 물들인 베개를 나는 버리고  
듣고 싶어요 당신의 소식을  
바람이 부는대로  
나라의 꽃이니 나는 울지 않아  
당신에게 꿈에서 깊이깊이 알려주세요

군인인 당신과 맹세를 했는데  
당신은 흰 구름일까  
지금은 북만주의 풀과 잎사귀 베개  
천리 떨어져 있어도 꿈길이 있다면  
나라의 꽃이니 나는 울지 않아

㉡ <하나가사부시> (부록 [39])

꽃 샷갓을 만들어 얼굴을 가리우고 있고  
당신과 나 사이는 몰래 만나지 못하는데  
편지가 와도 서문이 와도 나는 태연할 수 있을까  
나는 태연할 수 있을까  
아침이슬을 마시네  
즐거운 일이다

매실의 향기  
나는 태연할 수 있을까  
베개를 나란히 하고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데  
깊은 산의 피꼬리는 초봄을 몹시 기다리며  
늙은이도 젊은이도 들판에 나가서 노는 것은

(5) 거절·배신

㉠<무쵸노츠키>는 자신의 마음과는 다른 상대의 마음을 무정한 달에 비유하고 있다. 천리의 길고 긴 육지 길은 마음이 자유로우나, 상대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일리의 바닷길은 가까움에도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리로 여겨진다. 또한 파도치는 소리가 상대를 향한 애정을 키우게 하나, 본인과 같지 않은 마음인 것을 인지하고 있기에 1리의 바닷길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자신의 심정을 옥과도 같은 소매의 눈물을 통해 알리고 싶은 마음을 토로한다. 상대를 향한 마음이 강해지게 하는 ‘야비시를 치는 파도’처럼, 커져가는 마음은 다시 한

번 무정하게 비치는 달빛이 강해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

㉞<시라구치부시>는 매우 독특하게 망자의 입장에서 변신한 연인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이미 백골이 된데다 바래버린 뼈로 바다 가운데 떠도는 망령이 된 화자는 연인에게 배신당한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끝맺고 있다. 한 가지 특이사항은 일본 본토에서 종종 발생하는 신쥬(しんじゅう·동반자살)가 오키나와 민요에서 나타난 점을 꼽을 수 있다.

㉠ <무쥬노즈키> (부록 [46])

천리의 육지 길은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내 마음을 바싹바싹하게 야비시를 치는 파도  
쪽 쌓아 두고 뒤서 알리고 싶어요 당신에게  
내게 행복의 빛은 없지만

일리의 뱃길은 마음이 자유로울 수 없네  
사랑하는 그녀를 향한 마음이 강해지지  
옥을 잘라 두어 소매의 눈물  
무정하게 비치는 달은 빛이 강해져서

㉡ <시라구치부시> (부록 [20])

나는 백골이 되어 백사장의 모래와 함께  
애석해할 사람은 없다  
바다에 몸을 던져 놓지말아요  
함께예요 우리는  
굳게 믿었기에 목숨도 버렸건만  
죽을 목숨도 아까워하고  
무정하게도 나는 홀로  
행방불명이 되어서

뼈는 바래져서  
함께 죽음을 결심하고 손을 마주잡고  
죽음으로 나가는 여행을 떠나기까지는  
일심동체라고 말했던 약속은  
그 사람은 마음이 변하여  
매달려도 잡아도 뿌리치고  
거친 파도 속에 버려져서

이상의 내용으로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연가를 정리해보면, 멀리 있는 임/부재하는 임을 그리워하고 서로의 애정 또는 상대를 향한 애정을 노래한 제주도의 1,2번 유형과 오키나와의 3,4번 유형은 두 지역이 갖는 연가의 보편성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한편, 남성이 위주가 되는 구애의 노래와 상대와의 재회를 기다리는 노래(남녀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울 때), 그리고 상대의 배신을 노래한 오키나와의 연가는 제주도와 비교하였을 때 오키나와 연가만이 갖는 독창성이라고 볼 수 있다. 오키나와 연가는 전반적으로 혼인을 맺지 않은 젊은 남녀가 부른 노래가 태반을 차지한다면, 제주도는 노래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부요적 성격을 공통점으로 지니고 있는 만큼 결혼한 여성의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때문에 오키나와와 비교하여 제주도 연가가 갖는 독창성은 3번과 4번 유형인 “이별”과 “애증”노래로 압축된다.

## IV 제주도와 오키나와 민요의 특징과 의미

### 1. 민요의 주제 및 연행의 특징

#### 1) 주제의 특징

밭농사와 어업을 주요 생업으로 삼고, 각종 공예를 부업으로 하였던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공통된 배경을 바탕으로 양자의 노동요를 농업·제분요, 어업요, 관망요로 묶어서 볼 수 있었다. 제주도와 오키나와 노동요 모두 작업 지시 내용을 포함하여 근면을 권장하는 보편성을 보인다. 제주도는 모든 종류의 노동요에서 그 경향이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편이라면, 오키나와는 관망요에서 두드러진다.

또한 풍년을 기원하는 대목은 오키나와 노동요에 비해 비록 제주도 노동요에서는 부분적으로 드러나지만, 양자 모두 풍작을 바라는 마음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어업요에서는 무사히 바닷길로 나아가길 비는 심정을 양쪽 모두 내비춘다는 점에서 제주도와 오키나와 민요에서 드러난 기원의 성격이 단순히 풍요라는 “결과”에만 그치지 않고 “과정”에까지 이르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 노동요는 작업의 피로나 삶의 고난을 토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주 태생을 원망하기도 하며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만, 오키나와의 경우는 그런 현실의 삶을 노래하는 성향 보다는 예측성(豫祝性)이 강하다. 제주도는 노동의 현장과 개인의 삶이 철저하게 결합되어 있다면, 오키나와의 경우는 노동의 현장과 공동체가 결속되어 있고 개인의 삶과는 분리되어 있다.

오키나와의 예측성은 수확 전에 미리 풍작을 축하하거나, 어업요의 경우는 출발 전에 안전한 항해와 귀로를 미리 축원하였다.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뤄졌을 이러한 예측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예찬을 수반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였다.

이러한 각각의 특징이 상이한 것은 여성노동자가 짊어야 할 근로 부담의 차이에서 기인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질을 한 후에 해질녘엔 밭일을 하고, 밤에는 부업으로 관망 관련 일을 하던 제주도 여

성들은 육지의 여성에 비해 생활력이 매우 강하고 바지런하였지만, 그만큼 늘 생활고의 압박에 시달리고 삶의 애환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반면에 오키나와에서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성별과 무관하게 골고루 역할을 분배하여 작업을 하는 생업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농업요에도 일부 드러난 바가 있다. 그러나 애초에 이러한 유추가 가능한 것은 맺돌·방아노래, 해녀노래, 관망요 모두 여성의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는 노동요인 반면, 오키나와 노동요는 특정 성별에 치우쳐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전제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제주도 노동요는 사람이 느끼는 다양한 정서와 감정의 표현이 노래 안에서 수없이 발현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오키나와의 경우는 개인의 심정은 배제되어 있고 많은 부분 절제되어 있다. 양 측 모두 단일 노동만 담당하지 않고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여러 종류의 노동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제주도는 한 곡의 노동요 안에는 한 종류의 노동만 다루는데 반해, 오키나와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벌어지는 상이한 종류의 노동들이 한 곡 안에 동시에 나오는 민요도 여러 곡 존재한다.

양쪽의 경세/세정요 모두 덕 있게 살아야함을 강조하고 말을 삼가고 주의해야함을 공통의 주제로 삼은 곡들이 많다. 또한 양측의 경세요 모두 부요를 교집합으로 갖는데 그 양상은 다르다. 제주도는 부요적 성격을 띤 말짱노래(세정노래)가 있다면, 오키나와는 경세적 내용을 담은 부요가 있다.

제주도의 말짱 노래에서는 친족과 벗 모두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그렸지만, 오키나와의 경세요는 혈연으로 맺어진 친척을 멀리하는 세태를 경계하였다. 두 지역 모두 교육적인 의도를 가진 곡들이 많았는데, 오키나와의 경우는 한 층 더 나아가 그러한 훈계가가 널리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노래에 담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오키나와의 경세요가 교육성을 보다 더 전면에 내세운 노래라고 볼 수도 있겠다.

제주도 정요는 [① 멀리 있는 입을 그리워함, ② 임에 대한 애정, ③ 이별, ④ 애증]의 4가지 유형을 보인다. 오키나와 정요의 패턴은 [(1) 상대와의 재회를 기다림, (2) 구애, (3) 서로 애정을 주고받음, (4) 부재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 (5) 배신]의 5가지로 나뉘며, 대체로 기다림/그리움과 애정을 노래하는 정서는 양측의 연가 모두 공유하는 것으로써, 보편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오키나와 정요에서 드러나는 창자의 성비는 남성에 치우쳐져 있는데 반해, 제주도는 사설을

기준으로 연가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작업 주체가 되는 노동요가 대상인 관계로 창자가 거의 모두 여성이라는 차이점을 갖는다.

기다림/그리움의 정서는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피꼬리”라는 공통의 비유를 사용하였다. 오키나와의 정요는 자신의 처한 여러 제약을 극복하고 상대에게 도달하는 존재로 “피꼬리”로 분하길 희망하였고, 제주도의 경우는 입을 기다리는 자신을 “초봄을 기다리는 피꼬리”와 동일시한 바 있다. 애정을 표현할 때도 상대에게 귀중한 증표를 주어 마음을 알리고자 했다. 오키나와에서는 복숭아를 팔아 옷감을 사서 옷을 지어 연인에게 주고자 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제주도에서는 ‘금조개’와 ‘은전복’을 바다에서 캐다 입을 위해 드리겠다고 한 노래를 살펴보았다.

한편, 오키나와 정요가 일관되게 공통의 요소로 갖는 점은 남녀의 “제한된 자유의 토로”이며, 그나마 이를 가능케 한 것은 “모아소비”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가원의 문화가 잔재로 남아 있는 것은 제주도와 오키나와 모두 동일하지만, 오키나와가 보다 더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편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오키나와는 먼 곳에 떨어져 있거나, 연인을 떠나보내어 당장의 재회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대를 막연히 기다리는 좌절감보다는 비교적 가까이에 있으나 늘 함께할 수 없는 아쉬움을 노래하는 곡이 주류를 이뤘다. 말 그대로 오키나와 연가는 결혼하지 않은 젊은 남녀들의 연애감정을 주로 노래하였다.

반면, 제주도 여성들은 생업을 위해 섬을 떠난 입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두드러진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배에 띄워 연인을 보내는 이별을 노래하는 곡은 제주도에만 다수 있는 반면에, 오키나와는 비슷한 환경임에도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제주도 멧돌·방아 노래/해녀노래에서 표현된 떠난 입에 대한 그리움은 오키나와의 정요보다 훨씬 더 깊은 상사로 읽힌다. 이는 부녀자의 입장에서 불린 노래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인데, 같은 이유로 남편에 대한 애증을 노래하는 면모도 제주도 정요의 특성으로 파악된다.

## 2) 연행의 특징

제주도의 노동요는 실제 작업을 수행하며 부른 노래이거나, 작업장으로 나아가며 부른 노래들이 지배적이다. 제분요와 관망요의 대부분은 여성 홀로 독창으로



불렀거나 2-3인의 소그룹으로 부른 노래들로 추정된다. 제분요와 관망요 모두 닫힌 공간, 또는 제한된 공간에서 자신의 가장 내밀한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제분요를 제외한 <밭 밟는 노래>, <타작노래>, <김매는 노래>와 같은 농업요는 최소 2인 이상 혹은 수명으로 이루어진 작업 그룹이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 가사의 흐름이 선/후창으로 나뉘어져 있어 “먹이고 받는”식으로 불린 것으로 읽혀진다. 변주를 이루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규칙성을 확보하는 구간을 선창자와 후창자가 일정한 리듬과 템포에 따라 양분하여 주고받은 노래들로 여겨진다.

어업요 또한 독창 보다는 최소 2인 이상이 짝을 이뤄 소리를 메기고 받아 불렀을 것이다. 배의 좌현과 우현에 나눠 노잡이 역할을 했을 해녀 또는 어부가 어획을 거둘 지점에 당도하기 위해 노를 저어 나가며 불렀거나, 작업을 종료하고 돌아가는 길 위에서 노를 저으며 불렀을 것이다. 이 경우 전후 상황에 따라 템포의 완급은 달라지더라도 사설의 구성이 대구를 이루며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

경세요와 정요는 기본적으로 그 사설을 대부분 제분요와 일부 해녀노래에서 취했기 때문에 두 장르의 노래의 연행상황은 주로 여성의 독창으로 읽혀진다. 그러나 정요 가운데 <애증노래>는 사설의 내용이 굉장히 간결한 편이었는데, 이 경우 남편을 “원수”로 노래한 여성의 공통된 정서가 형성되어 있음으로 해녀들이 함께 부른 노래로 볼 수도 있겠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제주도가 1인 혹은 소규모 집단의 여성의 목소리가 지배적이라고 한다면, 오키나와는 노래의 성격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남/녀 교창의 연행 방식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는 모아소비의 노래대항인 우타가케(歌がけ)에 뿌리에 두고 있다 여겨지는데, 우타가케에서는 마을과 마을, 그리고 남/녀로 나누어 노래를 주고받기도하기 때문이다.

농업요는 합창 형식으로 제주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사람들이 모두 함께 불렀을 것으로 보인다. 마을과 마을 사람들을 예찬하는 가사 내용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 남녀노소 구별 없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제창한 것으로 읽힌다. 그렇기에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에 불렀다기보다는 공동체의 결속을 도모하는 연회의 장이나 축제의 장에서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한편 관망요에서 보이듯 성별에 따라 부르는 가사가 처음부터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부 어업요에서 발견되듯 남녀가 맡는 작업 역할의

구분에 따라 별도의 표기는 없으나, 해당 부분도 남녀로 나뉘서 불렀을 경우 또한 상정해 볼 수 있다.

경세요의 경우도 연행자가 특정성별에 치우쳐 있지 않다. 노래에서 “관계”를 중시되는 내용이 공통된 주제인 점과, 교훈을 널리 전하는 것임이 노래의 목적임을 내세운 점을 비춰보아 연령과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두루두루 불린 노래들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제주도의 정요는 주로 여성이 남성을 향한 사랑과 애증을 노래하였다면 오키나와는 남녀 모두 연가를 불렀으며 그 가운데 남성이 조금 더 우세하다. 상대와의 재회를 기다리는 유형의 노래가 주로 남성 입장에서 부른 내용이기 때문이다. 한편, 서로 애정을 주고받는 노래에서는 일정 소절씩 남녀가 돌아가며 노래를 한다. 이 유형을 제외한 희망적인 어조의 노래는 남성에 치우쳐져 있고 비관적이며 애조가 띠는 노래는 주로 여성의 목소리로 불렀다.

## 2. 전승집단의 삶의 태도와 인식

### 1) 제주도인의 처세관

제주도 민요를 관통하는 제주도인의 인생관은 적극적 처세관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노동요, 경세/세정요, 정요 통틀어 노래에서 묘사되는 자연적 상황, 생업과 관련된 환경, 인간관계는 대체로 녹록치가 않다. 전반적으로 늘 불리한 조건 가운데 놓여 있었다. 그들은 이를 이상향을 추구하는 등 다른 주목할 만한 대상으로 치환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는 방법을 택했다. 불만을 표출하고 애환을 토로하는 하나, 그 내용이 단지 비관만으로 점철되다 끝난다면 적극적 인생관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 근거를 모든 종류의 노래에서 아래와 같이 찾아볼 수 있었다.

노동요에서는 앞부분에 먼저 산적된 작업을 나열하거나 척박하고 고달픈 작업 환경을 거론한다. 눈앞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중반부나 후반부에서는 신명나게 작업을 수행하는 양태를 자연현상에 빗대어 표현하거나, 힘을 의탁할 수 있는 초월적인 대상을 끌어들이며 힘써 근면하자는 레퍼토리로 마무리가 된다.

세정요 가운데서는 친족, 친구, 이웃과 같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갈등이나 유쾌하지 못한 경험들을 환기시키고, 이에 대한 징계적 차원에서 저주가 따르는 예가 적극적 처사에 속한다고 본다. 교훈을 전할 때도 자신의 경험적 사례를 통해 제안하거나 권하는 말투를 쓰지 않고 보다 강한 명령조로 전달한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 여전히 마주할 의지를 보임으로써 강권한다.

정요 중 상사노래도 처세는 동일하다. 기약 없이 기다리며 상사는 점점 더 깊어지고 그 시간이 고통스러움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나, 그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감정해소의 효과를 거둠으로 인해 기다림의 의지를 상실하지 않는다. 오히려 말미에는 본인의 그러한 자세를 지속할 것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 2) 오키나와인의 처세관

본고에서 다룬 오키나와 민요에서 발견한 오키나와인의 인생관은 우회적 처세관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개인의 사랑을 노래한 연가를 제외한 오키나와의 민요는 개인의 체험과 그에 따른 감정의 토로보다는 공동체적 목표와 공동선의 추구를 드러낸 노래가 다수를 이뤘다. 이를 제주도의 적극적 처세관에 대응하는 소극적 처세관으로 보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요에서 뚜렷하게 보였던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예찬과 풍작을 예측한 성향을 두고, 노동 작업에 수반되는 고난을 오키나와인들이 회피했다고 보기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승화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제주도인이 직접적으로 내면의 소리를 표출함으로써 외적/내적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면, 오키나와인은 그와는 상이한 방법을 취했다고 봐야한다.

즉 우선순위를 공동체와 공동의 작업에 두고 주의를 환기시켰음을 뜻한다. 벼농사를 근간으로 하였던 과거의 오키나와의 생업 환경이 이러한 처세를 가능하게끔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겠다. 다수의 인원이 동원되어 의기투합하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도록 합창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는데, 그 목적성에 맞는 내용으로 오키나와인들이 자연적으로 택한 것이 지역(인)예찬=향토성, 예측성을 담은 노래로 이어진 것이다.

정세요도 개인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공동체에 당부하는 내용을 담아내는 내용이 제주도의 경우였다면, 오키나와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상정해둔 공동체의 이상에 다가가기 위한 차원에서 불러졌다고 판단된다. 특히 교훈이 전승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부름을 모두에 드리낸 예가 그 단적인 증거가 된다.

그렇다면 연가의 경우는 어떻게 보는 것이 마땅할까. 모아소비라는 관행을 배경에 둔 오키나와의 연가는 노래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상대와의 재회를 기다리는 노래와 서로 애정을 주고받는 교창의 노래 유형이 특징으로 꼽혔다. 이러한 특성은 열시세계관(說之世界觀)과 관련이 깊다고 본다. 즉 기쁘고 즐거운 말이 시와 노래와 춤등 예술을 발생시킨다는 것으로, 모아소비라는 놀이문화가 집단적 신명을 구현<sup>62)</sup>하며 이에 따른 산물로써 오키나와의 연가가 나오게 되었다고 본다.

## V 결론

본고에서는 제주도와 오키나와 양국의 생업, 민속문화, 그리고 역사 지리적 관계를 민요 비교의 제문화적 근거로 삼은 후 노동요, 세정요, 정요로 나누어서 비교를 시도하였다. 필자가 민요의 특성 중 가장 주목한 것은 사회성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제주도와 오키나와 사람들의 인생관을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생업은 온난한 기후와 바람이 많은 섬지역이라는 유사한 배경을 두고도 제주도는 밭농사 위주의 농업을, 오키나와는 벼농사를 위주로 하였다는 차이를 가장 큰 대조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업적 차이가 노동요 중에서도 농업요의 양상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 민속 문화는 양 지역의 민속적 유사성을 밝히기 위해 놀이문화(가원과 모아소비), 무속(삼승할망과 노로/유타), 설화(뱀 설화)를 차례로 다루었다. 이후 역사지리적 관계를 통해 양국의 표류와 표해의 역사를 김철중, 문순득 등의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민요 비교의 첫 번째 부분인 노동요에서는 농업/제분요, 관망요, 어업요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주도는 노동요라는 단일한 군에서 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 및 관념이 노래의 제재로 발견된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혔다. 제분요

62) 홍순일, 「도서·연안지역 민요공동체의 성격과 민요의 연행양상」, 『한국민요학 22』, (한국민요학회, 2008), 11쪽.

를 제외한 농업요에서는 작업의 실태에 대해 노래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며 근면을 권장하는 내용이 따르는데 그 과정에서 불만과 원망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표출하기도 하였다.

한편 오키나와는 향토가와 풍작기원요의 성향이 현저하여,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예찬하고 풍작을 예측하는 점을 반복하여 발견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개인의 삶과 감정을 담아내는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러한 대조점이 발생하는 원인을 갈등을 처리하는 태도와 방법의 차이로 보았으며, 여성에게 부과된 노동 부담의 편중성을 제기하였다. 어업요와 관망요도 전술한 특성의 연장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노래들이었는데, 오키나와 노동요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일면은 기타 노동요(여러 종류의 노동이 한 곡 안에서 불려진 노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경세/세정요는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언행을 주의해야 한다는 공통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맥락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제주도의 경세요가 '나'라는 개인을 중심으로 공동체에 대한 당부이자 경고의 노래였다면, 오키나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관계지향형' 기조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정요는 상대를 향한 애정과 그리움을 드러낸 노래가 양 지역의 정요가 갖는 보편성으로 설명된다. 그 가운데 남성이 구애의 주체가 되며 상대와의 재회를 기대하는 노래와 상대의 배신을 노래한 연가가 오키나와의 특성이라면, 제주도는 애증노래와 이별노래가 특징으로 꼽을 수 있었다.

상기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민요에서 나타난 사람들의 인생관을 각기 정리하였다. 제주도는 직접적으로 개인의 감정을 표출하면서 생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점에서 제주도인의 인생관을 적극적 인생관 또는 처세관으로 규정하였다. 오키나와는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기대를 우선순위에 두고 개인의 감정과 생활을 차선으로 두는 태도로 갈등을 대하는 방법에 주목하여 우회적 인생관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연가가 우위를 점하는 배경에는 열지적세계관이 바탕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고에서는 제주도 민요는 노동요를 중심으로 정리된 연구서를, 오키나와 민요는 가사집을 각각 텍스트로 삼은 관계로, 필자의 현장조사를 수반한 비교가 아닌 특정 관점에 초점을 맞춰 이뤄진 연구 성과를 토대로 진행한 비교인만큼 많은 한

계점을 지녔다고 여겨진다. 초보적 수준의 비교에 그쳐 연구목적에서 밝힌 “원형을 통한 본질”을 밝히는 데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비교 군으로 선정한 오키나와 민요의 번역본은 의역 및 오역 등 미숙한 부분이 여러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향후 보충·보완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자 한다.

## 국내 참고문헌

### (저/역서)

- 김영돈, 『제주도 민요 연구 上·下』, (민속원 2001).
- 김영삼, 『제주민요집』, (서울:중앙문화사, 1958).
- 다카라 벤 저, 김용의·김희영 역, 『오키나와 사람들의 한해살이』, (민속원, 2005).
- 변성구, 『제주민요의 현장론적 연구』, (민속원, 2007).
- 사키마 고에이 저, 김용의 역, 『유로설전』, (전남대학교출판부, 2010).
- 사키마 고에이 저, 김용의 역, 『오키나와 구전설화』, (전남대학교출판부, 2015).
- 양영자, 『제주민요의 배경론적 연구』, (민속원, 2007).
- 좌혜경, 『제주섬의 노래』, (국학자료원, 1995).
- 좌혜경, 『한국 제주 오키나와 민요와 민속론』, (푸른사상, 2000).
- 좌혜경, 『제주민요를 지킨 명창들』, (민속원, 2012).
- 조규익, 이성훈, 강명혜 『해녀 노젓는 소리의 본토전승양상에 관한 조사 연구』, (민속원, 2005).
- 지춘상, 『동아시아 민속학』, (민속원, 2010).
- 최성환, 『문순득 표류 연구』, (민속원, 2012).
- 최철, 『한국민요론』, (집문당, 1986).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집부, 『한국의 민속음악 : 제주도 민요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현용준, 『제주도 사람들의 삶』, (민속원, 2009).
- 호카마 슈젠 저, 심우성 역 『오키나와의 역사와 문화』, (동문선, 2008).

### (논문)

- 김경옥, 「제주목장의 설치와 운영-탐라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 4권』, (역사문화학회, 2001).
- 김현선, 「제주도 심방의 신굿과 아마미오오지마 유타 성무의례의 비교 연구」, 『실천민속학 26』, (실천민속학회, 2015).
- 민덕기, 「표류민을 통한 정보의 교류」, 『조선시대 한일 표류민 연구』, (국학자료원, 2000).
- 손승철, 「조선전기 피로·표류민송환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조선시대 한일 표류민 연구』, (국학자료원, 2000).
- 양영자, 「제주민요에 형상화된 삼승할망」, 『한국민요학 36』, (한국민요학회 2012).

- 유재일, 「한·일 민요의 비교 서설-노동요를 중심으로-」, 『한국민요론』, (집문당, 1986).
- 윤수미, 「오키나와와 제주도 무무 비교 연구」, 『한국무용연구』, (한국무용연구학회, 2011)
- 이경엽, 「당골과 노로-세습 사제의 위상 차이와 전승맥락」, 『비교민속학52』, (비교민속학회, 2013).
- 이나후쿠 미키코, 「오키나와 민속사회의 혼인의 특질과 변화」, 『호남문화연구 50』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1).
- 이예안, 「도서에서 본 뱀 설화 비교고찰-오키나와와 제주의 뱀 설화를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한국일본근대학회, 2015).
- 지춘상, 「한국과 오키나와의 민속」, 『전남대학보』, (전남대학교, 1975).
- 지춘상, 「한국과 오키나와 줄다리기의 성희성」, 『韓国と沖繩の社会と文化』, (第一書房, 1999).
- 표인주, 「오키나와 우타키와 한국 남도지역 촌락공동체 신앙 비교 고찰」, 『韓国と沖繩の社会と文化』, (第一書房, 2001).
- 홍순일, 「도서·연안지역 민요공동체의 성격과 민요의 연행양상」, 『한국민요학 22』 (한국민요학회, 2008).

#### 국의 참고문헌

- 伊波普猷, 「南島の稲作行事について」, 『沖繩文化論叢2』, (平凡社, 1971).
- 備瀬善勝·松田一利, 『沖繩のうた』 (キャンパス 2014).
- 滝沢宏美, 『現代沖繩の米農家事情』, 2007 (보고서).



# A Study on the Folksongs of Jejudo and Okinawa

Mirip Yang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Asian Culture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Inju Pyo)

(Abstract)

The folksongs of Jejudo and Okinawa were classified with work songs, songs of warning society, and love songs. Work songs are divided with agricultural songs, fishery songs and crafting songs. Mainly, Jeju's grinding songs are conspicuous in agricultural one and Hanye-Norae in fishery one. There are characterized by voice of womenkind, and various expression of emotion along to daily life. As same reason, I picked up referece group of songs of warning and love songs in work songs.

Work songs of Okinawa mostly praise their community and their members and celebrate their harvest in advance. Unlike Jeju, they have plenty of lyrics of rice-farming. However, this quality could be discovered in other work songs too. The very unique properties of Okinawa's work song is they sang plural tasks which may be conducted in different places in a singular song.

Both warning songs shares several messages, such as adequate words and deeds. But in case of Jeju is more focused on oneself than the

group, so they tend to be defensive with relationships close to themselves. On the other hand, Okinawa people have emphasized “us” and relationship-oriented.

Patterns of love songs of both of them are nearly similar, yet a couple of patterns make a difference between them. Overall, work songs are in a dominant position in folksongs of Jeju and so love songs do in Okinawa because of *Mo-asobi*.

## <부록>

### [1] <赤馬節>

いらしゃにしゃヨー  
今日ぬ日ヨー  
ヒィヤルガヒー  
どうきしゃにしゃヨー 黄金日ヨー  
ハリーヌヒィヤルガヒー  
我ん産でいるヨー 今日だらヨー  
ヒィヤルガヒー  
羽生いるヨーたきだらヨー  
ハリーヌヒィヤルガヒー

### <아칸마부시>

아 얼마나 기쁜날인가 오늘은  
히야루가히-  
굉장히 기쁜날이다 황금의 날  
하-리누 히야루가히  
내가 태어난 날은 오늘과 같은 날  
히야루가히  
날개가 돌아서 기쁘듯하다  
하-리누 히야루가히

### [2] <아가로-자부시>

아가로-자ぬ んなかによーい  
登野城ぬ んなかによ (ハリヌクガナ)  
九年母木ぬ 下なかよーい  
香りさん木ぬ 下なかよ  
ふわむりやだぬ すりゆていよーい  
だぎなだぬ ゆらゆていよ  
腕ばやみ守り ひゆらばよ  
墨書き上手 なりとうりよーい  
筆取る上手 ないとうりよ

### <아가로-자부시>

아가로자(東里村)의 한가운데에 요-이  
도누수쿠(登野城) 안에  
쿨나무 아래에 요-이  
향기로운 나무의 아래에  
유모들이 모여서 아기 안아주는 여자들이  
모여들어서  
팔이 아프게 돌봤으니 요-이 허리 아프게  
안아주었으니  
그림을 잘 그리기 바랍니다 요-이  
글을 잘 쓰기 바랍니다

### [3] <秋の踊り>

空も長月 始めころかや 四方の紅葉を  
染める時雨に 濡れて牡鹿の  
鳴くも淋しき 折りにつけくる  
雁の初音に 心うかれて 共に打ち連れ  
出づる野原の 桔梗刈る茅 萩の錦を  
来ても見よとや 招く尾花が 袖の夕風  
吹くも身にしむ 夕日入り江の 海女の衣や  
竿のしづくに 袖を濡らして 波路はるかに  
沖にこぎ出で 月は東の 山の木の間に  
今ぞほのめく

### <아키노오도리>

하늘도 음력 9월  
시작될 즈음일까 사방의 단풍  
물들이는 지나가는 비에  
젖는 숫사슴의 울음소리도 외롭구나  
그때에 알려러오는  
기러기의 첫 울음에  
마음이 들떠 함께 갔었지  
들판의 도라지, 술새 비단같은 싸리를  
와서 보라고 손짓하는 참억새가  
소매 같은 저녁 바람  
불면 몸에 베이는 후미진 저녁노을의  
어부(해녀의) 옷가지는 장대의 물방울에  
소매를 젖어가며 뱃길은 아득히  
먼바다에 저어 나가는  
달은 동쪽의 산의 나무 사이로  
지금 살그머니 보이네

[4] <あこがれの唄>

行ちぶさや大和 住みぶさや都  
 あさましや沖縄  
 変いはていてい 変いはていてい  
 大和世に變てい アメリカ世なていん  
 ぬがし我が生活  
 楽んならん 楽んならん  
 戦場ぬ後や かにんちりなさや  
 見るん聞く物や  
 涙びけい 涙びけい  
 自由に我ん渡す 舟はらちたぼり  
 若さある内に  
 急じ行かな 急じ行かな

[5] <遊びションガネー>

面影ぬでんし 立たな打ちくいりば  
 サーサーションガネー  
 スーリーションガネー  
 忘りゆる暇ん  
 あゆらやしがヤウンナ  
 サーサーションガネー  
 スーリーションガネー  
 遊び面影や までいまでいどう立ちゆる  
 サーサーションガネー  
 スーリーションガネー  
 里が面影や朝ん夕さんンヤウンナ  
 サーサーションガネー  
 スーリーションガネー

<아코가레노우타>

가고싶어요 본토에  
 살고싶어요 수도에  
 비참한 오키나와  
 완전히 변해버려서 완전히 변해버려서  
 본토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해서  
 미국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는데  
 어째서 우리의 삶은 편하지 않은 것인지  
 편하지 않은 것인지  
 전장의 끝은 이렇게도 형편없는 거다  
 보는 것 듣는 것 눈물이 나올 뿐 눈물이  
 나올 뿐  
 자유롭게 나를 건너게 해 줄  
 배를 띄워주세요  
 아직 젊을 때  
 서둘러서 가고파 서둘러서 가고파

<아소비손가네>

모습만이라도 눈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사-손가네- 스-리-손가네-  
 잊을 수도 있을텐데  
 사-사-손가네- 스-리-손가네-  
 마음 편히 놀던 사람의 모습은  
 줌처럼 떠올려지지 않지만  
 사-사-손가네- 스-리-손가네-  
 그 사람의 모습은 아침에도 밤에도 잊혀  
 지지 않네  
 사-사-손가네- 스-리-손가네-

[6] <아야구>

道ぬ美らさや 仮屋ぬ前  
 あやぐぬ美らさや 宮古ぬあやぐ  
 イーラヨ マーヌヨ 宮古ぬあやぐ 엔  
 ヤ라 스ー리  
 手紙ぬ長さや なぎ長さ  
 庭に植てるガジマル木ぬ 下葉ぬ長さ  
 イーラヨ マーヌヨ 下葉ぬ長さ 엔ヤ  
 라 스ー리  
 うばか家とう吾んたか家とう隣いやりばー  
 今日ん見り 明日ん見り かなし里よー  
 엔ヤ라 스ー리  
 宮古から船出ちゃち 渡地ぬ前ぬ浜に  
 直ぐはいくまち  
 イーラヨ マーヌヨ 直ぐはいくまち 엔  
 ヤ라 스ー리

<아야구>

길이 아름다운건 가이야의 앞  
 노래가 아름다운건 미야코의 노래  
 이-라요 마-누요 미야코의 노래 엔야라 스리  
 손수건의 길이는 기다림의 길이와 같은 것  
 마당에 심어진 가지마루 나무의  
 아랫잎의 길이와 같지  
 이-라요 마-누요 아랫잎의 길이 엔야라 스리  
 당신의 집과 내 집이 나란히 있다면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볼텐데  
 사랑스러운 사람이여  
 엔야라 스리  
 미야코에서 배를 띄워  
 와탄지 앞 바다에 바로 거기에 있으면 하네  
 이-라요 마-누요 바로 거기에 있으면 하네  
 엔야라 스리

[7] <伊佐へいヨ>

(男) 伊佐へいヨー 汝た一家や  
 何処ぬまんぐらが  
 (女) 道ぬ十字路 ゆうなぬ下ど  
 伊佐へいヨー ヤラシクイクイ  
 (男) 伊佐へいヨー 津堅ぬ美童  
 渡しぶさぬ  
 伊佐へいヨー ヤラシクイクイ  
 (男) 伊佐へいヨー 汝た一家とう  
 隣いやとてい  
 今日ん明日ん 語れ欲さぬ  
 伊佐へいヨー ヤラシクイクイ  
 (男) 伊佐へいヨー 好かんどう我んねえ  
 後なち 立っちょうるい  
 (女) 好かのーあらんさ  
 肝ちゃーがなさぬ 伊佐へいヨー  
 (男) あん やりわどうやる

<이사헤이요>

(남) 이사헤이요-네 집은 어디쯤이니  
 (여) 길의 네 귀퉁이 유-나 나무 아래에  
 요 이사헤이요- 야라시쿠이쿠이  
 (남) 이사헤이요 지킨섬과 구다카섬을 배  
 다리로 걸쳐서 지킨섬의 아름다운 아가씨  
 를 건너보고 싶네 이사헤이요- 야라시쿠  
 이쿠이  
 (남) 이사헤이요 네 집과 이웃이라면 오늘  
 도 내일도 이야기를 하고 싶네  
 이사헤이요- 야라시쿠이쿠이  
 이사헤이요- 싫어서 나한테 등을 돌리고  
 서 있는거니  
 (여) 싫어서 그런게 아니에요 어쩐지 쓸  
 쓸해서 그래요 이사헤이요-  
 (남) 그런 것이라면 나도 그렇다네

[8] <이치ゅび小>

いちゅび小にふりてい  
 座喜味村通てい  
 通ゆてい通いぶさ 喜名ぬ番所  
 サー思やがちょん かなしが来ようん  
 いちゅび小やなじき かなし思りに  
 思事ぬあていどう 毎夜通てい  
 サー肝ならんさ 戻いどうすがや  
 目眉小に一惚れ 歯口小に一惚れ  
 腰小に一惚れ ちんとう三惚  
 サー色美らさぬ 忍びがちゃんで一  
 通るがな通ゆてい 自由ならんありば  
 神仏ていしんあていぬならん  
 サー思やがちょん かなしが来ようん

[9] <稲しり節>

今年毛作いや あん美らさゆかてい  
 稲しりしり 米ゆりゆり  
 チュリユリユリ チュリユリユリ  
 倉に積ん余ち 真積んさびら  
 銀なかい 黄金じく建ててい  
 試し摺り増する雪の真米  
 はまていしりよ姉の建  
 しちゅまかみさらや

[10] <大村御殿>

大村御殿ぬ 角なかい  
 耳切坊主ぬ 立っちょんどー  
 幾人いくたい たっちょがやー  
 みっちゃい ゆったい たっちょんどー  
 イラナンシーグん 持っちょんどー  
 泣ちゆる童 耳グスグス  
 へいヨー へいヨー 泣かんど  
 へいヨー へいヨー 泣かんど

[11] <かぎ야で風節>

今日のほこらしゃや なほにぎゃなたてる  
 蕾で居る花の 露き야たごと

<이츄비구와>

이치고양에게 반해서 자치미 마을을 지나,  
 지나서, 지나고과 치나의 관서에  
 사-그리는 사람이 왔다 사랑하는 이가 왔다  
 딸기 따기는 변명이지 사랑하는 이의 마을에  
 마음이 생기고 나서는 매일 밤 다니지  
 사-몰래하지 않아요 돌아갈까나  
 눈썹에 반하고 치아에 반했네  
 허리에 반했네 딱 세 번 반했네  
 사-색이 고와 몰래 왔다네  
 다닐 수 있는 만큼 다니고  
 자유롭지 못하다면  
 신, 불도 의지할 것 못되지  
 사-그리는 사람이 왔다 사랑하는 이가 왔다

<이니시리부시>

올해 농작은 저렇게도 훌륭하게 열매 맺  
 어 벼 시리시리 쌀 시리시리  
 츄리유리유리 츄리유리유리  
 창고에 쌓고도 남아 벗가리 합시다  
 은 절구에 황금 축을 세워서  
 시험삼아 비벼 늘려 감시다 눈과 같은 쌀  
 힘내서 비빔시다 아가씨들  
 이제 막 거둔 쌀을 주자

<우후무라우돈>

촌장이 있는 저택인 우후무라우돈의  
 모서리마다 귀를 자르는 스님이 서있어요  
 몇 명이나 서 있는 거지요  
 셋도 넷도 서 있어요  
 낫도 작은 칼도 가지고 있어요  
 우는 아이의 귀를 슬근슬근  
 헤이요 헤이요 울지마  
 헤이요 헤이요 울지마

<가기야데후부시>

오늘의 기쁨은 무엇에 빚낼 수 있을까  
 부풀어오른 꽃망울에 이슬이 만난 것과  
 같구나

[12] <勝連節>

サーサー勝連ぬ島や  
 ハーリガ 又勝連ぬ島や  
 イヤヨ 通いぶさ あしが無蔵よ  
 サーサー和名間門ぬ朝ぬ  
 ハーリガ和名間門ぬ朝ぬ  
 イヤヨ きやいあぐ あぐでいよ無蔵よ  
 サーサー勝連ぬ島や  
 ハーリガ 又勝連ぬ島や  
 イヤヨ 通いぶさ あしが無蔵よ

<가치린부시>

사-사-가츠린의 섬이여  
 하-리가 다시 가르친의 섬이여  
 이야요 다니고싶어도

[13] <加那ヨ一天川>

加那よ 面影ぬ立ていばよ 加那よ  
 宿に居らりらぬ  
 でいちゃよ 押し連りてい 加那よ  
 遊でい 忘りらな  
 加那よ 貫木家ぬ離屋よ 加那よ  
 手拭 布立ていてい  
 我が思る里によ 加那よ 情 呉らな  
 加那よ 情呉るびけいよ 加那よ  
 手拭 呉てい何すが  
 腰くんしみるよ 加那よ ミンサ 呉らな  
 加那よ 遊でい忘りみよ 加那よ  
 思勝てい行ちゆさよ 加那よ  
 ありが情  
 でいあん小 とうんけ一れ

<가나요 아마카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니  
 집에 있을 수 없네  
 자, 데려가줘요 사랑하는 사람이여 놀고  
 잊어버립시다  
 손수건을 짜서  
 내가 생각하는 당신에게 사랑의 증표를  
 주고 싶소  
 연인이여 증표를 줄 뿐이에요  
 손수건을 주면 어떨지요  
 허리를 강하게 매는 띠를 주고 싶어요  
 연인이여 놀아도 잊지 마요  
 마음이 커져만 가요  
 그 사람의 증표

[14] <国の花>

親ぬ染みなちえる 枕我ねすていていよ  
 軍人ぬ里とう 契りさしが  
 聞ちぶさや里が 里が便い  
 里や白雲い 風吹ちゆるままによ  
 今や北満ぬ 草葉枕  
 国ぬ花でむぬ 我んや泣かん  
 千里離りていん 夢路あら里前よ  
 夢しちく見してい 知らちたぼり  
 国ぬ花でむぬ 我んや泣かん

<구니노하나>

부모가 물들인 베개를 나는 버리고  
 군인인 당신과 맹세를 했는데  
 듣고 싶어요 당신의 소식을  
 당신은 흰 구름일까  
 바람이 부는대로  
 지금은 북만주의 풀과 잎사귀 베개  
 나라의 꽃이니 나는 울지 않아  
 천리 떨어져 있어도 꿈길이 있다면  
 당신에게 꿈에서 깊이깊이 알려주세요  
 나라의 꽃이니 나는 울지 않아

[15] <久米阿嘉節>

阿嘉ぬひち水や  
上んかいどう吹ちゆる ユイサーユイ  
かまど小が肝や 上い下い ユイサーユイ  
クフィン小のう酒 ゆらてい呑みなりてい  
ユイサーユイ  
明日や面影の立ちゅとみば ユイサーユイ

[16] <小浜節>

小浜ている島や 果報ぬ島やりば  
大岳ば後でい 白浜前なし  
大岳に登てい 押し下し見りば  
稲粟ぬ実うり 弥勒世果報  
稲粟ぬ色や 二十歳頃 美童  
粒美らさあていどう 御初上ざる

[17] <クラハ山田>

(男) クラファ山田ぬ 美ら刈小 世間音  
高さ ウチファイファイ シーチョンチョン  
(男) 煙草吹ちがや 我ねあらん  
思い 思い語らなや  
(女) 此処居とうてい うひな一なー  
あびみせーねえ 大事やしが  
あまんかい 入みそうり  
(男) 汝が事ゆ思てい あがとからくがと  
云言葉に なりてい呉り  
(女) 云言葉んねらん 思い思い知やびらん  
此処居とうてい うひな一なー  
あびみせーねえ 親兄弟に 聞かりいねえ  
大事やしが  
(男) あきよ自由ならん 事ゆ又やりば  
此処居とうてい 死ぬしどうまし  
(女) 命までいかきてい 死ぬどうたきや  
りば 云言葉に なりやりば

<구메아카부시>

아카의 폭포 물은  
위로 내뿜지 유이사-유이  
가마도의 마음은 올랐다가 내려갔다  
흔들린다네  
이런 적은 술이라도  
가까이 모여 함께 마시는 풍습이 있어서  
유이사- 유이  
내일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생각하니까  
유이사- 유이

<구모부시>

구모우마라는 섬(마을)은 행운의 섬이라  
서 크고 높은 산은 뒤에 있고  
백사장은 앞에 있네  
높은 산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면  
벼와 밤이 익어서 풍년이네  
벼와 밤의 색은 스무살 계집애  
알이 예쁜 것만 골라 첫 상납으로

<구라하야마다>

(남) 구라하 야마다의 아름다운 노로는  
세간에서 유명하지 우치후이후이 시-총총  
(남) 담배를 피러 온 게 아니요  
내 연모하는 마음을,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여) 거기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시면  
큰일이니 저쪽으로 들어가세요  
(남) 당신을 생각해서 저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먼 곳까지  
나의 말로 우리가 친밀해지길 바라요  
(여) 말도 안 나오고 당신의 마음도 모르  
겠어요 거기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시면  
큰일이니, 부모 형제에게 들려 큰일나요  
(남) 에-자유로울 수 없다면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소  
(여) 목숨까지 버릴 정도라면  
당신 말대로 하시죠



[18] <国頭ジントーヨー>

如何な山原ぬ枯木島やていんヨ  
参り参り里前 ジントーヨー  
花ん咲ちゅさ ジントーヨー 花ん咲ちゅさ  
無蔵が云る如に 山原に來りばヨ  
野山若々とう ジントーヨー  
眺み美らさ ジントーヨー 眺み美らさ

<군잔진토-요->

어떠한 안바루의 가리키시마여도  
오세요 오세요 당신 정말로요  
꽃이 피어요 정말로요 꽃이 피어요  
당신이 말해서 안바루에 오니  
들과산은 파릇파릇하고 정말로요  
풍경이 아름다워요 정말로요  
풍경이 아름다워요

[19] <サーサー節>

サーサー月ぬ夜やさやか  
寝ていん寝んだらん  
友びうし連りていスリ 遊びぶさぬ  
サー近寄てい來うよ一思無蔵よ  
サーサーでちゃよ うし連りてい  
眺みやい遊ば 今宵や名に立ちゆるスリ  
十五夜でむぬ

<사-사-부시>

사-사-달밤은 맑아 자려해도 잠들 수 없네  
친구들을 데리고 놀고 싶어 참을 수 없네  
자-가 가까이 다가오세요 그대여  
사-사-거느리고 서로 바라보면서 놀자  
오늘은 그 유명한 십오야이니까

[20] <白骨節>

白骨になやい 白浜ぬ砂とう  
共によ一骨や さらさりていでんし  
惜しむ身やねさみ 互に思極み  
里とうよ一手ゆ連りてい  
海に身ゆ投ぎてい  
離すなよ死出ぬ 旅に行く迄や  
儘どや一一道なてい 言ちやる云語れや  
堅く信じていど 命や捨ていたしが  
里やよ一肝変てい 死ぬる命惜しでい  
かかりわん離す しがりわん押し離ち  
無情によ一我ん一人荒波ぬ仲に  
捨ててい行方ねらん

<시라구치부시>

나는 백골이 되어 백사장의 모래와 함께  
빠는 바래져서  
애석해할 사람은 없다  
함께 죽음을 결심하고 손을 마주잡고  
바다에 몸을 던져 놓지말아요  
죽음으로 나가는 여행을 떠나기까지는 함  
께예요 우리는  
일심동체라고 말했던 약속은  
굳게 믿었기에 목숨도 버렸건만  
그 사람은 마음이 변하여 죽을 목숨도 아  
까워하고  
매달려도 잡아도 뿌리치고  
무정하게도 나는 홀로  
거친 파도 속에 버려져서  
행방불명이 되어서

[21] <新宮古節>

今ぬ世間の一大事なむん  
親戚後なち 与所とうる  
仲良くする人あゆん やくとう人ぬ達や  
貧乏やそーてん 親戚や捨ていんなよ  
馬や乗りわる 知らりゆる

<신미야코부시>

요즘 세상은 큰일이야  
친척에는 등을 돌리고  
모르는 사람과는 사이 좋게 지내는  
이들이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빈곤해도

人の心やひらている 知らりゆる  
 やくとう人ぬ達や  
 今ぬ世間の一悪欲持たらんど  
 肝知らぬ人ぬ やーてーひーて  
 甘口聞かちん 肝内呉るなよ  
 やくとう人ぬ達や  
 一番甘口 後から辛むんど  
 金銭の故どう 親とうん兄弟とうん  
 友とうん くふあゆんど やくとう人ぬ達や  
 貧乏やそーてん ちりふあどう第一ど

친척은 버리는 게 아니라  
 말은 타 봐야 알 수 있듯이  
 사람의 마음은 사겨 봐야 알 수가 있다  
 요즘 세상은 나쁜 욕구를 가질 수 없지  
 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이러쿵저러쿵 입에 발린 소리를  
 들어도 속내를 보이지 마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엔 좋은 소리,  
 나중에는 싫은 소리를 하지  
 금전 때문이야말로  
 부모와도 형제와도 친구와도  
 사이가 안 좋아지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난해도  
 금전의 분간이 첫 번째라

[22] <じんじん>  
 じんじん じんじん  
 さかやぬ みじくわてい  
 うていりよーじんじん  
 さがりよーじんじん  
 じんじん じんじん  
 ちぶやぬ みじぬでい  
 うていりよーじんじん  
 さがりよーじんじん

<반딧불이>  
 반딧불이 반딧불이  
 술집의 물을 먹고  
 떨어져라 반딧불이  
 내려가라 반딧불이  
 반딧불이 반딧불이  
 츠보야의 물을 먹고  
 떨어져라 반딧불이  
 내려가라 반딧불이

[23] <砂持節>  
 阿良ぬ浜砂やよ 持ていば禁じらりてい  
 (ゼイサー ゼイサー ゼイサー)  
 たんで西泊 ハイヨ 持たちたぼ  
 (ゼイサー ゼイサー ゼイサー)  
 畑やハンタ原 道やクビリ道

<스나모치부시>  
 아라의 바닷모래는  
 가져가지 못하게 금지되어 있어서  
 부탁드립니다 이리도마이 가져가게 해주세요  
 밭은 험악한 고지의 밭  
 길은 조그마한 언덕배기

[24] <다이사나ジャー>  
 (女) 東方ウスメ 藁サナジかきてい  
 目くす垂いかんてい 芋練又前なち  
 ぐわ缶々持ち 何処んかい行めが  
 (男) 又ん鯨ぐぬ 寄ていが又居ゆら  
 (女) あんまさみウスメ アチビうさがゆみ  
 (男) あねるアチビ臭さぬ 誰が又喰ゆが

<다이사나자- >  
 (여) 동편의 할아버지 짚으로 만든  
 훈도시를 차고  
 눈썹은 잔뜩 꺾서 고구마(토란)떡을  
 또 만들고 있네  
 (여) 그런 큰 통을 가지고 어디로 가십니  
 까?

ちんけえらし げえらし  
尻たっちゅうしみてい

[25] <だんじゅかりゆし>  
だんじゅかりしゅや(さーかりゆし)  
いらでさしみせる  
(さーさーかりゆし はっちょーい)  
船ぬ網取りば 風やまとうむ  
かりゆしぬ船に かりゆさ小乗してい  
旅ぬ行ち戻い 糸ぬ上から  
面花咲くかち とうむにしぢ引かち  
かりゆしぬ船ぬ 走るが美らさ

[26] <谷茶前>  
谷茶前ぬ浜に  
スルル小が寄ていていんどへ이  
スルル小が寄ていていんどへ이  
ナンチャマシマシ  
ディアングワソ이ソ이  
ディアングワソ이ソ이  
스ルル小やあらんよ  
大和ミジュンどう やんていんどへ이  
大和ミジュンどう やんて이んどへ이  
アフィー達やうり取いが  
姉小やかみていうり売いがへ이  
姉小やかみていうり売いがへ이  
うり売て이戻이ぬ 姉小が  
匂이ぬ 匂이ぬしゅらさへ이  
匂이ぬ 匂이ぬしゅらさへ이

[27] <鶴龜節>  
千年経る松ぬ 緑葉ぬ下に  
鶴龜ぬ 舞い遊ぶ  
龜が歌しりば 龜や舞方  
鶴龜ぬ 舞い遊ぶ  
若松ぬ緑 床ぬ前に飾てい  
鶴龜ぬ 舞い遊ぶ  
枝見りば銀 真や黄金

(남) 또 고래들이 몰려오지 않느냐  
(여) 속이 안좋아요 할아버지? 죽을 좀  
드시겠습니까?  
(남) 그런 죽은 냄새가 고약한데 누가 두  
번이고 먹겠나  
옷을 갈아입혀라 갈아입혀  
영덩이를 두들겨라

<단쥬카리유시>  
매우 길한 날을 택해 출항을 하네  
배의 그물을 잡으면 바람은 순풍  
길한 배에 길한 것을 태워서  
여정의 귀로는 비단길 위를  
꽃을 피워 함께 신의 영력을 부르자  
길한 배의 나아감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단차메>  
단차 앞 바다에  
셋줄멸치가 모여 있다네 헤이  
셋줄멸치가 모여 있다네 헤이  
난차 마시마시  
디안구와 소이소이  
디안구와 소이소이  
셋줄멸치가 아니야  
야마토 미즌이야 양탄도헤이  
야마토 미즌이야 양탄도헤이  
총각들은 청어를 잡기 위해  
처녀들은 머리에 이고 팔기 위해 헤이  
처녀들은 머리에 이고 팔기 위해 헤이  
팔고 돌아온 처녀들의  
향기는 사랑스럽다네 헤이  
향기는 사랑스럽다네 헤이

<쓰루카메부시>  
천년이 넘은 소나무 푸른 잎 아래에  
학과 거북이 춤추며 노네  
거북이가 노래하면 학은 춤을 추네  
학과 거북이 춤추며 노네  
여린 푸른 잎 마루 앞에 장식하고  
학과 거북이 춤추며 노네  
가지를 보면 은 가지 끝은 황금이구나

[28] <댄서-節>

デンサー節作てい 童ん達に詠まち  
 世間ぬ戒み 成ゆしどう 我んね願ゆる  
 うふやぬなんてんばなくなだ  
 ぬきやぬなんてんばなくなだ  
 きむぐくるみやでいくまゆゆみくだ  
 うやふあかいしゃふあから  
 きょうだいかいしゃうとうとうから  
 きないむつかいしゃゆみぬふあから  
 いきがややぬなかばしら  
 いなくややぬかがん  
 くるちばしらとかがんにすなわり  
 むぬいいざばつつしみよ  
 ふつぬふかからんだすなよ  
 んだていから야また야ぬみやならぬ  
 いきがややぬなかばしら  
 いなくややぬかがん  
 くるちばしらとか가んにす나わり

[29] <とうばら-ま>

仲道路から七けーら通け  
 仲筋かなしゃーま相談ぬならぬ  
 かなしゃままことのむぬゆやらば  
 唄ば聞き走りきんだらよ  
 思て通らば千里も一里 又も戻らばもとの千里  
 紺染みや籃しどう染める  
 かなしゃどうばんとうや肝しどう染める  
 染みて染みらば花の紺染め  
 浅染みや許したぼり  
 川ぬ水や海にうたまる  
 我んが思いやうらにどう染まる  
 月と太陽とやゆぬ道通りよる  
 どばら-ま心んびとう道ありたぼり

<댄사부시>

교훈가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읽혀  
 세상에서 귀중하게 전해져 온 훈계를 잘  
 타이르는 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이것을 전해두겠습니다  
 부자라서 시집을 간 것이 아니야  
 가난해서 시집을 간 것이 아니야  
 당신의 마음씨가 고운 것을 보고 나는  
 시집을 간 것이야  
 이일을 전해두겠습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의 좋고 나쁨은 아이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형제 관계의 사이가 좋고 나쁨은 아우가  
 얼마만큼 형을 존경하느냐로 알 수 있지  
 가정의 사이가 두터웁은 며느리가 키우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이일을 전해두겠습니다  
 남자는 한 집을 받치는 귀한 대들보지  
 여자는 가정 안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지  
 훌륭한 검정나무 기둥과 잘 닮인 거울로는 좋  
 은 가정에는 항상 서로 구비되어 있는 것이지  
 이일을 전해두겠습니다

<도바라-마>

나카도미치를 몇 번이고 지나도  
 오키스지의 그녀와 사랑 이야기를 나눌 수 없네  
 당신이 진심이라면 노래를 들으러 달려와 주오  
 생각하고 가면 천리도 일리  
 다시 돌아간다면 도로 천리  
 곤색 염색은 쪽으로 들이지  
 당신과 나는 마음으로 서로 물들이지  
 물들여 물들인다면 꽃으로 곤색 물 들이지  
 아사지 염색은 허용해주세요  
 강물은 바다에 쌓이네  
 내 마음은 당신에게야말로 물드네  
 달과 태양과는 같은 길을 가네  
 당신의 마음도 나도 같은 길이도록 해주세요

[30] <仲里節>

聞きば仲里や  
花ぬ元でむぬ  
咲ち出らば一枝  
持たちくるていたぼり

<나카자토부시>

듣자하니 나카자토는 화려한 땅이므로  
피기 시작하면 한 가지 가져다주세요

[31] <仲島節>

仲島ぬ小橋 あいん有る小橋よ  
ちるが小橋やら 定みぐりしゃ  
仲島ぬ浦ぬ 冬ぬ寂しさやよ  
千鳥鳴く声に 松ぬ嵐  
例い仲島や 音絶いてい居ていんよ  
いやし忘りゆが 恋ぬ小橋

<나카시마부시>

나카시마의 작은 다리  
저렇게나 있는 작은 다리  
어느 것이 약속한 다리인지 정하기 어렵네  
나카시마 포 겨울의 쓸쓸함은  
새들의 울음소리에 소나무 광풍  
만일 나카시마의 소리가 끊긴다고 하여도  
이야기는 잊히지 않네 사랑의 다리

[32] <情の唄>

(女)思いある仲どう まちぶいんすゆる  
ぬがし思里や 面ぬ変てい  
我思いん あだなすみ  
(男)思いあだなする 我んやまたあらん  
義理にちながりる 無蔵とう我んや  
思いるまま 自由らん  
(女)昔ふりむんね 言ちえるくとう守てい  
義理ていしや何やが 染みていたぼり  
我思いん あだなすみ  
(男)ありん捨ていららん くりん投げいららん  
あひゃんがれ二人 染みていんだな  
思いるまま 染みなさや  
(女)干瀬に居る鳥や 満潮恨みゆい  
我んや曙ぬ 鳥どううらむ  
思いるまま 自由ならん

<나사케노우타>

(여) 마음이 있는 사이야말로 떨어질 수 없  
네 어째서 당신은 얼굴색이 변해서 내 마  
음도 헛수고로 그치게 하나요  
(남) 마음을 헛수고로 돌아가게 하지 않아  
하지만 의리로 맺어진 당신과 나는 생각대  
로 자유로울 수 없네  
(여) 예전에 바보의 말은 지키고 의리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음을 쏟아주세요 제 마  
음도 헛수고로 그치게 할 건가요?  
(남) 그것도 버릴 수 없어 이것도 내팽길 수  
없어 어떻게든 되라 두 사람 마음을 쏟아보고  
싶네 생각대로 자유로워질 수 없네  
(여) 썰물 때 있는 새는 밀물을 원망하듯  
나는 새벽을 알리는 닭이야말로 원망하네  
생각대로 자유로워질 수 없네

[33] <나-しび節>

実りよ実り茄子 姑ぬ家ぬ茄子  
実らなそうてい茄子 嫁名立ちゆみ  
うみ働り働り うみ働ていぬすが  
明日や出じゃさりる 嫁ぬくれぬ  
明日や出じゃさりる嫁ぬ身ややていん  
居る間ぬ努み はまていさびら  
嫁からどうアンマー姑んていいめる  
うんじゅびちあていてい 愛さみしより  
鳥歌てば明きる 夏ぬ夜どうやしが

<나-시비부시>

열러라 열러 가지야  
시택의 가지야 열리지 않으면  
며느리 체면이 스지 않겠지  
힘내어 일해, 일해  
힘내어 일해서 어쩔 참인가  
내일은 내팽겨져칠 며느리의 신분인데  
내일은 쫓겨날 며느리의 몸이지만  
시택에 있는 동안에는 힘을 내어 일을 합시다  
며느리에서 의붓어머니도 시어머니가

ぬがし姑びれや 明かしぐりしゃ

[34] <なりやまあやぐ>

サーなりやまや なりていぬ なりやま  
すうみやまや すみていぬ すうみやま  
イラユマーン サーヤヌ  
すみていぬ すうみやま  
サーなりやま むみやいすてい  
なりぶり さますな主  
すうみやま むみやいすてい  
すうみぶり さますな主  
イラユマーン サーヤヌ  
馬ん乗らばたずなゆるすな主  
美童家行き心ゆるすな主  
馬ぬ美しゃや白さど美しゃ  
美童美しゃや色ど美しゃ  
ぶり押し波や 笑いど押しず  
ばんぶなりや 笑いどむかい

[35] <南洋浜千鳥>

旅や浜宿い 草ぬ葉ど枕  
寝ていん忘らん 我親ぬ御側  
アネ千鳥よ 浜居てチュイチュイな  
旅宿ぬ寝覚み 枕側立ていてい  
思ひ出すさ昔 夜半ぬ辛さ  
アネ千鳥よ 浜居てチュイチュイな  
渡海やひじゃみていん 照る月や一ち  
彼処ん眺みゆら 今宵ぬ空や  
アネ千鳥よ 浜居てチュイチュイな  
柴木植てい置かば しばしばとういもり  
真竹植てい置かば 又んいもり  
アネ千鳥よ 浜居てチュイチュイな

[36] <貫花>

でいちゃよ押し連りてい 圃花摘いが  
花や露頂みてい 摘いやならん

되었습니다 당신도 자신의 일이라 여겨  
제게 상냥하게 해주세요  
새가 울면 아침이 되는 여름밤인데  
어찌하여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밝아지지  
않을까

<나리아마 아야구>

나레산은 익숙한 산  
시메산은 물들은 산  
익숙한 산에 가시어  
너무 익숙해지지 않도록 당신  
물든 산에 가시어 너무 물들지 않도록 당신  
말을 타신다면 그물을 놓지마세요 당신  
여자의 집에 가고 마음은 주지마세요 당신  
말이 아름다운 건 하에서 아름답고  
여자가 아름다운 건 교태가 있어서 아름답네  
부딪혀 거둬 다가오는 파도는  
웃으며 다가오네  
나는 아내로서 웃으며 맞이하리

<난요하마치도리>

여행은 바다에 숙박을 두고  
풀잎 베개 잠들 수 없는 내 부모님 곁  
새들은 바다에서 츄이츄이  
여행길 숙소에서 눈이 뜨여 베개를 비스듬  
히 하고 옛일을 생각하네  
이러한 밤중은 얼마나 괴롭던가  
새들은 바다에서 츄이츄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어도 비추는 달은 하  
나 그 사람도 바라보고 있겠지 지금 이 하늘을  
새들은 바다에서 츄이츄이  
빨나무를 심어 두니 종종 와주세요  
참죽을 심어두니 오셔서 우리 만납시다  
새들은 바다에서 츄이츄이

<누치바나>

자 함께 가서 밭의 꽃을 따러  
꽃의 이슬을 띄우고 있어 딸 수는 없어

白瀬走川に 流りゆる桜  
榭てい思里に 貫ちゆいはきら  
赤糸貫花や 里に打ちはきてい  
白糸貫花や ゆ得り童

[37] <鶯ぬ鳥>

綾羽ば 生らしょうり  
びる羽ば 産だしょうり  
バスィヌ トィリヨーニ バユガバスィ  
正月ぬ 朝  
元旦ぬ 朝ばな  
バスィヌ トィリヨーニ バユガバスィ  
東かい 飛びちいけ  
太陽ばかめ 舞いちいけ  
バスィヌ トィリヨーニ バユガバスィ

[38] <鳩間節>

鳩間中森 走い登り  
クバぬ下に 走い登り  
かいしゃムりたる 森ぬクバ  
美らさちじたる 頂ぬクバ  
前ぬ渡ゆ 見渡しば  
往く船来る舟 面白え  
稲積ちんちき 面白や  
栗ばちんちき さてい見事

[39] <花笠節>

花笠造やい 面顔隠ちよてい  
梅の匂いやーレ 里とう我が仲  
忍ばんむんぬん 我がうていちちゆみ  
手紙ぬ来ゃんてん 御状ぬ来ゃんてん  
我がうていちちゆみ야ーレ 杉並びてい  
云ち聞かさんむん 我がうていちちゆみ  
深山ぬ鶯 初春待ちかに  
朝露すゆさ야ーレ 老いも若きも  
野原に出じとてい 遊ぶ嬉しゃ

시라시하이카와에 떠내려 가는 벚꽃을 주워  
사랑스러운 당신에게  
벚꽃을 실로 이어 목에 걸자  
붉은 실 누치 꽃은 당신 목에 걸고  
흰 실 누치꽃은 받아 아이에게

<바시누토이>

비단과 같이 아름다운 날개를  
날으시어 주렁주렁한 독수리 알을  
부화하시어  
독수리 빙니다 독수리  
정월의 이른 아침  
1월 1일 새벽녘에  
독수리 빙니다 독수리  
동녘에 날아가  
태양을 받아 춤추며 가서  
독수리 빙니다 독수리

<하토마부시>

하토마섬의 나카오카에 달려 올라가  
빈랑나무 아래에서 달려 올라가  
아름다워라 솟아있는 동산의 빈랑나무  
아름다워라 줄지어 있는 정상외의 빈랑나무  
앞 바다를 내다보면  
가는 배 오는 배 재밌어라  
벼는 쌓아 올리고 재밌어라  
밤은 쌓아 올려 훌륭하구나

<하나가사부시>

꽃 샷갓을 만들어 얼굴을 가리우고 있고  
매실의 향기  
당신과 나 사이는 몰래 만나지 못하는데 나  
는 태연할 수 있을까  
편지가 와도 서문이 와도  
나는 태연할 수 있을까  
베개를 나란히 하고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데 나는 태연할 수 있을까  
깊은 산의 피꼬리는 초봄을 몹시 기다리며 아  
침이슬을 마시네  
늙은이도 젊은이도 들판에 나가서 노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40] <華ぐるま>

人情ぬしてい みぐり華ぐるま  
 真肝しち結ぶ なりし御縁  
 華ぐるま乗やい 想いやふあやふあとう  
 行ちゆる先方や 花ぬ都  
 くびり道やていん 迷い道やていん  
 人情ありば 夢ぬ大道  
 若さ大道に 華ぐるま走らち  
 人心知ゆる なりし浮世

[41] <浜育ち>

よ一我んね 生まれ落ちていから  
 よ一我んねアンマ居らん悲しさよ  
 悲しい唯一人 我った主  
 物ん見だん 哀りさよ  
 浜千鳥友連りてい遊ぶ よ一千鳥  
 我んね親連りてい 釣りどうする  
 白波ぬ音ん よ一我んね  
 アンマ声とう思てい 我んね聞ちゅん

[42] <漲水ぬクイチャー>

保良真牛 沖縄から上り参ば  
 宮古皆ぬ三十原ぬ男達や  
 ヒラとらだ カニや押さだゆからでだら  
 漲水ぬ 船着ぬ 砂んなぐぬ  
 漲水ぬ 船着ぬ 白砂ぬ  
 栗んななり 米んななり 上ゆりくば 上  
 がりくば  
 大神島后フジ並び 折り波小ぬ 白波小ぬ  
 糸んななり かしんななり 上ゆりくば  
 上がりくば  
 島皆ぬ 三十原ぬ 姉小たや  
 ぶやんうまだ かしやかきだ ゆからでい  
 だら

[43] <繁昌節>

だんじゅとうゆまりる

<하나구루마>

사람의 정을 싣고 돌아라 화려한 수레야  
 진심을 이어주는 친밀한 연  
 화려한 수레에 실어 마음을  
 쉬이, 쉬이 가는 곳에는 화려한 도시가  
 작은 언덕길이어도 해매는 길이어도  
 인정이 있으면 꿈결같은 큰 길이지  
 젊음은 큰 길로 사람의 정을 태워서  
 화려한 수레를 달리게 하여  
 인심을 알 수가 있다네  
 친밀한 이 세상 속을

<하마소다치>

있잖아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있잖아 나는 엄마가 없었어 슬프게도 말이지  
 슬프게도 단 하나뿐인 내 아버지는 앞이  
 안보여 불쌍하게  
 바다새는 친구들을 데리고 노네  
 있잖아 새들아  
 나는 아버지 모시고 낚시를 할 뿐이야  
 하얀 파도의 소리도 있잖아 나는  
 엄마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듣는거야

<하리미즈누쿠이차->

오키나와에서 돌아오면  
 미야코 모든 삼십여 마을의 남자들은  
 섬의 모든 삼십여 마을의 형님들은  
 뻘인두를 쥐지 않고, 팽이를 잡지 않고도  
 농사를 잘하지  
 하루미즈의 선착장의 모래들은  
 밤이 되고 쌀이 되어 올라오네  
 오카미섬의 뒤편 야비시에 몰려드는 파도가  
 실이 되고 실패가 되어 올라오네  
 섬의 모든 삼십여 마을의 언니들은  
 모시풀을 만들지 않고도 실패를 걸지 않고도  
 잘 짓지

<한쵸부시>

참으로 유명한 사키다 섬은



崎枝ぬ島や黄金むるくさでい  
 田ぶく前なし  
 作てい実らしやる稲刈ゆる人や  
 若者ぬまぎりさらばさらば  
 崎枝女童や水故がやゆら  
 色姿うちやてい なる美らさ

황금언덕을 뒤에 (두고)밭은 앞에 두었네  
 경작하여 결실 맺은 벼를 베는 사람은  
 젊은이가 뒤섞여 길한 일이라도  
 사키다의 처자들은 물 때문인가  
 오염과 품위를 검비해서  
 얼마나 성숙하고 아름다운가

[44] <帽子くまー>

(女) あたま小や造くてい ぬちさぐや知らん  
 かなし思りに 習いぶさぬ  
 サー習いぶさぬ  
 (男) 天止みてい呉らば 我が妻になゆみ  
 (女) くみあぎてい呉ていん 妻やならん  
 (男) サーにんぐる小どうすんな  
 (女) 天や我がたまし やまだきやうん  
 じゅ 縁なりば里前 二人しくまや  
 サー二人しくまや  
 (男) 一本針や 押すてい 二本取てい  
 なぎてい何時が組み上げてい 耳小抜ちゅら  
 サー天小胴小縁小耳小取てい耳抜かや  
 (男女) 帽子組ま哀り 組まんしが知ゆみ  
 勘定前になりば さら夜明かち サー  
 さら夜明かち

<보시쿠마->

(여) 모자의 가장 윗부분을 만들어 짜는 방법을 몰라 사랑스러운 당신에게 배우고 싶어라  
 (남) 모자머리를 만들어주면 내 아내가 될래?  
 (여) 짜는 법을 알려주어도 아내는 되지 않을거야  
 모자 머리의 뚜껑은 내 마음이고 그 높이는 당신이  
 지 이것도 연이니 당신과 둘이서 모자를 짜봅시다  
 (남) 첫 번째 앞을 누르고 두 번째 앞으로  
 위를 이으면 언제 다 짜서 모자의 모서리까지  
 만들까 자, 모자머리 모자높이에 모자챙,  
 가장자리를 잡고 모자 모서리를 짜보자  
 (남녀) 모자를 만드는 사람은 불쌍해라 만  
 들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네 납기일 전  
 에는 밤을 새서 자- 밤을 새서

[45] <三村節>

小禄 豊見城 垣花 三村  
 三村ぬアン小達が揃とうてい  
 布織い話 あやまみぐなよ  
 元かんじゅんどー  
 上泊 泊 元ぬ泊とう 三村  
 三村ぬ二才達が揃といてい 塩たち話  
 雨降らすなよ  
 元かんじゅんどー  
 辻 仲島とう渡地とう 三村  
 三村ぬアン小達が 揃とうてい 客待ち話  
 美ら二才から はい行逢らなや  
 潮平 兼城 糸満とう 三村  
 三村ぬアン小達が 揃とうてい 魚売い話

<미무라부시>

우루쿠 도미구시쿠 가치누바나 세 마을  
 세 마을의 아가씨들이 모여서  
 포를 짜는 이야기 모양을 틀리지마  
 본전을 못 뽑고 손해를 보니까  
 우이도마이 도마이 무토누도마이 라는 세 마을  
 세 마을의 청년들이 모여서 조금 만드는 이야기  
 비를 맞게 하지마  
 본전을 못 뽑고 손해를 보니까  
 치지 나카시마 와탄지라는 세 마을  
 세 마을의 아가씨들이 모여 손님 기다리는 이야기  
 잘생긴 청년을 어서 만나고 싶어라  
 슌자 가나쿠시쿠 이치만이라는 세 마을  
 세 마을의 아가씨들이 모여 생선 파는 이야기  
 싸게 팔지 마  
 본전을 못 뽑고 손해를 보니까  
 아카타 돈쥬무이 사치야마라는 세 마을  
 세 마을의 청년들이 모여서 술 빚는 이야기

安売いすなよ

元かんじゅんどー

赤田 鳥堀 崎山とう 三村  
三村ぬ二才達が 揃とうてい 酒たり話  
麴出来らしよ  
元かんじゅんどー

누룩을 맛있게 발효시켜  
본전을 못 뽑고 손해를 보니까

[46] <無情の月>

千里陸道や 思むれ自由なゆい  
一里舟道や 自由ぬならん  
我肝ひしひしとう 干瀬打ちゆる波や  
情思無蔵が 思みどう増しゆる  
貫ちたみてい 置ちよてい  
知らさなや 里に  
玉切りてい居ていん 袖の涙  
我身に幸しぬ 光ねんあしが  
無情に照る月や 光り勝てい

<무쥬노츠키>

천리의 육지 길은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일리의 뱃길은 마음이 자유로울 수 없네  
내 마음을 바싹바싹하게 야미시를 치는 과도는  
사랑하는 그녀를 향한 마음이 강해지지  
쭉 쌓아 두고 뒤서 알리고 싶어요 당신에게  
옥을 잘라 두어 소매의 눈물  
내게 행복의 빛은 없지만  
무정하게 비치는 달은 빛이 강해져서

[47] <本部ナークニー>

渡久地から上てい 花ぬ本辺名地  
遊び健堅に恋し本部  
ありゃ本部崎 くりや名護曲がい  
近くなてい見ゆせ 城東江  
名護からや羽地 伊差川や一理よ  
真喜屋兼久までいや 二里ぬちむい

<무토부나-쿠니->

도구치에서 올라 화려한 무토의 명지  
놀이든 겐켄에서 그리운 무토  
저것은 무토부사키 여기는 나고의 굽어들  
아간길 가까워져 보이는 것은 성과 동강  
나고에서는 하니지 이차시차야는 1리  
마지야카니구마까지는 어렵짐작 2리

[48] <桃売アン小>

(女)桃売やい我んね サユン布買うてえく  
とう此りし着物縫やい かなしアヒ小に  
我ね着しゆん  
(女)此りし着物縫ていん 切りぬ余ゆくとう  
我身ぬ着物ぬ袖に 附きてい我ね着ゆん  
(男)着物どう洗ゆるい 布どう晒するい  
水や我が汲むさ 疲ていや居らに  
(女)此りし着物縫やい アヒ小に着しゆく  
とう 今からぬ後や 他所とい毛遊びすな  
ようやー  
(男)誠実実ぬ 形見どうんやりば  
今からぬ後や他所とう毛遊び我ねすんなー

<무무우이양구와>

(여) 복숭아를 팔아서 나는 사유 베를 샀으  
니 이걸로 옷을 짜서 사랑스러운 오라버니  
에게 나는 입힐거야 이걸로 옷을 지어 자  
른 면이 남으니 내 기모노 소매에 덧대서  
나는 입을거야 이 자른 면을  
(남) 옷을 빨게 천을 표백할게 그 물은 내  
가 풀게, 피곤하지는 않나?  
(여) 이걸로 옷을 지어 오라버니에게 입히  
니까 앞으로 다른 곳의 사람과 밤놀이하지  
말아줘  
(남) 진실한 마음의 증표인데 앞으로 다른  
곳의 사람과 밤놀이를 할 리가 있나!

(女) 言ちゃんどうや イェーアヒ小  
(男) 変わるなよ互に  
(男女) 親に言ち二人や 夫婦にならな我達  
二人

[49] <めでたい節>

今日ぬ誇らしゃや なをにぢゃなたている  
蕾でいをる花ぬ 露ちやたぐとう  
目出度 目出度 スリスリ 目出度  
心うちあわち 願た事かなて  
互にうちはれて遊ぶ嬉さ  
千年経る松の緑葉の下に亀が歌しりば  
鶴や舞方  
御万人や揃て踊り跳ね遊で  
獅子や毬連れて踊り遊ぶ  
豊かなる御世や御万人のまぎり  
遊ぶ事の嬉しさ  
石なごの石の大瀬なる迄ん  
うかきぶせみしより拝でいしでいら  
御門見りば美らしゃ内入りば香ばしゃ  
だんじゅ福德ぬ御宿みせる  
我したまでい今日や誇しゃどあゆる  
踊てたち戻ら誇て戻ら

[50] <前田節>

今年前田ぬ稲みんそり  
今年飲まん酒ないち飲むが  
(やていからちゅぬちゃーぬまんかなぬでい  
あしばな)  
今年毛作やあん美らさる  
白種子やなびちあぶし枕  
見事出来らちやる毛作や  
蔵に積みくまいう祝さびら

[51] <やっちゃん小>

やっちゃん小 志情どうサヨ頼むヨ  
情ねんやっちゃん小 頼みぐりさ  
ちゃんすが思切らぬサヨなゆみヨ  
例い志情や 残て居ていん  
喰えーはんさーが 飲みはんさー

(여) 약속한거야 오라버니  
(남) 변하지 말자 서로  
(남녀) 부모님께 말씀드려 부부가 되자 우  
리 두 사람

<메데타이부시>

오늘의 기쁨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꽃봉우리가 이슬을 만난 것과 같은 것  
마음을 단단히 모아서 빌었던 일이  
이루어져 서로 기분이 완전히 풀려  
노는 것은 기쁜 일이다  
천 년된 소나무의 푸른 잎의 아래에  
거북이가 노래하면 학은 춤추네  
백성은 모여서 춤추고 뛰어 놀며  
사자는 공을 가지고 춤추며 노네  
풍요로운 이 세상은 민중이 총출동하여  
예능을 하며 노는 것은 기쁜 일이다  
공기놀이의 공기들이 바위가 될 때까지  
통치해주세요 배례하며 받겠습니다  
문을 보면 아름답구나 안에 들어가면 좋은 향  
기가 나는구나 단연 복덕이 깃들어 있다 우리  
들까지 오늘은 기쁜 기분이로다  
춤추며 돌아가고 싶네  
기뻐하며 돌아가고 싶네

<멘타부시>

올해 앞 밥의 벼를 봐 주세요  
올 해 마시지 않은 술은 이제 언제 마실건가  
(그러니까 모두 함께 마시지 않겠어 마시고  
놀자)  
올 농작은 저처럼 아름답네  
벼는 나무끼고 논둑은 베개로 할 정도로  
풍성히 열렸다  
훌륭하게 잘 거둔 농작물은  
곳간에 쌓아 놓고 축하하자

<얏차-구와>

형은 정이 있어야 기대지  
무정한 형은 기대기가 어렵네  
어째서 포기하고 싶어진 것이요  
만일 정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잘 못 먹고 잘 못 마셨네

椰子小ぬ酒ん 飲みはんちヨ  
あぬひゃーかまどうー小ん  
妻んしいはんち  
行ちゅんな 行ちゆくとうるサヨ  
やらする 島行ちょうてい  
洞一人小 泣かわちやすが

[52] <ゆたから節>

真夜中どうやしが 夢に起さりていヨ  
醒みてい恋しさや 無蔵が姿  
一人手枕に 明かす夜ぬ辛さヨ  
無蔵が手枕に 明かちみぶさ  
鳥やちゃん飛ばん島とめて  
無蔵と二人かながなと暮らちみぶさ

야자 열매 병의 술도 잘못마셨네  
저녁석 가마도도 마누라로 잘못삼았네  
갑니까? 가는겁니까?  
길을 떠나는거다  
마을을 나와 홀로 분해하며 울지마

<유타카라부시>

한 밤중에야말로 꿈에서 깨어  
눈 뜨고 그리운 것은 그 사람의 모습  
홀로 팔베개로 지새는 밤의 괴로움  
그 사람의 팔베개로 밤을 지새우고 싶다  
그녀의 침실에 대화를 피우게 하고  
피꼬리가 되어 몰래 들어가고 싶다  
새조차 날아갈 수 없는 섬 구하며  
그녀와 둘이서 돈독하게 지내고 싶네